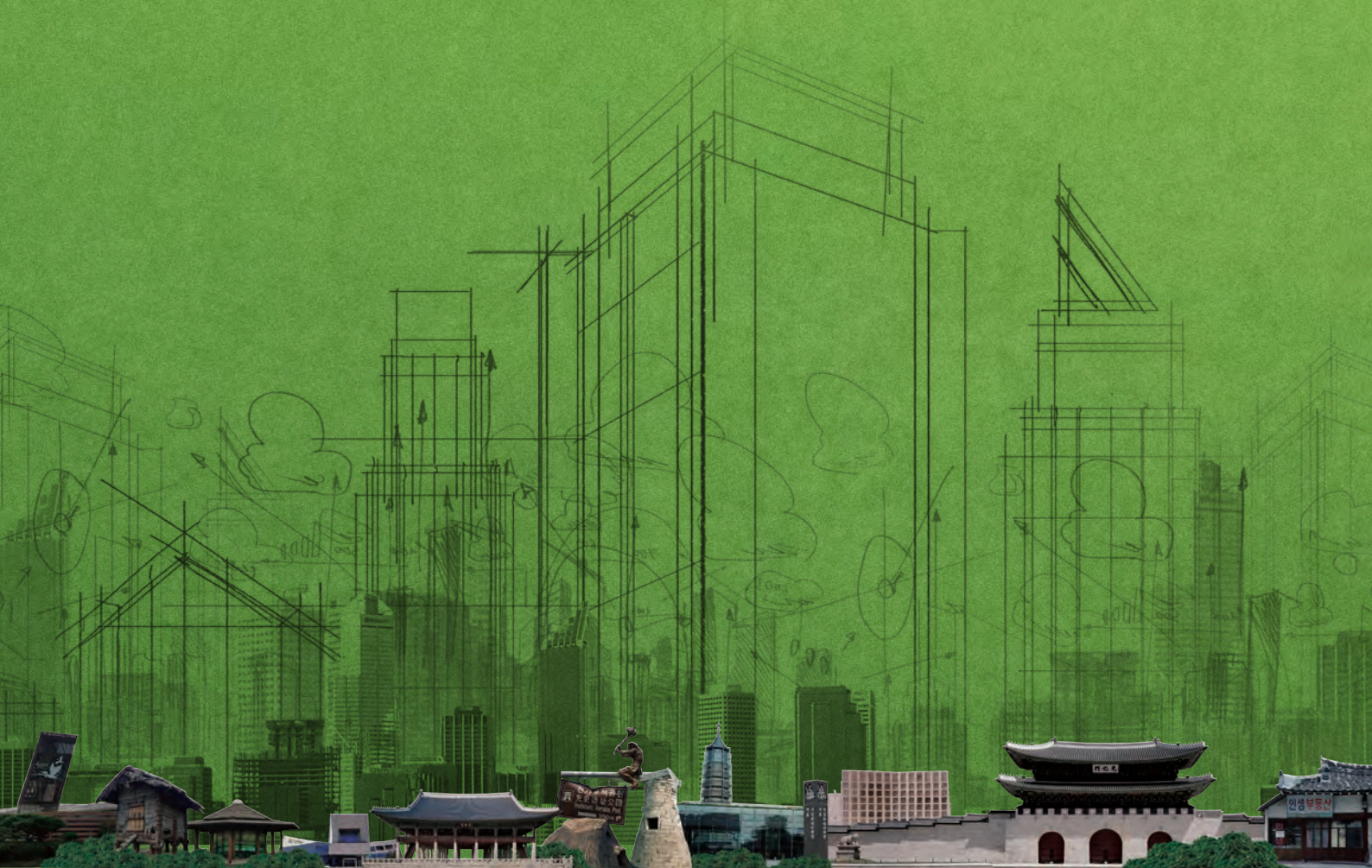


연구총서 제17집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2020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2020

제 1 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도시 조성방안

발간사	004
역사문화자원 활용 연구의 필요성 (토지주택박물관, 김정현)	006
일러두기	009

제 2 부

국내외 역사문화자원 활용
사례 조사

I. 역사문화자원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관계 (토지주택박물관, 김형우)	012
1. 역사문화자원의 개념과 범위	012
2.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	022
3. 역사문화자원과 도시	028
II. 역사문화자원 유형별 활용방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영재)	042
1.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개념 변화	042
2. 문화재시설의 법적 제한여건과 도시재생 연계의 의미	045
3. 역사문화자원 활용사례	052
4. 역사문화자원 활용 개념화	088
III.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대구대학교, 채미옥)	092
1.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의의	092
2.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제도적 현황 및 한계	094
3. 역사문화자산 활용의 제도적 개선 과제	104
4. 결론	148
IV. 역사문화자원 활용 가이드라인 검토 (토지주택박물관, 김태근)	152
1. 개발사업 진행시 역사문화자원 필요성	152
2. 사업단계별 역사문화자원 활용업무	156
3. 역사문화자원 활용 가이드라인(Check-List)	162
4. 역사문화자원 활용 공간의 범위	164
5. 주거공간과 더불어 역사문화공간을 제공하자	181

I. 서론	186
II. 국내사례	189
1. 부산 정관 지구	189
2. 용인 동백 택지지구	193
3. 성남 판교 개발지구	201
4. 시흥 능곡 택지지구	204
5. 김해 율하 택지지구	209
6. 안산 신길 택지지구	217
7. 진주 평거3 택지지구	225
8. 화성 동탄 택지지구	229
9. 용인 죽전 택지지구	237
10. 충주 호암 택지지구	244
11. 울산 혁신도시 개발지구	251
12. 김포 한강신도시	259
13. 광주 풍암지구	264
III. 국외사례	271
1. 일본 오타루시 도시경관 정비	271
2. 미니애폴리스 도로개발과 밀 루인스 파크 계획	279
3. 일본 나라현의 역사경관 정비	284
4. 일본 오사카의 도시경관 정비	288
5. 미국 독립기념관 광장 정비	293
6. 중국 장안성 대명궁 국가유적공원 정비	300
IV. 사례분석	313
V. 결론	320

발간사

시간은 공간에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 국토에는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집터나 무덤 같은 유적도 있지만 마을의 유래나 지명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화유산이라 합니다.

LH는 지난 60여 년 간 땅을 다지고 집을 지어 왔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던 시대에는 문화유산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1962년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LH가 공급하기 시작한 아파트는 60년도 되지 않아 전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는 주거혁명으로 이어지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여정이었습니다.

30여년 전부터 LH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분당, 동탄, 세종신도시는 모두 LH가 만든 도시들입니다. 모든 편의시설과 첨단기술이 적용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제 LH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문화유산이 문화자원이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연구서는 우리의 역사문화자원을 도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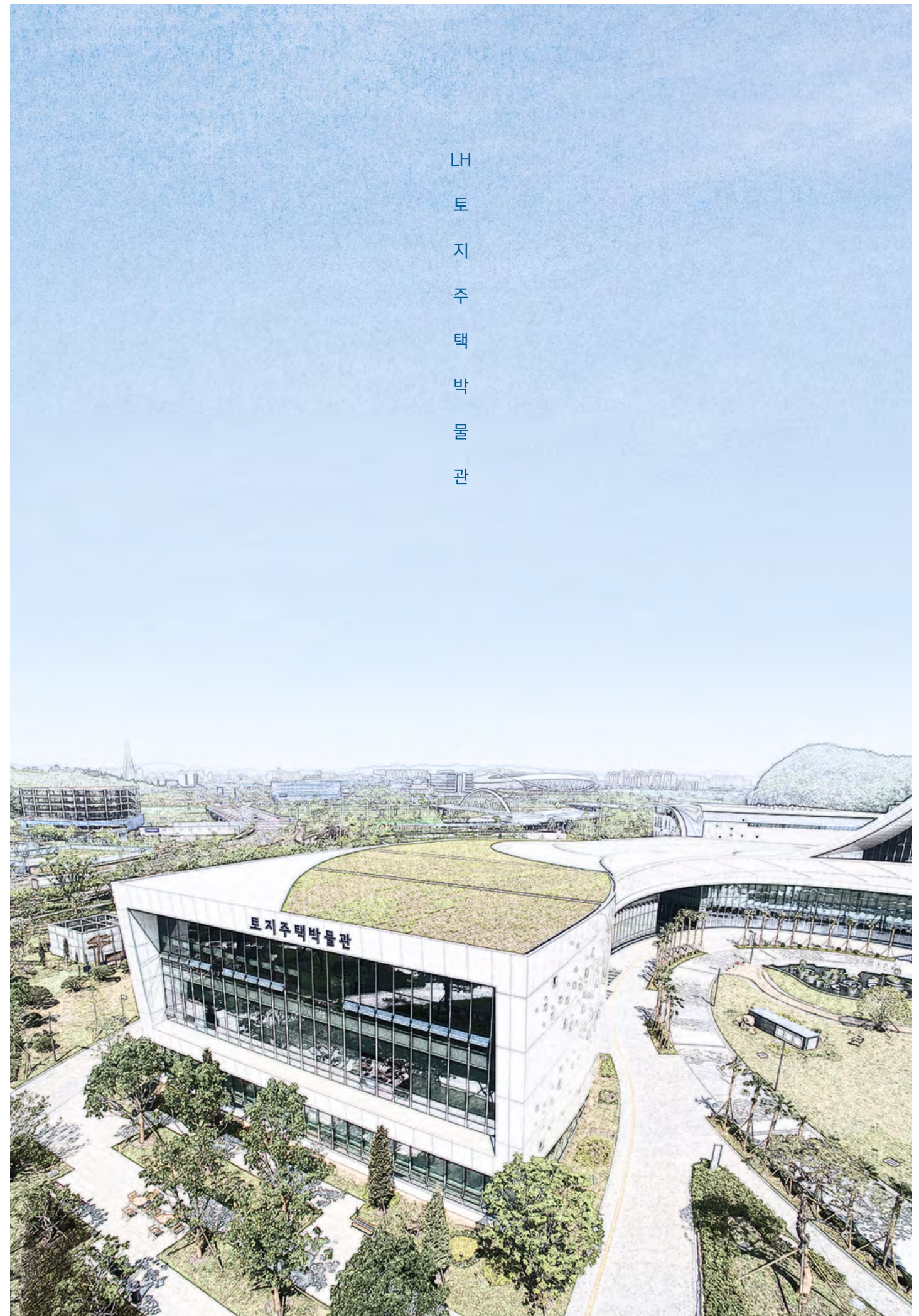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 연구서가 새로운 한국형 도시로 나아가는 방향표지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원고를 써주신 채미옥 교수님과 김영재 교수님,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의 국내외 사례조사를 맡아주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집필한 토지주택박물관 직원들께도 격려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관장

심광주



역사문화자원 활용연구의 필요성

토지주택박물관 | 김 정 현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진행해왔고 도시현대화와 생활수준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약 60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동안 압축성장에 매진한 결과, 도시의 역사성, 고유성, 정체성, 지역성을 상실한 획일적인 도시가 양산되었다. 획일화된 도시는 지역주민들의 정체성 또는 정서적유대감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살리지 못함으로 인해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인식 증대에 따른 문화향유 욕구는 문화예술공간의 확보, 특색 있는 도시공간 구현 등 다양한 형태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을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주요연구로는 2007년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전통을 담은 신도시건설 추진방안연구’, ‘도시정비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특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012년 ‘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활용현황 및 개선방안’,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주거지모델 개발’ 2017년 ‘인문학적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등이 있다. 2007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개발방안에 대한 기본방향 수립위주의 연구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는 점차 세부적인 공간적 가치 제고를 모색하는 연구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개발사업에서 역사문화자원 활용과 관련된 실천적인 노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 배경에는 개발사업과정에서 역사문화자원을 사업지연, 사업성 저하 등의 저해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으로 인해 개발사업의 규제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매장문화재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은 사업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여지책으로 사업지구 외곽에 조성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사라져가는 지역의 역사, 생활, 문화를 기록하는 민속조사 역시 소홀히하여 잠재적인 역사문화자원이 상실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을 테마로 한 특색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고고학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로 위촉하여 문화재 영향 관련 자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매장문화재 보존예상지역을 핵심보존지역으로 설정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주변을 저층으로 계획하는 등 토지이용계획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이를 반영하였다.

이는 역사문화자원이 중요하다는 단순한 인식의 단계를 넘어서 실제적인 활용의 단계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활용의 단계가 지속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개념 및 범위의 설정이 모호하여 전공분야마다 다르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역사문화자원을 도시공간을 구현하기에는 사업단계별 가이드라인, 역사문화자원 유형별 활용방식, 관련 법, 제도 등 실제적인 조성방안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발사업에 역사문화자원을 효과적이고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모색을 위해 본 연구총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1부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문화자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에게 연구를 의뢰하였다. 각 분야별 주제와 집필진은 다음과 같다.

주제	집필진
역사문화자원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관계	김형우(토지주택박물관)
역사문화자원의 유형별 활용 방안	김영재(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채미옥(대구대학교)
역사문화자원 활용 가이드라인	김태근(토지주택박물관)

‘역사문화자원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관계’에서는 기존 역사문화자원의 정의와 유형이 제한적으로 설정된 경향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자원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원과 도시간의 밀접한 관계를 살펴본 후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역사문화자원의 유형별 활용방안’은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개념변화를 살펴보고, 개발 및 보존과 관련한 법제도와 개발문제에 대해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소개하였다. 또한 현대건축물과 역사문화자원간의

연계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외사례를 점→면 활용, 면 활용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역사문화자원 유형별 활용방식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제도적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개선사항으로 역사문화자원과 개발계획 제도 개선, 건축계획을 활용한 역사문화경관 제고, 경관계획을 활용한 역사문화경관 조성, 사전협의 등에 역사문화전문기관 참여, 지원제도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역사문화자원 활용 가이드라인 검토’에서는 개발사업 진행시 역사문화자원의 필요성을 활용의 긍정적 의미 및 보존과 개발의 차이를 통해 강조하였다. 지구지정, 개발계획승인 등 사업단계별 역사자원 활용업무를 실제 수행사례를 통해 정리하였다. 또한 공공공간을 유형별로 나누어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현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부에서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내사례는 주요 개발사업지구에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한 사례 중 시사점이 강한 우수사례 또는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포함한 심화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외사례는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우수사례 및 주요사례를 추출하여 도시개발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 도시계획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도시 조성방안에 시사점이 도출되는 사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문화와 개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대에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도시의 조성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도시경쟁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책이 도시 조성에 역사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 1 이 보고서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특화도시를 조성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정의가 기존의 개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1부에서는 토지주택박물관 내부 직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외부 전문가의 원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부의 국내사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개발사업 중 역사문화자원 활용에 대한 시사점이 있는 13개의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 3 이 보고서에서는 전문성 확보, 객관성 유지를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했습니다.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필자의 원고를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필자간 중복된 내용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 4 보고서에 실린 사진 및 도면자료는 연구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및 「제35조의 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근거하여 사진과 도면자료를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실린 사진 및 도면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기관에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해당 기관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본 책자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발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전화번호 055-922-5438

팩스번호 055-922-5439

담당 김정현 대리, 김형우 주임

E-mail lhmuseum@lh.or.kr

홈페이지 <http://museum.lh.or.kr>

제 1 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도시 조성방안



- I . 역사문화자원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관계
- II . 역사문화자원 유형별 활용 방안
- III .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IV . 역사문화자원 활용 가이드라인 검토

I 역사문화자원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관계

토지주택박물관 | 김 형 우



1 역사문화자원의 개념과 범위

1.1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등장

21세기는 흔히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영국의 평론가인 매슈 아널드는 '산업혁명의 물질사회는 문화가 없는 곳'이라며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에 의해 근대화가 촉진되면서 물리적 개발의 속도가 급속하게 증가했고 인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물리적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문화적으로 결핍한 사회가 형성되는 단점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인류는 정신적인 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유럽 선진국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육성, 진흥하기 위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급격한 경제성장 이후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¹ 인식의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은 문화재 보존에만 집중되어 개발사업에서부터 매장문화재, 지정문화재의 파괴를 막는 구제(救濟)적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문화재 활용은 박물관 전시, 관광지 관람 등 원형보존동결 중심의 방법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국민의 소득수준과 문화향유욕구가 커짐에 따라 문화재도 이제 보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활용 대상으로 요구²되기 시작하였다.

1 문화기본법 제1조

2 문화재청, 2007, 『문화재활용가이드북』.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재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활용대상을 기존의 지정문화재만 포함한 시각에서 비지정문화재 및 근대문화재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으로 보고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을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해 독특한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지로 활성화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동시에 각 도시에서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역사공원, 역사테마거리, 박물관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1.2 역사문화자원 개념의 모호성

역사문화자원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재, 문화유산, 관광자원 등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재 및 문화재로써의 잠재적 가치가 있어 관리될 필요가 있는 자원'³으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포괄하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공통된 정의는 없지만 역사문화자원을 지역을 알리는 관광요소나 시민들에게 문화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시정비에서는 공간을 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 역사와 관련된 유·무형의 자원들을 역사문화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1 각 분야의 역사문화자원 정의

분야	역사문화자원 정의
문화재청	문화재 및 문화재로써의 잠재적 가치가 있어 관리될 필요가 있는 자원
지역자치단체	역사적인 유무형적 산물로 지역을 알리는 관광요소나 시민들에게 문화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
도시정비	공간을 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 역사와 관련된 유·무형의 자원

역사문화자원이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것은 용어에 대한 일반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없고 용어가 포괄하는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역사문화자원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주목받았지만 각 도시에서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효과적인 역사문화자원과 활용 방식을 찾는 데에만 주력했다. 이런 피상적인 접근에만 집중해서 역사문화자원의 개념 또는 중요성, 창의적인 활용방식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은 시도하지 않는 실정이다.

3 문화재청, 2020, 「역사문화자원 조사매뉴얼(안) -비지정 건조물·역사유적-」.

역사문화자원의 넓은 범위는 자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자원⁴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 종류의 양이 변화하는 유동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사람에 따라 역사문화자원 중 기존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자원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중요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역사문화자원이 가지고 있는 강점 때문에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문화자원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본 원고에서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자원 개념의 관점을 두 가지로 정리한 후 역사문화자원의 범위, 특성 등을 설정하여 연구에 통일된 개념을 위해 정의해보았다.

1.3 역사문화자원 개념의 관점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가지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역사문화자원 개념에 대한 두 가지의 관점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자원 중 역사에 관련된 자원으로 보는 관점은 문화에 역사가 포함된다는 시각으로 문화자원 하위 항목에 역사문화자원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자원 중 기간이 오래된 역사적 자원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의 연구에서 역사문화자원을 정의한 내용은 표2와 같다.

4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각종 재화와 용역, 자원은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채취하고 만들어 내는 것(네이버 백과사전)

표2 문화자원 중 역사에 관련된 자원으로 보는 관점

제목	내용
충남발전연구원 (2008)	충청남도 역사도시의 역사문화자원 실태 분석 및 활용방안 오랜시간의 흐름속에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문화가 축적되어 존속되어지는 활용적 가치가 있는 자원
국토연구원 (2015)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것으로 우리 민족, 국가 및 지역 문화의 우수성과 고유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가치를 지닌 자원 ex) 문화재, 유적 등
서울연구원 (2019)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성과와 개선방향 역사문화자원이란 오랜 시간을 두고 쌓아온 삶의 축적물로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대적, 장소적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

이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기존의 관리 대상인 지정문화재에 더불어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비지정문화재를 모두 포괄하는 관점이다. 여기서 역사문화자원은 과거 인간집단의 문화작용으로 만들어진 유무형적 산물로서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자원만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역사문화자원을 역사적 상징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산물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과거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역사자원과 현재 생활로 만들어지는 문화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런 관점의 연구에서 역사문화자원을 정의한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역사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을 총칭하는 관점

제목	내용
토지주택연구원 (2012)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주거지 모델 개발 역사문화자원을 보존 및 보전 중심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던 기존의 일반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객체적 위상과 달리 도시조직을 구성하는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의 중요한 구성요소 + 문화재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문화자원
경남발전연구원 (2012)	경상남도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제고방안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등을 포함하는 역사자원과 함께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자원과 문화기반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부산항만공사 (2013)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역사문화 잠재자원 발굴 및 활용방안 수립용역 북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기인정 되고 있는 현존하는 유산, 2)매립과 개발에 의해 사라질 유산, 3)현재 보다는 미래에 가치 증폭이 기대되는 미래유산, 4)이미 개발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사라진 유산, 5)소소하나 과거의 흔적과 기억의 대상으로 잔존하는 세간유산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

이 관점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대상들뿐만 아니라 공통된 기억이 있는 대상이라면 역사문화자원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흔적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화가 공유되어 형성된 자원도 활용가치가 있다는 인식이다.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에 대해서 역사적 가치보다 공동체의 공감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관점은 서로 어떤 목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구분한 것으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런 관점은 목적과 접근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보통 문화자원 중 역사에 관련된 자원으로 보는 관점이 다수이지만 생활에 밀접한 도시관리분야에는 공동체에서 공유되었던 대상을 모두 역사문화자원으로 보는 관점을 보이는 등 분야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1.4 역사문화자원의 정의

이 보고서의 발간목적은 도시와 역사문화자원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고 택지개발 및 도시관리에서 역사문화자원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적용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애매한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⁵가 필요하다.

1) 역사문화자원의 분류

역사문화자원의 실체는 문화⁶라는 범주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 형체유무에 따라 유형 역사문화자원, 무형 역사문화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역사문화자원은 형태에 따라 점적, 선적, 면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점(點)적 자원은 개별적인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작은 범위의 자원이다. 점적 자원은 이동이 가능한지에 따라 고려청자와 같이 이동이 가능한 동산, 한옥처럼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선(線)적 자원은 점적자원들이 공통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모여있거나 형태가 선모양의 자원이다. 선적 자원은 개별 자원이 선모양의 시설물과 여러 개의 점적 자원의 집합이 선모양으로 있는 가로로 구분된다. 면(面)적 자원은 공통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점적 자원과 선적 자원들의 집합되어 있는 자원이다. 면적자원은 범위의 크기에 따라 작은 단위의 구역과 큰 단위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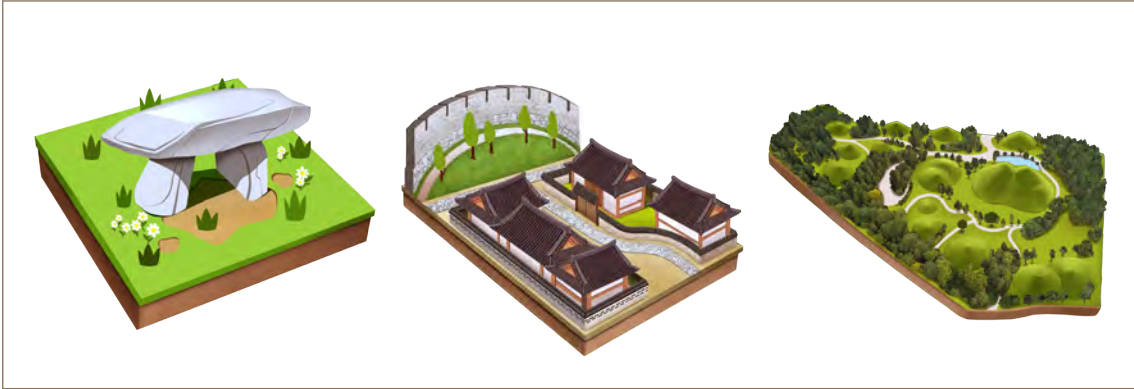
5 어떤 용어에 대해 그 용어가 적용되는지 안되는지를 결정하는 특정한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화하여 용어를 정의하는 방식, 논문뿐만 아니라 법과 규칙의 제정에서도 필수적이다.(네이버 백과사전)

6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표준국어국어원)

표4 유형 역사문화자원의 분류

유형	점적 자원	동산	ex) 고려청자, 풍속도, 독립선언문, 타자기
		부동산	ex) 분묘, 향교, 고택, 탑, 고인돌, 생가, 폐교
	선적 자원	시설	ex) 성곽, 기차길, 성수대교, 터널, 석교(石橋)
		가로	ex) 피맛골, 돌담길, 전라감영길, 서울로7017
	면적 자원	구역	ex) 한옥마을, 집성촌, 고분군, 역사문화지구
		지역	ex) 고도(故都), 역사문화도시

점적(고인돌), 선적(성곽길 및 한옥거리), 면적(고분군) 역사문화자원 예시



이와 달리 실체가 없지만 축제, 놀이, 노래 등 형체가 없는 무형 역사문화자원들이 있다. 무형 역사문화 자원들은 일정한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공동체에 의해 학습, 공유, 체험 등이 진행되거나 기록으로 남아있어 학습이 가능한 것들이다. 무형역사문화자원들은 장소에 민감하지 않으며 구성요소의 변화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5 무형의 역사문화자원 분류

무형	활동	축제, 제사, 마을행사, 시합, 민속놀이, 공연
	분위기	이미지, 흔적, 배경, 환경
	인물	위인, 인간문화재, 단체
	고전	전설, 설화, 옛이야기, 민담
	기술	소목, 대목, 와장, 공예, 석공, 조각
	기타	지역기업, 특산물, 식문화, 제도, 행정, 경제

출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주거지 모델 개발 일부 내용 추출

2) 역사문화자원의 특성

역사문화자원의 특성은 지역성, 시간성, 공감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역성**이다. 지역의 사전적 의미는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으로 정의된다. 지역이라고 구분한 공간 내에는 외부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을 근거로 지역성을 **‘다른 영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개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지역성은 그 지역 외 다른 영역에서는 동일하게 가질 수 없는 특징으로 희소하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군산 근대화거리는 지역성이 짙은 역사문화자원의 한 예시로 볼 수 있다. 군산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쌀 수탈을 위해 서해안지역에 최초로 건설한 항구로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2017년부터 군산은 차별적인 지역의 개성을 활용하여 시내에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 근대화거리를 조성하였다. 군산 근대화거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인천, 대구 등의 다른 도시 근대골목과 차별화된 역사문화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군산 근대화거리 일부

출처: 군산시청

결국 지역성은 해당 구역의 독특한 고유성으로 잘 활용하면 남들과 비교하여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다. 모든 공간에는 다른 공간과 차별화될 수 있는 속성이 있다.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력있는 지역성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 높은 지역성을 가진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은 외관의 모습을 모방하더라도 따라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시간성이다. 문화는 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 공유,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과정은 필수적으로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즉, 문화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역사문화자원은 시간의 흐름이 필수적이다. 공동체가 문화를 학습·체험·공유라는 문화활동과정을 거쳐야만 유·무형의 문화적 산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시간성을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역사문화자원의 연구에서는 이런 시간성을 역사성이라 지칭하고 ‘대상이 만들어지거나 발생한 시점이 특정 기간 이상 오래되어야 하고, 특히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깊은 성질’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문화는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는 정보화의 영향으로 문화교류시간이

단축되어 문화로서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형성하고 있다. 기존의 50년 이상⁷⁾의 기간을 정한 연구들은 역사성을 중시하던 기존 관념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역사문화자원의 범위를 비교적 협소하게 본다는 한계가 있다.

추가적으로 시대 변화에 소멸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사용된 역사문화자원은 높은 시간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활용가치가 있다. 이런 자원들은 다양한 스토리를 활용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한 예로 청주시내에 있는 용두사지 철당간은 고려시대의 용사 입구에 있던 당간으로 국보 제41호로 지정되어 있다. 철당간은 절의 입구나 법당 앞에 내다 거는 일종의 깃발인 당(幢)을 달았던 것으로 청주의 철



용두사지 철당간

출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당간은 건립연대가 적혀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역사문화자원이다. 이와 별도로 근현대시대에는 변화가에 위치하여 청주사람들의 약속장소와 축제가 진행되는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철당간은 그 장소에 연속되어 존재함으로써 문화재적 가치와 현대시대의 집단기억 상징물이라는 두 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랫동안 단절되지 않고 사용된 역사문화자원은 단절되어 기능을 잃어버린 다른 역사문화자원에 비해 활용에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는 공감성으로 **‘역사문화자원에 담긴 이야기나 문화에 대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드리는 정도’** 정의할 수 있다. 문화는 개인의 단독활동이나 결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복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필수적이다.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어떠한 방식이라도 학습, 공유되어야 문화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공감성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원에 대해 소속감, 애정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즉 공감성은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속성이다. 이런 특성은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집단 내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한다.

역사문화자원의 공감성을 가장 잘보여주는 자원은 대전의 빵집인 성심당이다.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찜빵집에서 시작하여 1970년 은행동으로 이전한 후 대전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성장하였다.

7 군대문화재 등록 조건: 50년

사기업인 성심당은 스스로를 대전의 자부심으로 소개하고 지역사회에 기부, 사회공헌, 대전 외 분점 금지 등 대전에 대한 애정과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활동은 성심당에 대해서 대전 사람들은 각별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성심당을 대전의 문화⁸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성심당은 대전에 위치한 문화재보다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지역공동체에게 특별한 활동을 제공하여 애정과 공감을 이끌어 내 성심당을 대전의 역사문화자원으로 만든 것이다.



성심당

출처: 위키백과

역사문화자원의 특성인 지역성, 시간성, 공감성 정의를 다시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6 역사문화자원 속성 정의

특성	정의
지역성	다른 영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개성
시간성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공감성	대상에 담긴 이야기나 문화에 대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드리는 정도

이 특성들은 서로 성립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나의 역사문화자원에서 세 가지 특성을 모두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다. 물론 모든 특성을 갖춘 역사문화자원이면 활용가치가 매우 뛰어나고 기대효과도 높겠지만 대부분의 자원은 세 가지 특성 중 한 가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역사문화자원의 지역성, 시간성, 공감성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8 성심당에 대한 추억이 없는 대전인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대전 정체성의 핵심이다. 지금도 대전 시민들은 타지인에게 성심당 빵을 선물할 정도로 성심당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남다르다. 모종린, 2017, 『골목길 자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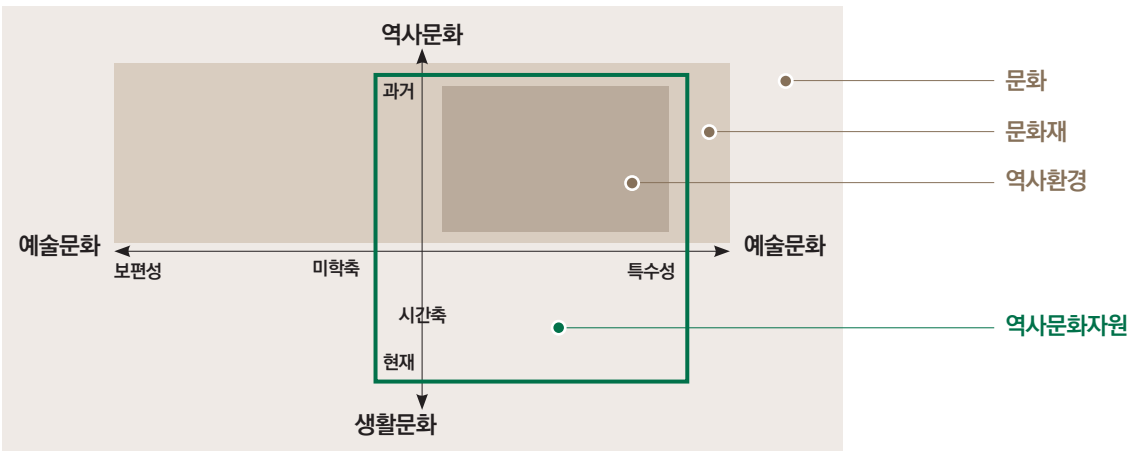
3) 역사문화자원 조작적 정의

앞선 내용을 토대로 역사문화자원은 ‘집단이 공유가능한 기억을 포함하는 인간행위의 유, 무형적 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 역사문화자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집합인 집단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단순히 사람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공동체여야만 한다.

역사문화자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문화적 행위의 영향을 받은 대상이어야 한다. 아무리 오래된 자원이라도 인간의 활동에 대한 흔적이 없다면 역사문화자원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존재한 시간은 짧아도 인간의 영향이 내포되어 있다면 역사문화자원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은 인간 활동인 문화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형태, 성질, 의미 등이 변화가 이뤄진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역사문화자원의 일반적인 범위로는 과거의 문화로 만들어진 유무형의 산물인 역사적 자원만을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역사문화자원은 역사적 자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로 생성된 문화적 자원도 포함해 포괄적으로 봐야한다. 긴 시간에 의해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거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쉽게 공감을 얻는 문화적 자원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문화자원의 범위



출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주거지 모델 개발 내용 재구성

2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

2.1 도시(都市)

도시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낸 인공환경이며,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터전이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6). 도시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다양한 것들을 포용하여 성장하기도 하지만 시간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쇠퇴하기도 한다. 도시를 인구·물리적 측면, 사회·경제·문화적 측면, 그리고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표7 도시의 정의

인구, 물리적 측면	농촌지역보다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적절한 정주민구가 있는 곳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	예술, 문화, 종교, 정치형태들이 잘 갖추어지고 조화를 이룸으로써 의미있는 문화활동과 정신적으로 승화된 행동을 구현할 수 있는 곳
기능적 측면	사회제도의 중심부, 정치·행정조직, 종교, 상업활동, 문화 등의 중심지 기능을 하는 곳

출처 : 최봉문 외14명, 『현대도시학』 내용 정리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인간을 만든다’라는 말처럼 도시는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살아가는 도시는 그만큼 많은 삶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었고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건전하고 좋은 도시는 시민에게 경제적 이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이익도 함께 줄 수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문화를 누리고 도시공간 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현재사회는 세계화(Globalization) 및 세방화(Glocalization) 되어 도시의 경쟁력이 나라의 경쟁력으로 직결될 만큼 좋은 도시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2.2 도시개발이론의 변화

인간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보려는 인류의 노력은 고대 로마시대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적인 도시계획으로 제안된 것은 중세 르네상스시기인 15세기 이후의 이상도시로 알려지고 있다(김귀곤, 1992). 이 후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모더니즘의 도시개발이 진행되었고 많은 도시가 표준화된 물리적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런 합리적인 방법은 도시의 가장 중심인 사람에 대해 고민이 없었고 도시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들이 야기했다.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 중심적인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요소들이 도시공간을 개발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1) 모더니즘 도시개발이론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근거한 인간생활의 전 분야에 걸친 거대담론이다. 도시공간에서 모더니즘은 공간의 합리적 사용이라는 실용적 논리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전통이나 권위, 봉건성 등에 대한 반발과 과학이나 합리성을 중요시했던 모더니즘에서는 정제된 아름다움을 우선했다. 또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실용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공간 내 존재(begin in the space)인 인간을 통제하였다(임형백, 2009). 모더니즘 도시개발이론은 유토피아사회 사상가들의 이상도시 건설운동을 시작으로 전원도시운동, 위성도시, 근린주구이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장되었다.

표8 모더니즘 도시개발이론

주요이론	주창자	주요내용
이상도시론	C.Fourier R.Owen J.B.Godin A.SoriaY Mata	산업혁명으로 제기된 초기자본주의 문제들을 이상사회 건설을 통해 해결 자본주의에 의한 억압과 착취가 사라진 평등한 해방공간추구 설계원칙으로 합리성과 기능적 효율성 중시 공기, 빛, 녹지의 중시, 공동체주의 고양 인구 1200~1800명의 방사형 소도시
전원도시론	E.Howard R.unwin B.parker	도시와 농촌이 조화되는 twon-country 지향 토지의 공유,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농업용 토지의 영구보존 및 시가지 팽창 방지 인구규모의 제한 및 경제적 자족성 확보
위성도시론	G.R. Taylor R.Unwin R.Whitten A.Rading	중심도시 주변 소도시 배치, 대도시 팽창 억제 위성도시는 중심도시에 경제적·문화적으로 예속 대도시 산업시설 이전, 토지이용 효율성제고 주생활권 서비스와 일일생활권 서비스로 기능분담
근린주구론	C.Stein H.Wright L.Mumford C.A.Ferry	규모: 초등학교 1개소가 형성될 수 있는 인구 경계: 간선도로로 둘러싼 슈퍼블럭 내 위치 오픈스페이스: 소공원과 여가공간 구비 공공시설: 학교와 공공시설의 중심부에 집단 배치 상업시설: 1개소 이상의 상점지구 배치 내부도로체계: 통과 교통을 배제
기능도시론	Le Corbusier S.Giedion L.Costa	도시문제는 발전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도시기반시설의 기계화, 자동화 및 주택의 고층화 광대한 오픈스페이스에 둘러싸인 마천루 사선형 격자도로망 및 보차분리 도시의 주요기능(주거, 여가, 근로, 교통)을 위한 태양, 공간, 녹음의 확보 제시

출처: 안인호(2014)

모더니즘 도시개발이론은 공간의 합리적인 사용으로 도시로부터의 생산성을 높였고 다량의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발생한 사회문제를 일부 해결했다. 하지만 부의 불평등 분배와 물질만능주의, 환경오염, 획일화된 도시외관, 난개발 등 도시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시개발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개발이론

모더니즘 도시개발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개발이론은 인간중심주의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지향성을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문제 해결을 합리주의나 과학주의에 바탕을 두고 기능적 효율성에서 찾으려는 모더니즘 도시개발이론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개발이론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도시 내 시민, 즉 인간을 중점을 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원칙 및 실천원리들을 정교하게 지시하였고, 각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다양성을 존중했다. 이런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개발이론은 미국의 뉴어바니즘, 스마트성장, 컴팩트시티, 영국의 어반빌리지 등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기본원칙, 실천수단, 그리고 궁극적 목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안인호, 2014).

표9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개발이론의 특징

주요 이론	국가	목표 및 기본원칙
뉴어바니즘 (New Urbanism)	미국 (1980년대)	무분별한 외연의 확산방지 경제적 활력과 안정, 환경적 건전성 유지 인종, 소득, 연령 등 근린공동체의 다양성 지향 자동차와 보행자, 대중교통 중시 대중의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 및 시설 도시의 역사, 기후, 생태계, 건축양식 등의 보존
스마트성장 (Smart Growth)	미국 (1980년대)	살기 좋은 커뮤니티 건설(복합용도개발, 보행자 중심) 양호한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 지역성과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커뮤니티 조성 기존 도심 개발을 통한 성장 강화 성장이익의 공유 및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생태, 자연경관,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보존
어반빌리지 (Urban Village)	영국 (1980년대)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적 상호작용 조장 지역의 역사, 지리, 자연경관 등을 고려한 장소만들기 도시공간의 질서를 통한 편리하고 합리적인 이동보장 토지나 건축물 등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 고려 지역적 및 자연적 환경과의 조화 및 융합 문화적, 정서적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건축
압축도시 (Compact City)	미국 (1970년)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 압축개발을 통한 도시공간 활용 고도화 도보통행과 대중교통 등 인간친화적 도시환경 공해방지와 에너지 절감 녹지와 오픈스페이스 확보 구도심 재활성화
슬로시티 (Slowcity)	이탈리아 (1990년)	인간적응속도를 무시한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 표준화에 대항 주민의 자발적인 주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고방식 자연, 음식, 문화, 전통적 방식의 보호·발전에 초점 인간 생활리듬을 존중하는 삶의 질 향상과 여유로운 생활 추구
마찌즈쿠리 (まちづくり)	일본 (1980년)	지방 정체성 및 가치 재발견에 대한 요구에서 시작 주민관점에서 기획되는 물리적, 사회적 지역환경 정비운동 애향심을 고취하고 생활의 활력 제공 신토불이의 슬로푸드와 슬포라이프 체험

출처: 국토연구원(2006)과 안인호(2014) 재정리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개발이론들 모두 도시가 인류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을 인지하고 가장 좋은 도시가 무엇인가에 대해 각각 이념에 따라 고민하고 있다. 이 둘의 구체적인 특성을 비교하면 표 10와 같다.

표10 모던-포스트모던 도시개발이론 비교

구분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기본이념	합리주의, 과학주의	휴머니즘적 인간중심주의
상황인식	국제적 보편주의, 물질주의	역사적 맥락주의, 탈물질주의
개발원칙	균일성, 일반성, 단순성, 표준화	지방성, 개별성, 개성, 민족성
개발방향	주거지 위주의 물리적 계획	사회·문화·환경 중시
건축양식	기능주의, 표준화된 건축양식	복고주의적 절충주의

출처: 안인호(2014)를 재구성

전 세계의 도시개발들이 시기의 차이를 제외하고 모두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진행되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 모더니즘은 기존의 종교나 신분사회의 중심으로만 이뤄지는 비합리성을 거부하는 기초이념이다. 합리적인 좋은 도시를 구축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도시에 적용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존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만능의 방법이 없듯이 모더니즘 도시개발도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트모더니즘이론이 나타나는 비슷한 양상이 보인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근대적인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모더니즘 도시개발이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2000년대 들어와 도시 성숙기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도시문제를 포스트모더니즘 도시개발이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다.

2.3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변화

1) 성장기반의 조성(1960~1970년대)

우리나라는 일제감정기와 한국전쟁으로 근대적인 도시개발이 1960년대부터 실제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국토개발을 진행했다. 먼저 국토건설종합법을 제정하여 개발효과가 큰 지역을 중점으로 개발하는 특정지역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특정지역개발은 성장거점이론⁹을 토대로 서울-인천을 비롯하여 총 12개의 거점지역을 지정,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중공업

9 페루가 주장한 이론으로 특정한 거점에서 주변지역으로 낙수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역발전이론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업기지건설과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공업도시¹⁰가 건설되었다. 이와 별개로 개발우선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야기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도입하였다.

2) 양적팽창과 위기관리(1980~1990년대)

9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라 자동차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도시외곽지역의 개발압력이 커졌으며 도시가 점차 외곽으로 확장되었다. 이 시기에는 도시화로 발생한 주택부족과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이 중요한 도시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도시 중심으로 영구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200만호 건설을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한 1기 신도시¹¹를 건설하였다.

대규모의 주택공급을 최대한 단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 때문에 도시개발은 공사의 효율성만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급격한 물가상승,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부동산 경기 과열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준농림지제도¹²의 도입으로 소규모 난개발이 확대되었고 환경오염, 도시환경에 대한 무관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는 대두되었던 주택문제,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경제성장과 함께 실행된 도시개발정책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도시의 과도한 외연 확장, 획일화된 도시외관, 아파트중심도시, 도시의 지역적 맥락 무시 등 모더니즘 도시개발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소득증대, 대중문화 발달, 시민사회 성장 등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이 도시의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기존의 최대관심요소인 경제성장 이외에도 문화, 환경 등 새로운 가치들이 도시의 중요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3) 삶의 질과 균형발전의 추구(2000년대~현재)

도시화는 1960년대 이후 매 10년마다 증가하였지만 2000년대에는 2%내외로 감소하면서 성숙기로 진입되었다. 정부주도의 신도시개발, 신규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도시외곽지역으로 일정 부분의 인구분산 효과를 거두는 성과도 있었다. 2003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간전략으로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건설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정립과

10 울산, 포항, 구미와 같은 공업도시와 창원, 여천 등의 공업단지 배후도시를 조성

11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5개 신도시

12 준농림지 제도 도입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전체 준농림지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403km²의 토지가 개발

함께 성숙된 도시나 새로운 도시들은 기존의 도시들과 차별성을 부각시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의 브랜드화, 장소마케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도시의 외관적인 모습만을 강조했던 이전과 달리 도시 내부의 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문화가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문화경제의 부상에 따라 도시의 역사문화자원 보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문화적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독특한 개성을 지닌 장소가 명소화되어 활성화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전주한옥마을, 감천문화마을같은 문화특성도시를 정부차원에서 만들려 노력하였다.

추가적으로 인구감소, 저성장,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신개발사업과 전면철거형 도시개발이 위축되고 기존 장소의 가치 발견 및 재창조하는 도새재생이 주요 도시정책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 도시사회가 모더니즘의 물질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탈물질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역사문화자원과 도시

3.1 문화와 도시

1) 문화와 도시간의 관계

도시와 문화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역사의 전환기마다 새로운 가치와 사회적 변화가 요구되어 왔지만 궁극적으로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은 한 도시가 지닌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과 문화자원에 의해 형성되었다. 또한 도시에서 문화가 발생하고, 반대로 문화의 발생은 도시의 발전을 유도하는 과정이 순환¹³되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도시 내에서 문화에 대한 관심은 심미성을 추구하는 고급예술분야에만 편중되었다. 하지만 문화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인식 변화에 따라 도시정책에도 다양한 문화분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되기 시작했다.¹⁴ 현재에는 문화를 단순히 도시마케팅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13 유승호, 2020, 『문화도시-지역발전의 창조적 패러다임-』.

14 박은실, 2018, 『문화예술과 도시』.

인간의 삶에서 문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크다.

1970년에 베니스에서 최초로 열렸던 문화정책회의(Intergovernment Conference on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spects of Cultural Policies)에서 문화를 인간이 영위하는 삶의 일부분으로 규정함으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사회발전은 본질적으로 문화발전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했다. 이후 도시 내 문화는 개개인의 삶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로 발생한 시민들의 즐거움은 도시로 환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도시관계자들은 도시 내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역량을 쏟고 있다.



물리적 시설 + 정신적 문화

2) 문화계획

대부분 도시정책에는 어떤 형태로든 문화계획이 포함되는 것이 최근 추세이다. 문화는 도시의 종교, 언어, 문화, 생활양식, 사고방식, 패션 등과 연계되어 도시의 미관과 상징, 품격과 이미지, 브랜드와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친다(Worpole&Greenhalgh, 1999). 현재 문화계획은 도시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어 21세기 탈산업사회, 포스트모던 사회의 도시개발을 위한 신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¹⁵

현재 문화계획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문화계획 가이드라인과 지침서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지역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 중이다. 각 도시별로 문화는 도시의 매력, 품격 등을 보여주는 주요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¹⁶,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문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와 지역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한 문화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Graceme Evance, 2001)’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문화계획은 도시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인 것이다. 도시 내 역사문화자원은 지역의 개성과 맥락을 보여줄

15 김천권, 2017, 『현대도시개발』.

16 김천권, 2017, 앞의 책.

수 있어 다른 자원들과 비교하여 경쟁적 우위가 있다. 그래서 도시 관계자는 도시 내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

3.2 도시 내 역사문화자원 역할

1) 도시 내 역사문화자원의 위치

역사문화자원은 해당 지역의 정체성, 시간성 등을 포함한 자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공동체가 존재하며 그 집단에 문화로 인해 여러 형태의 역사문화자원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 시 개발 공간 내 역사문화자원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외면받고 있다. 오히려 역사문화자원은 법적제한 및 사회적 인식으로 사업기간 및 비용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방해물로 여겨지고 있다.

역사문화자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재는 오랫동안 도시개발과 상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¹⁷으로 건설공사시 문화재를 보호하도록 법에서 명시되어 있다.¹⁸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좁은 면적의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라는 악조건을 두루 갖춘 처지에, 보다 풍요로운 삶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건설공사를 수반한 개발은 필수적이라¹⁹ 잦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재 중 개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장문화재이다. 매장문화재는 땅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국토의 형질 변경을 가져오는 개발에서 파괴 및 훼손되기 쉽다. 그래서 개발에 의한 매장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 전 문화재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조사와 발견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존, 이전복원, 전시관 설립 등 다양한 보존조치를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률 조항도 존재한다.

17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18 문화재보호법 제12조

19 김용정 외, 1996, 『개발과 유산의 보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매장문화재 조사 절차도



출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지정문화재는 지표 위에 존재하여 가시적인 대상으로 개발 후보지에서 선제적으로 제외할 수 있어 매장문화재보다는 개발에 대한 영향은 적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발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 지정문화재는 원형보존을 원칙²⁰으로 하고 있어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의 현상변경을 제한한다. 현상변경은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문화재의 생김새·환경·경관·대지 등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통칭한다.

20 문화재보호법 제3조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은 허가의 대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자는 개발로 인해 문화재 원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 원형은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은 물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문화재 원형중 가장 범위가 넓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구역에서 500m내외로 지자체마다 시도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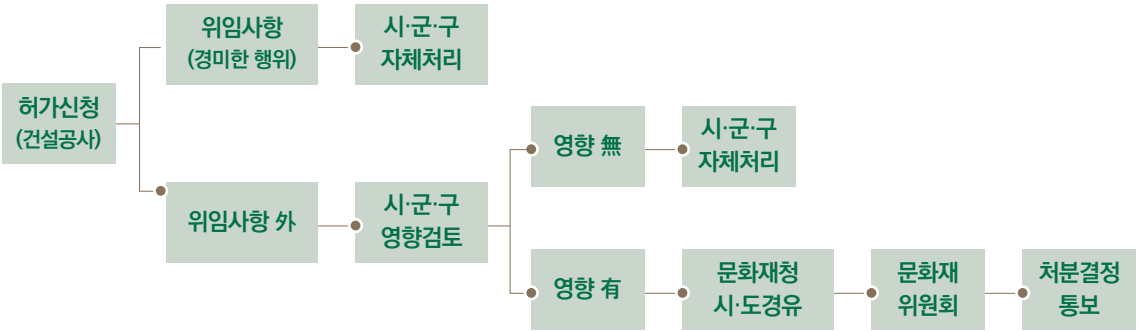
표11 시·도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단위: m)

구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서울	100	100	50	50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	200	500	200	500
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200	500	200	300
전북	500	500	500	500
제주	500	500	300	300

2019년 기준

지정문화재의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현상 변경 제한 정도의 엄격함으로 문화재 내부(문화재구역+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 환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재 내부는 원칙적으로 신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건설공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달리 문화재 환경은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조화롭게 공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청에서 공사(현상변경)를 허가해주고 있다. 또한 지정문화재의 유형에 따라 경미한 행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지자체가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사업은 많은 건물들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어 건축물 높이, 조망권, 경관 등 문화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후보지 선정에서 지정문화재 관련 구역을 비효율적일지라도 제외 및 회피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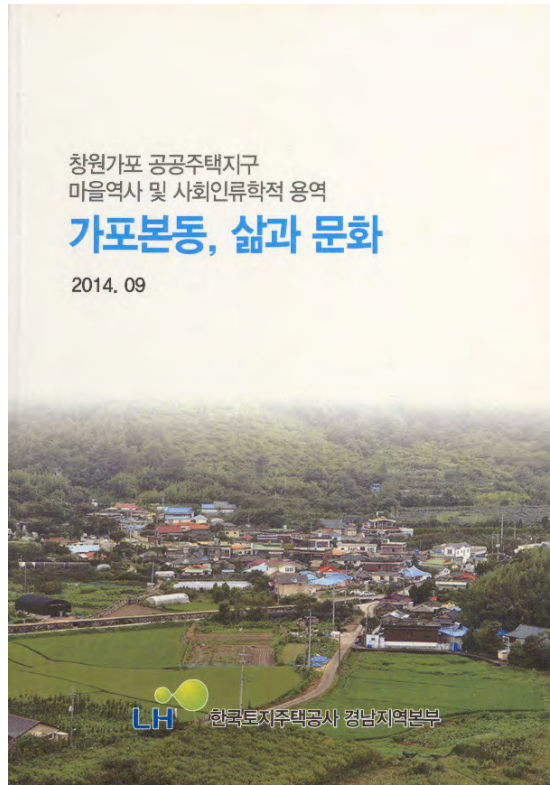
표12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도



출처: 경기도청

무형역사문화자원도 개발사업에 영향을 받는다. 무형역사문화자원은 그 공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상으로, 가치있는 자원이지만 개발사업 시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 무형역사문화자원은 물리적 제한이 없기에 활용방식이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무형역사문화자원도 다른 역사문화자원같이 개발사업 중에 고려되지 않으며 심지어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개발은 기존 공간의 질서를 사업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 중에 물리적인 공간도 바뀌고 원래 거주했던 원주민도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다. 기존과 달라진 환경에 의해 그 공간에 존재했던 분위기, 활동, 이야기 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런 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에서 해당 구역의 민속들을 기록하도록 매장문화재법에서 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개발 사업자는 사업지구 내 민속, 풍습, 생활사 등을 구술 및 심층조사를 통해 민속지로 기록하여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무형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려 노력 중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록만으로는 무형역사문화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어 진정한 보존이라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무형역사문화자원은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공간에 녹여있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무형역사문화자원 의미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간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와 조화된 개발이 필수적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개발사업의 사업성, 효율성 등의 가치에 밀려 도시공간 내에서 무형역사문화자원은 잘 활용되지 않는 실상이다.

2)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효과

개발사업의 목적이 무차별적인 파괴가 아니라 국토를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그 지역의 역사적 맥락인 역사문화자원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²¹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1 김철수 외, 1997, 앞의 책.

역사문화자원은 도시개발에서는 중요한 활용자원으로 보지 않는다. 역사문화자원이 개발사업 구역 내에 존재해도 보존시설 설치, 관광지 등 도시일상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도시공간에 역사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는 도시 역사의 상징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은 그 도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떤 변화를 겪고, 과거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으며 지금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읽을 수 있는 콘텐츠이다.²² 즉, 역사문화자원은 도시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개체인 것이다.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기억과 흔적을 남긴다. 이 기억과 흔적을 담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통해서 해당 도시공간의 생애를 알 수 있다.

과거의 모습들은 도시의 역량과 장점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도시들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넘어 문화자원이 축적된 도시이다.²³ 우리는 도시의 역사문화적 역량을 현재 및 미래까지 연결해줄 필요성이 있다. 오랫동안 역사를 담고 있는 도시는 새로운 도시가 가질 수 없는 역사적 맥락 유지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공공 공간(public space)을 이상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면 도시의 역사적 맥락과 부합되면서 특별한 도시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다.²⁴ 이는 시민들이 도시일상에서 도시가 가진 고유한 역사문화를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상징인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현재 도시에 적용시켜 단절될 수 있었던 역사문화적 맥락을 유지하는 장소를 조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역사를 느끼게 하여 도시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둘째는 도시 어메니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메니티의 사전적인 개념은 첫째로 유쾌함과 매력을 뜻하고, 둘째로 장소나 기후 등이 매력적이거나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한다. 어메니티를 정리하면 물질적인 면과 함께 정신적인 면을 포함하는 단어로 공간의 환경 자체를 이야기한다.²⁵

도시의 어메니티에 대한 욕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도시 내 필요한 시설이 모두 있는 것만으로도 쾌적하고 행복한 삶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산업혁명 후 물질적인 풍요를 강조한 결과로 도시 주변 환경이 파괴되었고 이에 대한 반발로 파괴된 환경을 회복하는것을 도시 생활에서 중요한

22 김기호, 역사문화공간, “어떻게 해석하고 보존할 것인가?”, 서울문화포럼, 서울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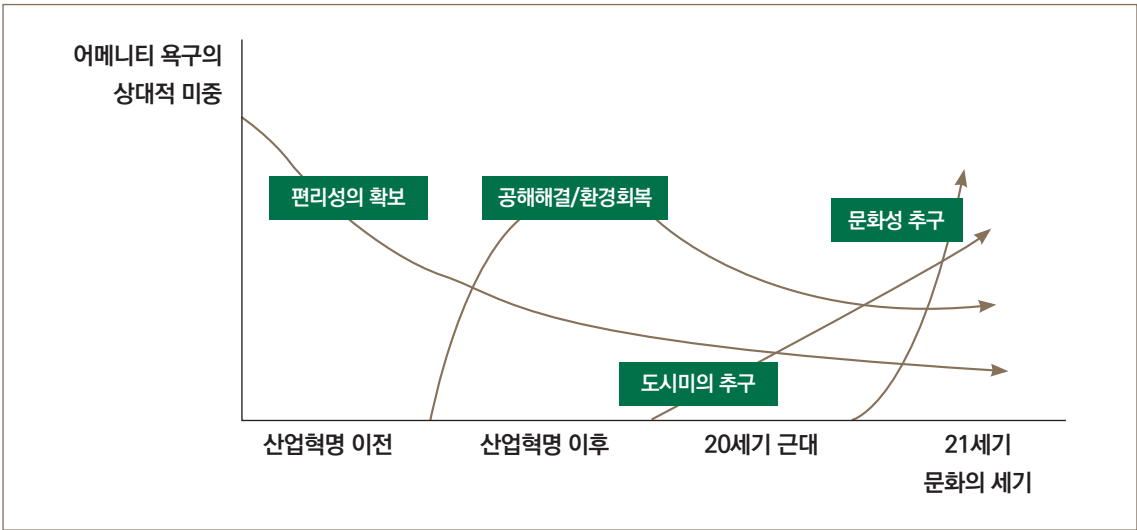
23 박은실, 2018, 앞의 책.

24 김철수, 2007, 『도시공간의 이해』.

25 유승호, 2020, 앞의 책.

가치로 보았다. 20세기 근대에는 자연회복과 조화되는 도시의 외적인 미를 우선적으로 추구하였고, 현재에는 도시와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문화를 극대화하여 도시의 고유 매력을 형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어메니티의 욕구변화



출처: 어메니티가 도시경쟁력이다

역사문화자원은 그 자체가 매력적인 도시 어메니티가 될 수 있다. 어메니티는 어떤 지역의 장소 및 환경이 주는 쾌적함으로 시민들이 해당 도시에서 정주욕구를 느끼게 하는 조건이다. 어메니티는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문화환경은 공간과 시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지혜나 생활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역사문화자원과 관련성이 깊다. 이는 역사문화자원을 도시공간에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문화환경의 어메니티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민에게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것은 도시의 필수적인 역할이다. 어메니티 향상이 도시에서 주는 효과는 표13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하며 결과적으로 도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어메니티 공간 예시
출처: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

표13 어메니티 향상이 도시에 주는 효과

도시민		지방정부
공공 공간의 편리함 보행환경의 안전함	편리성	편리한 공간 제공 공공 공간 높은 이용률
자연과의 친근성 생활공간의 깨끗함과 조용함	환경성	자연환경이 조화로운 도시 구성 도시공간의 다양성 부여
아름다운 거리경관의 향유 도시 내에서 자연 및 문화경관 조망	심미성	외관의 아름다움 도시 이미지 향상
지역에 대한 자부심 문화행사 및 시설의 이용	문화성	문화행사 효과 극대화 문화복지 향상
↓		↓
삶의 질 향상		경쟁력 강화

출처: 각 문헌 정리

셋째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다. 역사문화자원은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특징으로 공유재의 특성²⁶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을 토대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면 현대 도시에 부족한 커뮤니티를 충족시킬 수 있다. 현대 도시는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커뮤니티 상실과 이로 인한 도시 병리현상에 대해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²⁷ 역사문화자원은 공유된 문화로 만들어지거나 공유될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집단 공통의 소유를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 공간을 구성하면 향유하는 시민들은 자신의 공간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런 우리의 것이라는 인식은 자연스럽게 같은 목적을 지닌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도와준다.

역사문화자원 활용으로 나타난 성공적인 커뮤니티 사례는 국내외 많이 나타난다. 특히 안산 신길유적공원의 석기마녀²⁸ 사례를 보면 구성된 커뮤니티가 도시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지 않은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 장소로 커뮤니티를 형성한 사례도 많다. 하지만 역사문화자원은 그 자체가 지역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다른 장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고유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 이런 매력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방문 욕구를 자극할 수 있어 다른 방법보다 효과적이다.

26 문화재청, 2019, 「문화재 관리의 새로운 의제」.

27 최봉문 외 14인, 2018, 앞의 책.

28 자세한 내용은 3장 국내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도시 내 커뮤니티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다. 커뮤니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 생활에 노출이 많이 되는 공공 장소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에서 하듯이 역사문화자원을 외곽으로 이전해 일상생활에 동떨어지게 하는 것보다 도시 중심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많은 사람들이 향유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은 더 많은 시민에게 역사문화자원과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자신의 문화로 여길 수 있게 한다. 자신의 문화라는 생각은 도시에 대한 애착심과 집단에 대한 유대감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 지역에 대한 자긍심까지 높일 수 있다.

3.3 역사문화자원과 지속가능한 도시

1) 지속가능한 도시

기존의 파괴적인 개발과 반대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1972년 6월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 후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의제21(agenda 21)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의제21은 보전과 개발의 균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실제적인 진행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지속개발위원회도 설치하였다. 2015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각 나라마다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가치는 자원의 이용, 투자의 방향, 기술의 발전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현재와 미래의 필요와 욕구를 증진시키는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런 지속가능성은 기존의 파괴적인 방법에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이 조화된 도시

지속가능성은 인류의 행복을 높이는 목적으로 정주공간인 도시에도 적용된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현재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 특히 2015년에 수립한 지속가능 발전목표 중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을 설정할 만큼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의제21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서울에서 지속가능성이 소개되었고 현재 서울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 도시수준을 평가하는데 적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2004년부터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수립하여 도시 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분야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도시

2015년 유엔총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지속가능한 도시 항목 하위 세부지표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가 명시되어 있어 역사문화자원과 도시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신도시 기준에서도 역사적 지속성을 지키기 위한 세부사항 중 ‘도시의 역사문화적 지속성 확보’의 항목이 있다. 이 항목에서는 역사문화적 유산보전, 문화활동 활성화, 문화경관 보존 등을 대분류로 제시하고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표14). 이는 도시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4 역사문화적 지속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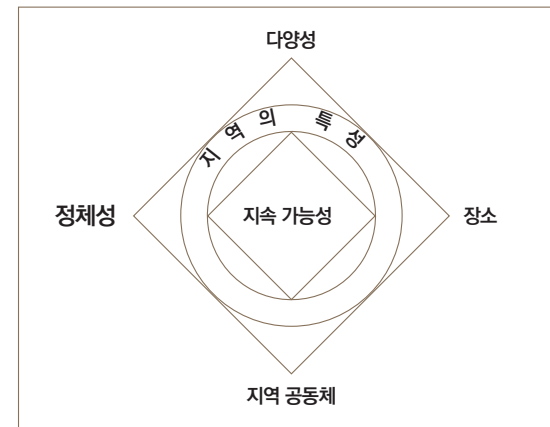
역사·문화적 유산 보전	신도시 개발 테마 설정
	박물관 및 전시관 건립
	신도시 개발백서 발간
문화활동 활성화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계획 수립
	문화네트워크의 구축
문화경관 보존	문화재관리법 적용 대상 존재 파악+사업지구에서 제척 or 기존 이미지 보존
	경관·어메니티 요소를 위해 전제로 한 공원으로 활용

출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도시와 역사문화자원은 1. 도시공간의 고유성과 매력을 보여주는 대상 2. 도시 내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낭비 최소화 3. 과거의 역사문화자원을 현재와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창출 기반 등 상호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 및 정비할 때 도시와 역사문화자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활용하여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의미를 단절없이 연결해야 한다.

도시는 과거와의 단절보다는 연속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장소성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²⁹ 이는 과거의 흔적 및 기억이 연결되어 현재에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시는 지역의 고유성을 보존하여 현재와 상호작용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중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전술했다시피 역사문화자원은 장소, 정체성, 지역의 특성, 공동체 등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가치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역사문화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그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다면 도시공간이 지속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다.

지역 고유성의 보존: 관련의제



출처: 도시설계-장소 만들기의 여섯 차원

새로운 도시공간은 단순한 거주지 개발의 의미를 뛰어넘는 인간 중심적 장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거주민의 기억, 흔적들을 보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거의 문화를 존중하고 현재에도 소멸되지 않고 공존이 가능하다면 도시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미래세대에게 질 높은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활용이란 현상 보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문화자원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들이다. 우리는 역사문화자원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원과 인간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현재처럼 보호막으로 역사문화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져 시민들과 소통하고 새롭게 해석되어 다양한 가치를 재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역사문화자원의 고유한 가치는 훼손되지 않도록 시간과 비용이 투자될 수 있지만,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창의적인 방법을 실현할 수 있다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9 Matthew Carmona, 2015, 『도시설계-장소만들기 여섯 차원-』.

참고문헌

논문

- 안인호, 2015, 「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 주거환경 특성 비교 분석」, 『한국주거환경학회지』.
김기호, “역사문화공간, 어떻게 해석하고 보존할 것인가?”, 서울문화포럼, 서울다움.

보고서

- 삼성경제연구소, 2003, 「어메니티가 도시경쟁력이다」.
국토해양부, 2010,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20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집」.
국토연구원, 2015, 「한국 국가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
문화재청, 2019, 「문화재 관리의 새로운 의제」.
문화재청, 2020, 「역사문화자원 조사매뉴얼(안) -비지정 건조물·역사유적-」.

단행본

- 김용정 외 1996, 『개발과 유산의 보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울.
김철수, 2006, 『도시공간의 이해』, 기문당, 서울.
원도연, 2006, 『도시문화와 도시문화산업전략』, 한국학술정보(주), 파주.
문화재청, 2007, 『문화재활용가이드북』.
유승호, 2008, 『문화도시-지역발전의 창조적 패러다임-』, 가세, 서울.
김천권, 2017, 『현대 도시개발』, 대영문화사, 서울.
모종린, 2017, 『골목길 자본론』, 다산북스, 파주.
박은실, 2018, 『문화예술과 도시-시대적 변화와 실천적 담론-』, 정한책방, 서울.
최봉문 외 14명, 2018, 『현대도시학』, 대광사, 파주.

번역서

- 조동범, 윤현석, 노경수, 이봉수 옮김, 2004, 「도시 어메니티와 생태」, 한울, 파주 (都市のアメニティとエコロジー).
강홍빈, 김광중, 김기호, 김도년, 양승우, 이석정, 정재용 공역, 2015, 「도시설계-장소 만들기의 여섯 차원-」, 도서출판 대가, 서울 (Matthew Carmona, Tim Heath, Taner Oc, Steve Tiesdell ,2003, Public Places-Urban Spaces-The Dimensions of Urban Design-).

II 역사문화자원의 유형별 활용 방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김 영 재



1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개념 변화

문화유산의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문제는 지금까지도 「베니스 헌장」을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있다. 먼저 보존(수리)과 복원에 대해서 헌장 11조에서는 기념물의 복원에 있어서 양식의 통일을 단호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기념물의 역사적 층위의 존중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반노니의 「복원헌장(Carta del Resauro)」의 영향을 받았다.³⁰ 「베니스 헌장」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역사적 구조물들의 수리·복원 사례를 조사해보면, 일반적이진 않지만 구조물의 최초의 재료와 양식을 유지시키려고 했다. 고대시기 당시에 복원의 목적은 건물의 기능과 예술적 외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많았고, 각 시대의 양식으로 건축물을 다시 수복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많은 고대 건물들은 다양한 양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사주의의 영향이 강화되었던 19세기 초에는 복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양식상의 통일이었다. 그러나 근대적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특수성과 상대성이 복원이론에 영향을 주면서 양식의 통일에 대한 비판이 증폭되었다.³¹

점차 모든 시대와 양식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결과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관련한 현장은 양식의 통일보다는 다양한 양식의 공존을 선호했다. 이것은 19세기 말부터 나타난 가장

현대적인 개념으로 시간성과 관련된 가치(age value)와도 연관되어 있다.³² 베니스 헌장의 제정에서 구미지역은 문화재 보존운동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개념의 수정이 있었는데 보존론자는 더 이상 박물관의 전시물처럼 역사기념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포괄하는 역사지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운영지침(1980)을 보면 2차 대전에 폐허가 된 문화유산에 한해서 복원의 근거가 특히 원형에 있어서 분명하게 존재한다면 진정성에 따라서 복원이 되었음을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1982년 유럽 이코모스 총회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서 기념물의 파괴 이전의 상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고증자료를 전제로 했을 때 완전한 복원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

1996년 멕시코 회의에서는 건축유산은 동적인 개념에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틀 속에서 보존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환경, 경제활동, 문화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인 틀까지 인정하고 지역사회와 동등한 의미에서 보존 방법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 지역적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2001년 헬싱키 유네스코 모임에서는 보존과 개발의 연계성 또한 사회적 틀과 도시 속에 성립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통해서 건축문화유산으로서 도시적 맥락 속에서 협동적 공존가능성을 제안함으로써 보존과 개발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했다.³³

이러한 보존에 대한 전반적인 사고의 변화는 기디온³⁴이나 알랜 코쿠혼과 같은 현대건축이론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역사주의는 포스트모던 건축의 하나의 토론 속에서 관련되어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했는데, 먼저 과거 전통에 대한 관심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역사적 형태를 사용하는 예술적 실무이다.³⁵ 포스트모던 역사주의 건축가들은 분명하게 그들은 이러한 형태들이 그들이 지니고 있는 관계와 의미때문에 현대적인 것보다도 우월하다는 점을 느끼는 것을 증명하면서 콜라주, 파스티세, 또는 진실한 재구축에 대한 하나의 실제 속에서 고전주의적 또는 다른 과거 양식의 요소를 이용했다.³⁶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메타볼리즘은 생명과 생명현상에 대한 강조를 통한 역사적 전통, 지역적 취향, 장소의 성격 등 근대건축에서 무시했던 요소들을 부활시켰다. 이것은 앞서 말한 지속가능한 수리복원을 위한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노력과도 일치한다.

³² 앞의 글, 25쪽.

³³ 홍순연, 옥선호, 김기수, 2010. 「역사적 건축문화유산의 인식변화와 보존가치의 형성」, 석당논총 46, 398-400쪽.

³⁴ S. Giedion, 1999, 「Space, Time, and Architecture, The Historian's Relation to his Age」, 5쪽.

³⁵ Alan Colquhoun, 1983. 「Three Kinds Of Historicism+ New Consciousness In Architecture. Architectural Design」, 53(9-10), 86-90쪽.

³⁶ 앞의 글.

³⁰ Claudine Houbart, 2014, Deconsecrating a Doctrinal Monument-Raymond M. Lemair {1921-1997} and the Revision of the Venice Charter, Change Over Time vol.4 no 2,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4, 221쪽.

³¹ 유카 요킬레토, 2009, 「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역사」, 기문당, 26-29, 49, 162, 322쪽.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베니스 헌장」 이전에는, 항구적인 유지와 보존을 위해 기능회복이나 새로운 기능의 도입으로 인한 활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유산의 황폐화를 촉진시키고 기념물을 박제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베니스 헌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접근하고자한 첫 번째 헌장이다. 「베니스 헌장」 제14조를 보면, 역사유적과 기념물군의 보존과 복원을 다루는 내용³⁷⁾으로 1970년대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기념물의 보존 복원은 통합적인 경관관리를 통한 맥락적 설계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돋보이게 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역사적 기념물과 도시유산에 대한 재건문제는 개별 기념물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에 따라 복원되었다. 기념물 유적지가 존재하는 장소는 고고학적 유적지에 국한하지 않고, 역사마을과 도시 등까지 확장해서 포함하고 있다.³⁸⁾ 역사유적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도시와 지역계획의 문제로 보다 폭넓게 인식되어야 하며, 유적 보호절차의 경우가 복합적인 기념물일 경우,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서 지역공동체의 유적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베니스 헌장」의 내용에는 해당 지역사회의 고려와 정신적인 부분의 중요성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인류 가치의 통합”이라는 「베니스 헌장」 서문에서 보듯이 기념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해석은 이후 헌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하다. 아쉬운 점은 베니스 헌장에는 역사문화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안하지 않았다.³⁹⁾

역사문화자원 통합화에 대한 문제인식은 1960년대 이후, 유산의 개념이 풍부해지며 논쟁은 더욱 복잡해졌다. 더 이상 ‘역사적 기념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축문화유산은 경관으로 지역사회의 관심거리가 되었으며, 기념물과 그 주변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고상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용도를 변경해 건물을 재사용하고자 했다. 1970년대 이래, ICOMOS는 기념물을 물리적으로 변형해, 도시환경에 통합하고 재사용하는 것에 전념해왔다.

37 14조는 보존과 복원작업에 대해서 상기 조항을 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2번째 조항인 “모든 과학적 기술적 수단의 확보”와 관련된다.

38 Petzet, M. 2009, 「International principles of preservation. Monuments and Sites 20」, 25쪽.

39 가졸라와 르메르 또한 제14조의 수정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그는 “보존과 복원은 전통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의 일상적 삶을 보존하고 도시와 농촌의 거주지 통합과 연속성을 목표”로 하고자 했다. Claudine Houbart, 전게서, 233-234쪽.

2 문화재시설의 법적 제한여건과 도시재생 연계의 의미

2.1 개발과 보존과 관련한 법제도와 개발문제

1) 영국의 계획정책 가이드선스(PPG) 16: 유적과 계획

계획정책 가이드선스16(Planning Policy Guidance 16: Archaeology and planning)은 유적의 중요성(의미)과 계획과정에서 유적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⁴⁰⁾ 12항으로 구성된 유적의 중요성에 관해서 정책적 규정이라기보다는 고고학적 가치를 평가하고 유적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다루고 있다. 영국에서의 이전 조항과는 다르게 유적의 가치를 그 자체로서의 의미와 더불어서 교육, 관광, 레저산업의 측면으로 확장하고 있다.

「1979년 고대기념물 및 고고학적 지역법(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 1979)」⁴¹⁾에 따라서 현재까지 총 600,000개 이상의 사적과 기념물이 지정되었다. 이러한 기념물 보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잉글리쉬 헤리티지(English Heritage)⁴²⁾에서는 지정된 유물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과 더불어서 새롭게 추가할 유적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계획정책 가이드선스16은 폭 넓은 관점에서 고고학적 조사가 개발에 앞서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출한 개발 관련 계획안이 유적지와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때는 충분한 정보와 자료 제공을 통하여 유적지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사례가 많지 않지만, 물리적 보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개발에 앞서서 유적지 탐사작업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획정책 가이드선스16이 유적지 보호를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만, 개발과 보존이 공존해야 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유적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정책의 마지막에서 개발을 유적 보호와 적대관계 아니라 상호보완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확립한 광의적 프레임에서 지방정부는 해당 개발 주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하여 보존과 개발의 합리적 공존을 모색하고는 것이 가이드선스16의 취지인 것이다.

40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Cosj/SignOn?redirectTo=%2f6-106-4663%3fttransitionType%3dDefault%26contextData%3d\(sc.Default\)%26firstPage%3dtrue](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Cosj/SignOn?redirectTo=%2f6-106-4663%3fttransitionType%3dDefault%26contextData%3d(sc.Default)%26firstPage%3dtrue);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ReadPage.do?searchPageRowCnt=10&A=A&AST_SEQ=2047&searchType=all&searchNtnl=&searchLgsCode=&CTS_SEQ=157-25&\(국문 번역본 수록\)](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ReadPage.do?searchPageRowCnt=10&A=A&AST_SEQ=2047&searchType=all&searchNtnl=&searchLgsCode=&CTS_SEQ=157-25&(국문 번역본 수록))

4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79/46/contents>

42 <https://www.english-heritage.org.uk/>

계획정책 가이드스16의 2장에서는 유적지 보호 및 개발과 연관된 구체적인 조언을 여섯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개발계획(Development Plans), ②대지(사적) 및 기념물기록(Sites and Monuments Records: SMRS), ③계획신청(Planning Application), ④계획결정(Planning Decisions), ⑤계획조건(Planning Conditions), ⑥개발 중 고고학적 유적의 발견(Discovery of Archaeological Remains during Development) 등이다. 6항목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PPG 16 15-31).

첫째, 종합개발계획에 유적지 보호 및 강화 정책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때, 유적지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해야 하며, 개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신청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유적지를 모두 동일한 관점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서 차별화해야 한다. 반드시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강력한 원칙을 제시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융통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용에 관해서, 모든 지방정부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대지(사적) 및 기념물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런던의 경우 잉글리쉬 헤리티지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잉글리쉬 헤리티지는 지방정부의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문적 조언을 청취해야 함을 담고 있다.

셋째, 계획신청에 다음의 네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데, 개발주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발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논의를 진행한다. 개발의 전반적 사항이 결정된 후에는 계획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두 주체간 논의를 통하여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 앞서 언급한 대지(사적) 및 상징물 기록에 따른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개발지역과 연관된 유적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발업자는 초기 단계부터 유적지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유적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이후 계획신청서의 허가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고고학자나 해당 전문가를 통하여 대지(사적) 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대안까지 제시한다. 개발 주체는 특별한 논의 없이 개발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유적 보호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잉글리쉬 헤리티지(English Heritage)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비용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한 보존 협의로서 장관은 유적 보호에 대한 방식을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만약 원형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조언 하에 고고학적 증거가 기록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결정과 연관해서 다양한 선택을 한다. 제출된 계획신청서가 얼마나 충실하게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완벽한 보호가 어려운 경우 제출한 대안이 정책의 틀 내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개발계획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2) 문화재 주변 완충 지역의 개발 문제

미국유산사전(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에 따르면 완충 지역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두 경쟁적인 힘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공간]으로서,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존재한다. 주로 버퍼 존(Buffer Zone)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⁴³

미국국립공원관리공단(National Park Service, 이하 NPS)이 플로리다주의 세인트 어거스틴(St. Augustine) 지역을 세계유산 후보 등재를 위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의 일부를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운영지침에 나타난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의 이행지침에 따르면 완충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등재된 유산의 주변지역으로서, 완충 지역은 법적으로나(혹은) 관례적으로 제한된 장소를 말하며, 그것의 이용과 개발에 있어서 등재된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된 보호지역을 부여한다.”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완충지역(Buffer Zone)의 정의를 좀 더 살펴보면, 완충지역이란 세계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유산의 보호(Protection), 관리(Management), 진실성(Integrity), 진정성(Authentic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하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시대가 흐르면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개념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문화재 수리현장에서 버퍼존에 대한 개념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완충지역의 보존을 위해서 운영지침에 법적인 용어를 적극 활용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보존학자 지오라 솔라(Giora Solar)는 2006-2007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이하 ICOMOS)와 공동으로 진행한 보고서에서 완충지역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여러 중요한 요소들을 지적했다.⁴⁴ 즉, 완충공간을 보존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관리 및 활용, 즉 완충지역이 소극적인 권유 혹은 권고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와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였는데, 보존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관리활용에 비중을 제안했다.

⁴³ “Something that interposes between two rival powers, lessening the danger of conflict. Often used attributively: a buffer zone.” Houghton Mifflin Harcourt,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5th edition (Boston,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1978).

⁴⁴ Olivier Martin et al., World Heritage and Buffer Zones (Paris, Franc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2008).

2.2 현대적 건축물과 역사문화자원 연계의 의미

1) 역사문화자원 보존원칙의 진화

미국의 역사건축물의 재생에 대한 내무부 기준(the Secretary of the Interior's Standards for Rehabilitating Historic Buildings)을 보면, 10가지의 디자인 기준(1995년 개정판)을 제안하고 있다.⁴⁵ 네 번째 항목인 시간성에 대한 인정은 과거 원형보존의 원칙에서 한 층 더 발전된 개념이다. 물론 원형에 대한 최대한 보존이 이 건물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면 보존의 부분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화를 시키더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에서 이야기 한 바대로 건물의 역사적 특성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최소개입을 통한 변화가 용납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수리의 방식도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완전성보다는 진정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변 환경 즉 문화경관이나 역사문화경관의 보존에 있어서는 기존의 모습들이 낡설지 않게 변화를 유도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마을이나 도시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보다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이미지로 마을과 도시가 변해간다는 점에서 건물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진정성 보존을 위해서 볼륨감, 규모, 크기, 건축특징 등에서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자연환경에서부터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 그리고 직접적인 보존대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진화되었다. 직접적인 보존 대상 경관 개념은 역사정원에서 문화경관으로, 더 나아가 역사도시경관으로 점차 개념적인 이해의 확산이 이루어졌다.⁴⁶ 그리고 역사구역(historic quarters, 공적 및 사적 작업에 의해 위험에 처한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안, 1968)에서 출발하여 역사적 건축적 지역(historic and architectural areas), 나이로비 권고문, 1976), 역사도시지역(historic urban areas, 워싱턴 헌장, 1987)으로 이어져 도시보존 대상의 진화 연장선상에서 역사도시경관이 해석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도시보존대상이 역사지구(historic area)로 확장된 1970년대부터 변화해 온 흐름 속에서 현대 도시의 맥락에 맞는 통합적 보존대상으로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을 고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관뿐만 아니라 역사도시에 대한 논의 또한 1970년대에 시작해서 2000년 후에 경관이 붙여져서 보다 넓고 명확한 도구의 형태로 변모되었다. 즉, “역사도시경관”은 새로운 대상의 유산범주로서 보존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역사도시의 보존관리를 위한 계획과 제도적 측면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⁴⁵ Norman Tyler, Ted J. Ligibel, Ilene R. Tyler, 122-125쪽.

⁴⁶ 김영재, 2016, 「역사도시의 가치평가를 통한 재생방안 연구」, 『夫餘學(6호)』, 271-318쪽.

역사경관에 대한 보존관리계획을 총합적으로 묶는 통합적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는 “역사도시경관”의 개념은 문화경관의 것과는 달리 보존에 있어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역사도시경관은 도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될 필요가 있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보존전략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적 맥락에서 개발을 둘러싸고 얽혀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 구축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조정 방안 마련이 촉구된다(유네스코, 2011, 제25조 제28조 제31조).⁴⁷

2)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복원과 활용의 개념 변화

「베니스 헌장」에서는 기념물의 역할과 영구보존의 개념을 정의한 것인데, 이는 유럽의 전통을 기반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었다.⁴⁸ 그 대상을 ‘역사적 기념물(historic monument)’이라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념비에서 기원한 것으로 상기시킨다는 뜻의 ‘monere’에서 유래된 ‘memorial’과 ‘memory’와 관련이 있다. 헌장에서는 이러한 기념물의 개념을 단일 건축물과 이와 연관된 도시 혹은 전원 장소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장소는 명백하게 추상적인 위치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한다. 물질, 형상, 재질, 색을 가진 구체적인 사물들로 구성된 총체성을 의미하고 있다. 즉, 기념비와 그 장소와 함께 관련된 도시적 맥락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여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부가적으로 「베니스 헌장」은 주로 물리적 구조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지만,⁴⁹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위해서는 활용을 해야 하는데, 무형적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기념물’의 개념에 그쳤던 역사정원이 주로 유형요소의 보존에 치중했던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보존의 대상요소는 점차 경관(landscape)의 인문 사회학적 내용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는 거주지, 즉 “정주환경”이 “문화경관”과 “역사도시경관”의 경계에 포함되게 된 사실과 관련한다. 그로 인해 ‘사람’과 ‘삶’이 유산 지역 보존의 주요한 쟁점요소가 되었다. 유산의 대상 환경의 확장과 더불어 개념적 확장을 야기한 정주지의 존재로 인해, 관습과 전통, 공간의 의미, 경제적 과정과 같은 인간 행위와 관련한 무형요소와 이러한 요소가 투영된 광범위한 장소 및 지역이 경관 보존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⁵⁰

⁴⁷ 이 밖에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정리한 내용에서는 협력적 접근의 첫 단계로 도시지역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기록을 언급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권고문에서도 역량강화, 조사, 정보제공 및 소통 전략에 대한 세부 원칙을 정리하고 있다.

⁴⁸ Petzet, M. 2009. 8쪽.

⁴⁹ Wells, Jeremy C., 2007. 앞의 책. 19. 10쪽.

⁵⁰ Julian Smith, 2010. “Marrying the old with the new in historic urban landscapes”, 『World Heritage Papers 27: Managing Historic Cities』, World Heritage Center.

문화경관이 담는 일상의 환경은 '여러 시대가 중첩된 결과'로 정의되는 역사도시경관과 더불어 '현재성'이 강조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는 보존대상이 살아있는 경관(living landscape)을 넘어 일상의 경관(everyday landscape)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한다. 결국 역사정원의 '만들어진 경관'에서부터 현재성의 '일상 경관'으로 유산 개념이 진화했고, 그 과정에서 보존 대상이 시·공간적으로 함께 확장되었다. 이러한 문화경관은 시간적 흐름과 정주환경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역사도시경관을 포함하여 공시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정치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형적 요소를 경관변화 요소에 통합시킴으로서 문화경관에서 제시한 명확하게 규정된 경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경관, 연상과 관련된 경관 등의 해석이 분명해진다.⁵¹

3) 집단기억의 복원을 통한 근린공간 및 장소의 재생

건물과 도시 공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있으며, 특히 재사용 및 재적응으로 장소의 '정신'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 공생 또는 대화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후자는 건물설정(구조, 건축 계획, 공간계획, 사용계획, 건축특성 등) 또는 위치설정(도로, 광장, 주변 등과의 관계)을 모두 포함한다.

집단적 기억을 공유하면서 도시내부 대지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세 가지로 귀결할 수 있다. 먼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문화적 코드를 제공한 기념비를 건설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건물의 '재생성' 능력과 상호 적응에 근거한 도시의 맥락을 지적한다. 세 번째는 상징적 장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더 오래된 장소의 상실과 여전히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새로워진 장소의 재개입(re-intervention)을 포함한다.

4) 지역 커뮤니티 일상성의 보존과 재생

언제나 모든 건물과 거리에는 사건들이 발생하며, 반복적인 행위와 행태가 존재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즉, 거리에는 서로 다른 행위들이 발생함에도 어떤 질서가 있다. 이것은 서로의 행위들이 유기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행위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도, 이러한 질서를 통합하는 것은 건축의 몫이다. 건축가는 거리 또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행위 패턴(일상적이든 비일상적이든)과 건물양식(형태, 재료, 색 등)의 관찰을 통해서 몇 가지 질서를 예측하고, 이들을 설계에 반영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디어(인터넷)와 테크놀로지 혁명과 같은 인간의 일상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변화의 주체는 인간이 될 것이다. 즉, 인터넷이나 휴대폰, 자동차와 같은 기술혁명 은 도시공간 안에서의 인간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51 김영재, 전계서, 271-318쪽.

거리나 건물 안에서 직접 만날 필요가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상성의 보존을 위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함없는 진리는 모든 거리는 공원, 정원, 식당, 학교, 도서관, 극장 등과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시설들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만남을 위한 사회적 공간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역사적 장소들과의 빈번한 접촉 및 관광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을 재생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애착심 및 소유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 자체가 거리나 건축물에 풍부하게 표출되었을 때 그 지역은 재생된 것이며, 그 행위들이 계속 유지되었을 때 그 지역이 보존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거리와 건축물은 일상의 한 부분이며, 이들을 재생하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의 삶과 이 지역의 정체성을 재생하고 보존하는 것과 같다. 즉, 우리는 건축물이나 거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든 현재든 우리의 일상을 보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여주기 위한 복원이 아니라 건물과 거리 사이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시대의 일상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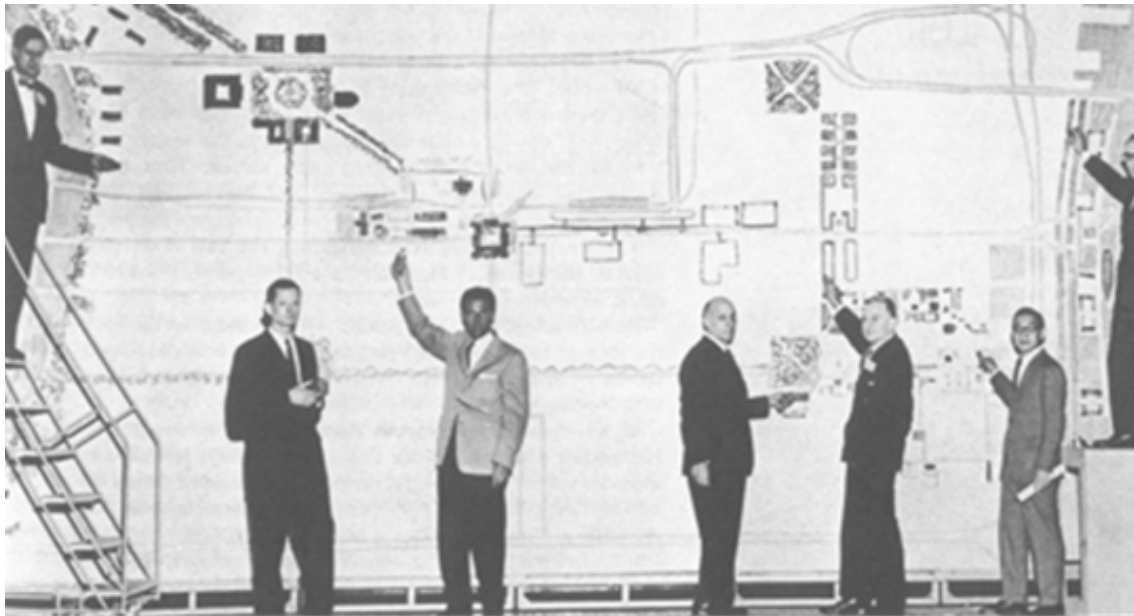
52 김영재, 2007, 「일상의 재생과 보존」, 『건축학회지』, 51(5), 51-60쪽.

3 역사문화자원 활용사례

3.1 역사문화자원의 점에서 면으로 활용

1) 필라델피아 소사이어티 힐의 재생

보존과 개발의 맥락적 공존과 일상성의 유지



역사도시의 개발과 보존의 창의적 공존

필라델피아계획의 거대한지도위에 서있는 Wilhelm Von Moltke, Edmund Bacon, Vincent Kling, Oscar Stonorov, Roy Larson, I.M.Pei and Robert Geddes의 모습(왼쪽부터, 1962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AIA총회에서 아이엠 페이가 소사이어티 힐계획을 지적하고 있다)

소사이어티 힐의 재생은 건축가의 노력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다. 먼저, 아이 엠 페이가 설계한 소사이어티 힐 타워(1963)와 두개의 저층주거(타운하우스)의 주변은 18-19세기 전통 및 근대적 양식의 건물들과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빙햄코트와 세 마리 곰을 위한 공원, 로즈정원과 매그놀리아정원 등이 불규칙하게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간에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질서와 위계가 필요했었다. 페이는 형태와 배경사이 공간의 균형감과 스케일 불균형, 공간을 에워싸고 있는 그들 간의 긴장감을 통해서 전체적 통일성을 시도했다.⁵³ 이들 간에 통일성이 가능했던 것은 기존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석을 통해 얻어진 건물배치에 있다. 특히 소사이어티 힐 타워의 배치는 페이가 설계한 다른 두개의 타운하우스들의 배치와 시각적인 연결을 고려했다.

53 Edmund N. Bacon, Design of Cities, Thames and Husdon, 1978, p264-269.



소사이어티힐 계획(I.M.Pei)



최초의 포장거리유적(1762)



빙햄코트에서 소사이어티힐타워를 바라봄



로즈정원에서 소사이어티힐타워를 바라봄

또한, 워싱턴광장, 로즈정원, 빙햄코트, 2번가와 4번가 로커스트 거리(Locust Street), 2번가 거리 등의 각각의 축들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들 거리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움직임과 완결된 시각적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북쪽에 위치한 타워는 파인거리(Pine Street)와 롬바드거리(Lombard Street)사이 2번가 거리 사이에 있는 구 소방서(Head House) 및 야외시장(New Market)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간의 공간적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능들을 가진 개별 대상들이 하나의 질서로 묶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질서는 ‘질서정연(orderliness)’ 또는 ‘규칙(disciplin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organism)’ 또는 ‘사물의 본질(nature)’로서 해석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각각의 파편들이 서로 연관되지 않아도 유기적인 질서 속에서 하나의 무대배경이 될 수 있다. 이는 (다른 기능을 가진) 모든 센터를 하나의 광장 안으로 통합하는 것만이 도시의 재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그것이 도심에 위치하게 된다면 그 공간은 여러 사용방법들을 자극할 것이고 그 존재로 인해 다른 화합이나 상업적인 장소들을 (하나의 질서 속에) 강화시켜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루이스 칸의 생각과도 부합된다.⁵⁴



올드시티와 소사이어티 힐의 로우하우스(18-19세기)



펜랜딩스퀘어 주거단지(로우하우스 철거 후 기존 로우하우스의 도시 맥락적 질서에 부합하여 주거단지 재개발)

소사이어티 타워와는 달리 소사이어티 힐의 대부분의 주거형태는 18-19세기에 지어진 저층 로우하우스(Row House)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 이곳이 재생되면서, 옛 거리와 건물들을 다양하게 해석된 현대식 저층 주거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다. 특히, 건축가 루이스 사워(Louis Sauer)가 설계한 펜랜딩 스퀘어(Penn's Landing square) 저층주거단지는 거리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패턴을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골목길, 마당 등과 같은 옛 거리의 파편들을 다이내믹하게 단지 내에 재구성했다. 이 주거단지는 기하학적이고 입체적인 질서를 통해서 작은 도시를 재현한 것이었다. 또한, 거주자의 공간요구에 대응해 내부와 외부공간의 확장 및 축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대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⁵⁵

⁵⁴ Marilyn Silverstone, Louis Khan and the Living City, In Architecture Forum, March 1958, p114-119.

⁵⁵ 루이스 사워는 대지로부터 건물을 분리하는 과거의 기능주의자들의 전통을 거부하면서 대지는 건물을 세우는 표면이 아니라 건물과 외부공간을 하나의 질서로 포용하기 위한 전체적 틀이라고 주장했다. Louis Sauer, Absorbing Venice. Low-rise, High-density Housing, G. De Carlo, C. Occhialini a cura di Ilaud, eds., In Territory & Identity, Comune di Venezia-Maggioli editore, Santarcangelo Romagna, 1998, p74-79.

2) 벤자민 프랭클린 사저의 재생, 프랭클린 코트

역사문화자원의 무형적 요소를 활용한 스토리의 복원과 공공성의 이입



프랭클린 코트 전시관 내부



프랭클린 코트(올드시티)

오늘날 프랭클린 코트는 인디펜던스 파크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명소 중 하나이다. 점심 시간에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주변 사무실 건물의 주민과 근로자가 공원을 사용하고 있다. 프랭클린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공간은 변화한 상업 지역 한가운데에서 조용한 오아시스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1977년 국가명예어워드(National Honor Award)를 포함하여 미국건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의 여러 상을 수상했으며 1984년에는 디자인 부문에서 프레지덴셜 디자인 어워드(Presidential Design Award)와 연방디자인공헌어워드(Federal Design Achievement Award)를 수상했다. 이 프로젝트는 수년 동안 전 세계에서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기본 텍스트로 간주되었다.

이 공공 공간의 디자인은 10년 전에 에드문드 베이컨(Edmund Bacon)이 개발한 소사이어티 힐(Society Hill)의 그린웨이(Greenway) 계획을 기반으로 한다. 필라계획위원회(Philadelphia Planning Commission)와 협력하여 베이컨은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하여 낡은 부두 건물과 창고를 철거하고 필라델피아 소사이어티 힐의 초석을 재건했다. 존 밀너(John Milner)는 프랭클린 기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때 마켓 가로(Market Street)에 직면했던 5개의 식민지시대 주택을 재건했다. 시각적 맥락을 제공하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프랭클린 코트(Franklin Court)의 디자인은 베이컨의 작업을 활용하여 마켓과 체스넛 가로(Market과 Chestnut Street) 사이의 사이트를 가로지르고 박물관 입구를 연결하는 경로를 보행자 녹지 시스템과 원활하게 통합하여 이웃 근린지구를 되살리고 있다. 이러한 부드러운 통합은 모든 방문객을 장려하고 인디펜던스 몰에서 제시한 민주적 이상을

문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모리스 하트벨드(Maurice Harteveld)가 쓴 것처럼 “새로운 공공 공간의 하나는 계몽주의 이후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두 개는 미국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 사회의 상징이라 할 것이다.”



고고학적 층위와 현재적 층위의 일치

벤자민 프랭클린의 집은 사후에 여러 명의 주인을 거친 후에 건물 자체가 소멸되었고, 필라델피아 시당국은 벤자민의 집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건축가는 복원보다는 스토리와 집을 상징하는 프레임만으로 구성된 상징물만 건설하고 건물터는 그대로 비워놓았고 벤자민 프랭클린 박물관은 지하에 넣고 그 내부와 관련 스토리를 복원해 상부는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공성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스토리의 복원은 사람들에게 이 장소의 기억을 되살렸고 건물보다는 건물의 프레임을 통해서 과거를 연상시키는 기념비안에서 기억을 유추하는 재현(미메시스)의 공간을 창출하였다. 올드시티의 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소유했던 마켓거리(Market Street)의 318번지의 북쪽 아치입구가 세인트 피터스 교회까지 이르는 보행자거리의 시작점이다. 먼저, 마켓거리를 따라 구연방의회건물(Carpenters' Hall)을 바라보면서 프랭클린 코트에 진입하게 된다. 코트안의 조형물들은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먼저, 철제프레임(Robert Venturi 설계, 1976)은 최초의 벤자민의 집(1763-1765)과 그가 운영했던 인쇄소 및 정원에 대한 기억이며, 한편으로는 철제프레임을 관통하는 보행로는 벤자민의 집이 철거되고 새롭게 개발된 저층주거들 사이에 있던 거리의 기억을 말하고 있다. 더욱이, 코트바닥의 동판위에 새겨진 이 장소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에 대한 명문과 네 개의 구멍들 속에서 보여진 벽의 파편들 및 벽들이 세워져 있던 위치가 그려진 평면, 그리고 그 장소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이야기들의 나열을 통해서 잠시나마 보행거리가 아닌 벤자민이 살았던 집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게 한다.

실제로 방문자들은 두 개의 조형물이 과거의 집 모습으로 처음부터 인식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다만 보행자 거리 속에 설치된 조형물이고 하나의 문일 뿐이다.

그러나 코트를 둘러싼 서측벽면에는 대형패널과 곳곳에 쓰여진 텍스트들을 읽는 순간 이 철제 프레임이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집이 있던 자리였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 패널들 속에는 시대별로 주거지에서 거리로서의 대지변화와 건물변화(동쪽면의 확장)와 벤자민의 초기 평면스케치, 아내 데보라(Deborah)와의 편지 및 자신의 집에 대한 애착, 벤자민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등을 텍스트와 이미지들을 통해서 방문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⁵⁶ 벤자민이 살았던 세상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로버트 벤츄리 건축의 은유(metaphor)적 구성은 현재 보행로로서의 현실적인 기능의 수용과 과거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이중적 기호를 절묘하게 유지하고 있다. 즉, 과거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기호라는 건축적 도구를 통해서 대지와 거리를 재생하고 변화, 적응, 보존시킴으로 회상과 기억의 장소로서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다.⁵⁷

3) 필라델피아 대통령 관저 유적지 주변의 공공 광장으로서 재생

유적 복원과 스토리텔링을 위한 공공장소

스토리 복원 프로젝트는 미국의 첫 번째 수도였던 필라델피아에 위치했던 대통령 관저와 관련한 유적지 복원과 활용 사업이다. 복원과 활용을 위해서 대통령 관저 관련 자료(그림, 기록문서 등)를 통해서 과거 대통령 관저의 모습과 범위 등을 확인하고 전체영역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원할 영역과 디자인(평면, 입면, 단면 결정)을 결정하였다. 자료의 발굴과정에서 대통령 관저에 흑인노예가 있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어서 초기에 생각했던 대통령 관저의 디자인 개념의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찬반양론이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디자인과 내러티브와 결합하여 활용을 할 것을 결정했고, 이 역사유적지 복원을 통해서 부정적인 역사와 긍정적인 역사의 교차 해석이 가능하도록 했고, 해석은 개별 대중의 몫으로 남겨지도록 유도하는 설계안이 채택이 되었다. 다소 논쟁이 있었지만 과거 벤츄리가 벤자민 프랭클린 저택의 복원에서 사용했던 복원을 하지 않고 오브제만을 통해서 건물의 영역을 보여주고 내부는 완전히 비워놓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 한편 복원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발굴에서부터 시공까지 일반대중이 확인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유적지 복원공사 자체를 활용의 관점에서 이용하였다.

56 앞의 글, 55-56쪽.

57 기존의 이미지와 고정된 관념을 과장되고 기호화된 구조체로 확대해석하면서, 대중에게 과거의 건축양식과 사람들의 일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준다. Juhani Pallasma, Question of Perception, In a+u, July 1994, 39-42쪽.



필라델피아 대통령 관저 복원 ①



필라델피아 대통령 관저 복원 ②

4) 하셀트 대학교 법학부(UHasselt) 캠퍼스 내 공공 광장으로서 역사문화자원 활용

현재성에 입각한 역사문화자원의 변용

하셀트 대학교 법학부(UHasselt) 건물의 리모델링 사례가 있다. 이 건물은 1859년 파놉티콘 모델(paropticon model)이 적용되어 지어져 2005년까지 감옥으로 사용된 건물로서 대학 건물로 용도가 변모되면서 UHasselt는 개방적이고 친밀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기존 건물의 특성은 감옥이었으며 보다 개방적인 측면이 대학의 목표와 부합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보존을 애초부터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기능은 중심 도시 캠퍼스에 대한 대학의 비전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였다.

리모델링을 맡은 건축가(noAarchitecten)는 개념적으로 교도소가 도시의 고립된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감금의 상징이 되는 벽은 UHasselt 학생과 교직원 공동체에서 명성의 상징으로 변모시켰다.



UHasselt 변형된 평면



변화된 외관

최초의 감옥 벽은 전체적으로 보존되었으며 전면 외관은 변경되지 않았다. 두꺼운 벽체 뒤 녹지로 구성된 안뜰을 볼 수 있도록 측면 입구 문을 교체했다. 기존 인테리어의 기본 구조와 유형학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파놉티콘의 중앙 공간은 새로운 계단과 테라스가 추가되어 기념비적인 입구로 사용되었다. 이전 감옥공간(셀)은 유지되어 학생들을 위한 개별 학습 유닛으로서 새로운 기능을 제공했다. 기존 건물 내에 대형 프로그램을 담아내기 위해 각기 다른 날개 사이의 삼각형 안뜰에는 부분적으로 두 개의 강연공간과 카페테리아로 채워졌다. 각 날개의 측면을 따라 달리는 원래의 복도는 이 새로운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장했다. 최초 감옥 건물에서는 극히 작은 창문 때문에 일광이 건물 내부로 거의 들어가지 않게 의도되었지만, 새로운 변형을 통해 일광문제는 건물의 오래된 부분과 새로운 부분이 연결된 지붕을 통해 건물 안으로 비춰지게 했다.

5) 난징 대보은사, 시간 흔적의 보존과 현재성의 통합

보존과 개발의 새로운 해석

15세기 난징에 있는 유리탑(琉璃塔, Porcelain Tower of Nanjing)⁵⁸이 있었는데 난징에 있는 탑으로, 대보은사의 일부였다. 중국에서 가장 높은 탑 중 하나인 이 건물은 1850년대 태평천국 반란 때 파괴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유럽 여행자들의 삽화로 전해지고 다른 건물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유물 형태로 부분적으로 살아남았다. 건물에 대한 과학적 관심은 1980년대에 나타났다. 2001년까지 난징시 정부는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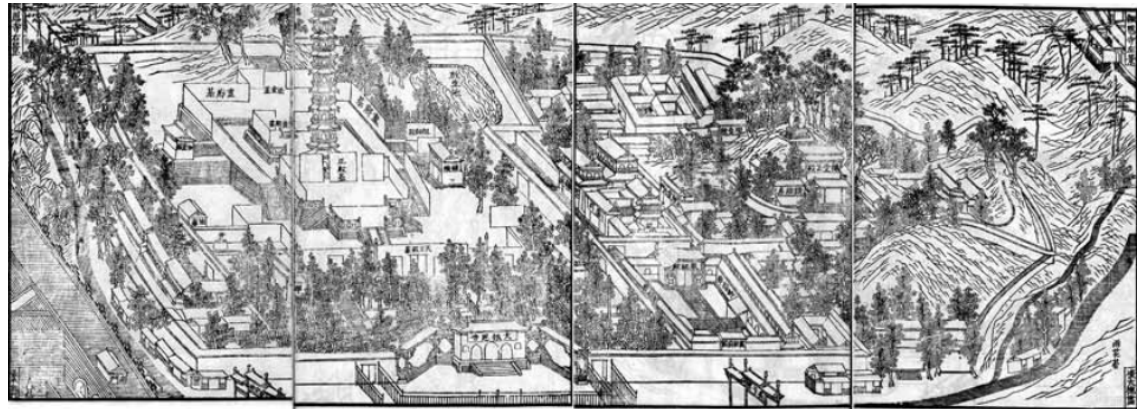
난징박물관은 2008년 7월 난징 대보은사(大報恩寺) 유적발굴 과정에서 '북송(北宋) 진종(眞宗) 4년(1011년)에 장간사(長干寺)를 중건하면서 지하궁을 만들어 아소카왕탑을 제작·안치했으며, 이 탑 안에 부처의 두정골 사리와 감응 사리, 제성 사리 등을 모셨다(金陵長干寺塔身藏舍利石函記)'는 글이 새겨진 비각을 발견했다. 박물관측은 이에 따라 창간사 지하궁 발굴에 착수, 그 해 11월 칠보(七寶)로 제작된 아소카왕탑을 찾아냈다. 이 탑 안에서는 금관과 은궤에 담겨 있던 부처님 두정골 사리 등이 발굴됐다. 이와 함께 두정골 사리 안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비석도 출토됐다. 고고학자들은 북송 초기 3대 고승으로 불렸던 북인도의 승려 시호(施護)가 이 사리를 북송으로 가져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두정골 사리가 보관됐던 아소카왕탑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생과 성불, 열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⁵⁹

58 대보은사(大報恩寺) 유리탑(琉璃塔)을 영국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영국탑(靈谷塔, 灵谷塔)도 난징에 있긴 하지만 1931년에 국민혁명군 진망장사공묘(國民革命軍陣亡將士公墓)에 세워진 건축물이며, 한번도 부서진 적이 없고 지금도 멀쩡하게 서 있다.

https://www.baike.com/wiki/%E7%81%B5%E8%B0%B7%E5%A1%94?view_id=1yj7mrowsq8000

59 <http://kr.people.com.cn/n/2015/1217/c207466-8992030.html>

이전에 유명한 17세기 여행자이자 중국 전문가인 요한 니호프(Johan Nieuhof)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추가한 이 도시는 도시의 지역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명성에도 기여했다. 사업가와 지역 정치인들은 이 프로젝트의 상업적 힘을 빠르게 발전시켰다.



난징 대보은사 (18세기)

건축가 반곡서는 영조 법식의 주해를 2회에 걸쳐서 출간했을 정도 중국전통건축에 관한 학문적 지식이 깊이가 있다. 건축사는 완전한 원래의 형태로의 복원을 하지 않고 새로운 양식 및 재료의 사용을 통해서 복원을 시도했다. 이유는 과거 왕조의 새로운 탑이 사찰이 있던 대상지에 과거 이전의 불탑을 그대로 복원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사찰이 남북조시대 이래로 계속 증·개축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불탑으로 건설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새로운 탑은 재건축 프로젝트의 원래 의도에 혁명을 일으킨 새로운 디자인과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역사적 기념물의 재건이 아니라 현대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의 출현이었다.



요한 니호프(Johan Nieuhof)의 삽화



대보은사의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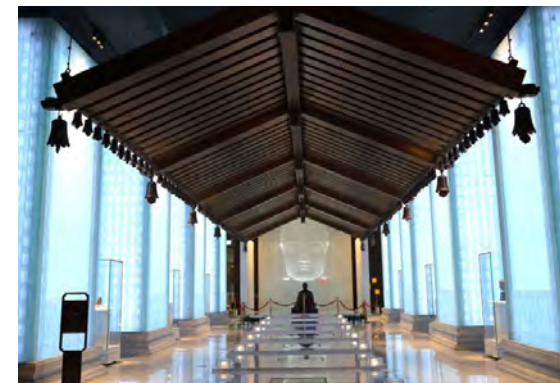
전체 사원의 유구는 발굴했으나 건축물의 형상은 알 수 없으므로 당시 유행한 천두식의 건축형식에 따라서 지붕 골조만을 넣어서 방문자들이 사원의 규모나 건축형태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원의 탑을 현대적 재료로 복원함으로써 야간경관의 배려뿐만 아니라 높이를 외부에서도 추정할 수 있고, 불교사원의 모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고려했다. 새로 지어진 탑뿐만 아니라, 사원의 고고학적 유구를 덮고 있는 보호각이 프로젝트를 지배하는 유일한 시각적 건물이 되었다. 사원 폐허를 덮고 있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회랑은 현대 건축 자재와 기술을 갖춘 현대 박물관으로 탈바꿈했다. 이 최종 실행 제안은 현대 건축과 역사적 유적의 층과 공존을 오래된 것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물론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으로 재건된 탑은 항상 디자인의 초점이었다. 그러나 고대 건축 걸작의 복원으로 시작된 새로운 탑의 디자인은 프로젝트 진행과 디자인 수정으로 인해 고층 빌딩으로 끝났다. 역사적 기념물의 표현을 현대 기술로 대체하는 도시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 글라스 월로 인한 반사 소재이지만 이것은 또한 새로운 탑에 과거와 현재 사이에 더 명확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대보은사 회랑영역 유적정비



대보은사 중심영역 유적정비



대보은사 회랑영역 유적정비



대보은사 원경

탑의 형태는 명나라의 건축특징을 추구했으며, 현대 도시와의 높이에서 조화를 이루었지만, 원본의 사본은 아니다. 이것은 실제 명대 건축의 실존하고 남아 있는 사진이나 그림 속에서 유리탑의 원형이 그려질 수 있으므로 가능했다. 한편, 완전한 중앙 공간을 얻기 위해 엘리베이터 배치는 팔각형의 평평한 면에 설치된 부분 코어 배열과 유사했다. 새로운 탑의 구조와 공간 패턴은 KPF의 MidCity Place와 같은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다. 새로운 탑과 사원 내부에는 호화로운 장식이 불교 세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건축가들은 원래 탑을 복사하는 것에서 그 왕조에 대한 지식과 현대의 기술을 바탕으로 명나라 건축의 특징을 갖춘 새로운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는 것으로 설계 전략을 변경하고 다채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6)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시간 흔적의 보존과 현재성의 통합



도시건축 전시관 항공사진 (하단: 성공회성당, 오른쪽: 덕수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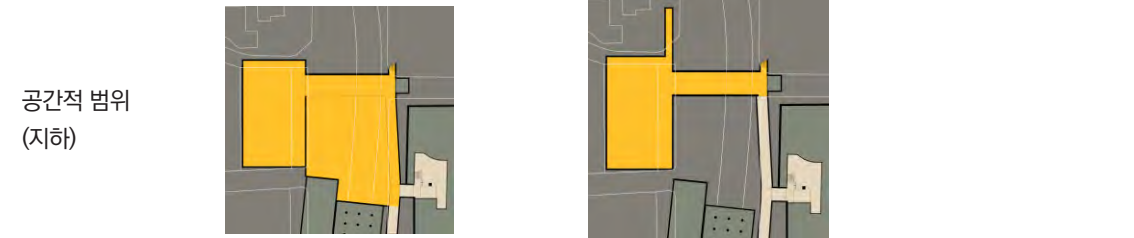
구 국세청 별관이 있는 세종대로는 조선 시대 육조거리라 불리우며 대표적인 국가권력 상징의 거리였다. 이러한 성격은 민주화 시대의 도래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1960, 70년대에는 퍼레이드 등과 같은 국가 선전이 행해졌다. 그리고 1990년이 지난 이후에도 각종 정치, 외교, 언론, 문화에 관한 중심기구가 밀집해있을 뿐만 아니라 대로가 관통하고 있어 공간의 권위적인 성격이 짙게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이곳에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 이어 광화문광장이 들어섰다.

동시에 이 거리를 에워싸고 있는 행정기구들과 미국대사관 등의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거리의 성격이 ‘시민을 위한’ 장소로 변모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가졌던

가치의 변화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광장과 우리가 원하는 혹은 필요한 광장 사이 간극은 크기만 하다. 서울시는 도심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광화문 일대를 역사문화 축으로 설정했다. 이로써 2006년 문화재청의 광화문 복원 사업과 연계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7년여에 걸쳐 수많은 제안과 논의들이 이뤄졌으나 실현이 미루어졌던 국가 상징 축 복원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먼저 복원 방향은 전문가들의 제안이 양측, 편측, 중앙광장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시민 투표를 통해 중앙광장으로 결정됐다. 2007년 12월 터키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그 물리적 결과물인 너비34m, 길이 550m 규모의 광화문광장이 완공됐다.

표1 도시건축 전시관의 마스터 플랜과 기본설계

구분	마스터플랜	기본설계
	세종대로 지하 공간	(구) 국세청 별관 지상·지하 (기존 지하 및 덕수궁지하연결통로 포함 잔여 대지)
위치	세종대로((구) 태평로) 일대 지하	중구 태평로1가 60-6, 정동 3-3, 3-6
면적	세종대로 지하 공간 2,500.0㎡ (AutoCAD 구적면적)	지상 1,088.2㎡(공부상 면적) 지하 1,600.0㎡(AutoCAD 구적면적)
도시계획사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원, 광장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기타	문화재보호구역(사적 제124호 덕수궁 주변 현상변경 관리지역, 문화재청 고시 제2007-11호)	



당선안

실시설계안

당선작 '서울 크로니클'은 터미널 7 아키텍츠가 설계했다.⁶⁰ 서울은 빠른 변화를 통해서 발전되어왔으므로ダイナ믹한 도시로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는 과거의 기억과 역사유적을 무분별한 방식으로 지워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설계안은 숨겨진 의미와 내러티브를 들추어 냄으로서 서울의 도시역사를 회복할 기회가 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지상에 새로운 역사문화경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내재되어 온 역사와 맥락의 층위를 사용했다. 즉, 최소의 건축적 장치를 이용해 사라지고 찢어진 역사적 사건과 잔재를 새로운 질서 안에서 재배치했다. 이러한 과정은 도시 이야기 안에 도시적 기억을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자 했으며, 결과적으로 “서울 크로니클”이라는 건축장치를 통해서 역사와 사회의 부류 안에 서울시민의 교류의 장을 구현해 내었다.



설계공모 대상지 주변의 광역분석



설계공모 대상지(마스터플랜 영역, 기본설계 영역)

“서울 클로니클”이 만들어내는 장소성의 핵심은 지하 공간과 상부 지상 공간을 수직으로 연결하고 지표 하부에 있는 공간의 연결고리는 발굴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과거의 흔적을 연상적 틀 속에서 보여주고 어쩔 수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들을 흔적을 인위적으로 재현하여 사람들에게 집단적 연상작용을 통해서 서울의 도시역사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첫 번째 작업은 기존 유적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지표면 상부와 지하의 맥락을 수용하고 고고학적 켜를 발굴하는 것이다. 고고학적 발굴 과정의 결과물을 통해서 도시적 깊이와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장치들을 지하 공간에 재배치시켰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한 정의되지 않은 불확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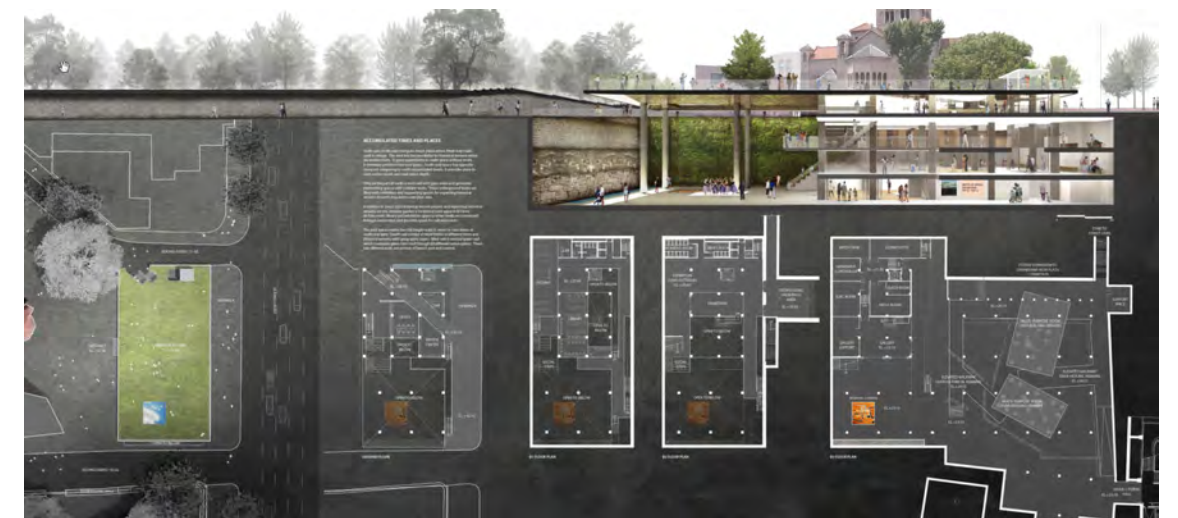
60 사무소 대표인 건축가 조경찬은 라파엘 비놀리 아키텍츠에서 실무를 했다.

공간을 곳곳에 배치하였다. 이들 공간은 시민에게 상호교류의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변화되는 공간을 만들어 내도록 고려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에 비유하여 서울은 지하에 숨겨진 다양한 수평선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여, 숨겨진 수평선들은 층서(層序)에 따라 구분되는 특징에 따라서 구분되는 층리면(層理面)에서 드러나는 지질학적 수평선뿐만 아니라 역사를 담고 있는 고고학적 수평선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장치를 통해서 숨겨진 수평선을 드러낸다는 것은 서울의 과거 사건을 이해하고 이 공간을 체험한 자신들의 지평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지 남쪽 부분의 삼각형 형태의 광장이 세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모임점에 위치한다. 이곳은 과거 가로 영역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사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다. 이것은 사이 공간에 레벨 변화 없이 공간을 만들고 비워진 공간을 만들 기회가 되기도 한다. 북쪽 면의 퇴적화된 레벨과 비교해서 남쪽에 빈 공간은 반대적인 성격을 갖는다. 남쪽의 비어 있는 공간에서 북쪽 면에 기둥과 보 그리고 다층 슬라브로 마무리된 다양한 레벨을 볼 수 있고 역사도시로서 서울의 도시조직은 깊이감을 연상시키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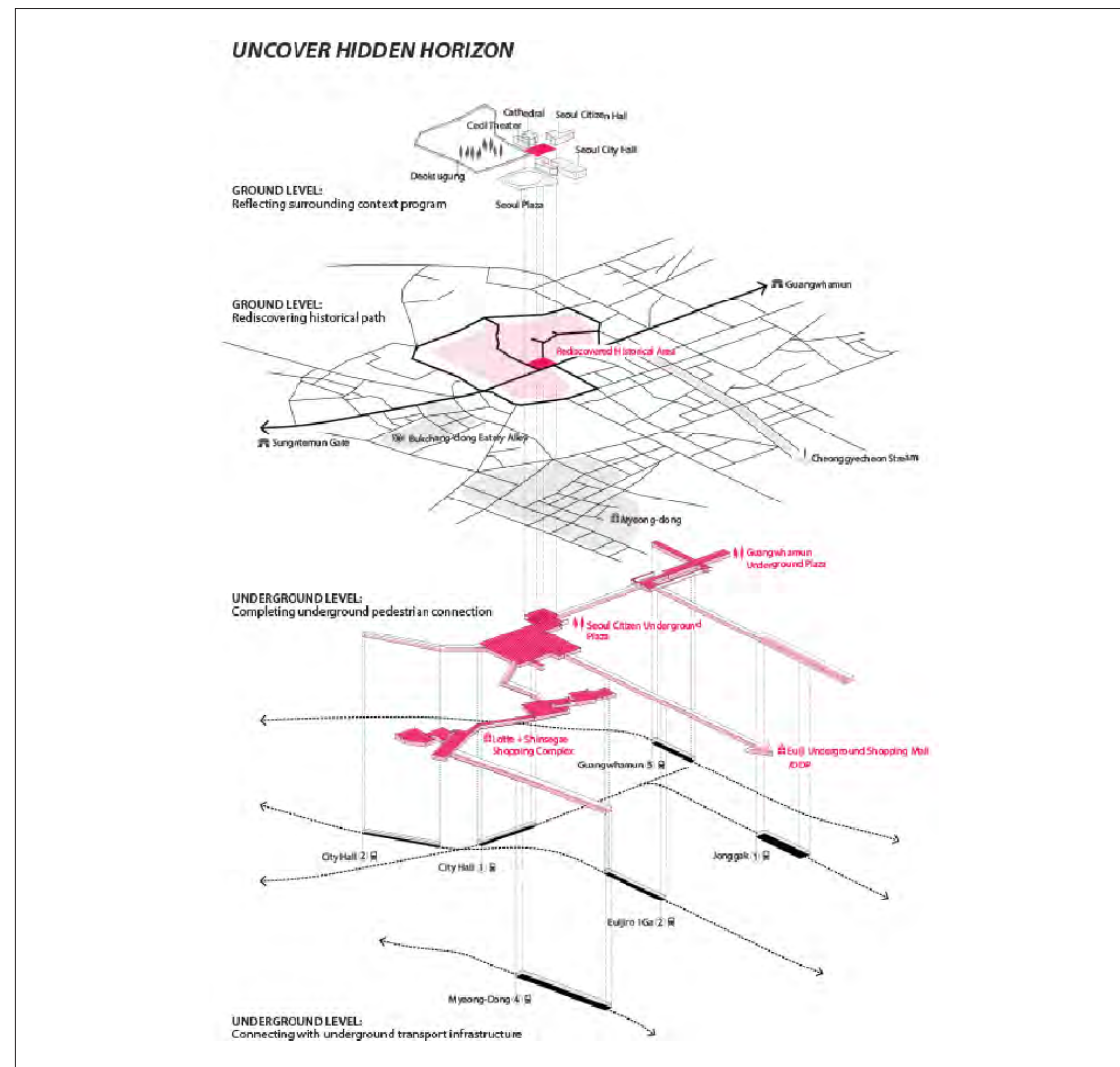
구축된 다양한 레벨은 지평선 한 개만 있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산으로 둘러싸인 서울 도시가 여러 지평선이 있는 도시라는 은유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지하에 지평선을 상징하는 B1, B2, B3 등 3개 층을 단순화시켜 슬라브 형태로 재현하였다. 구축된 3개 층에는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서울의 기억을 한데 모아 연대기처럼 구성하는 가변적 전시공간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건축 전시관 단면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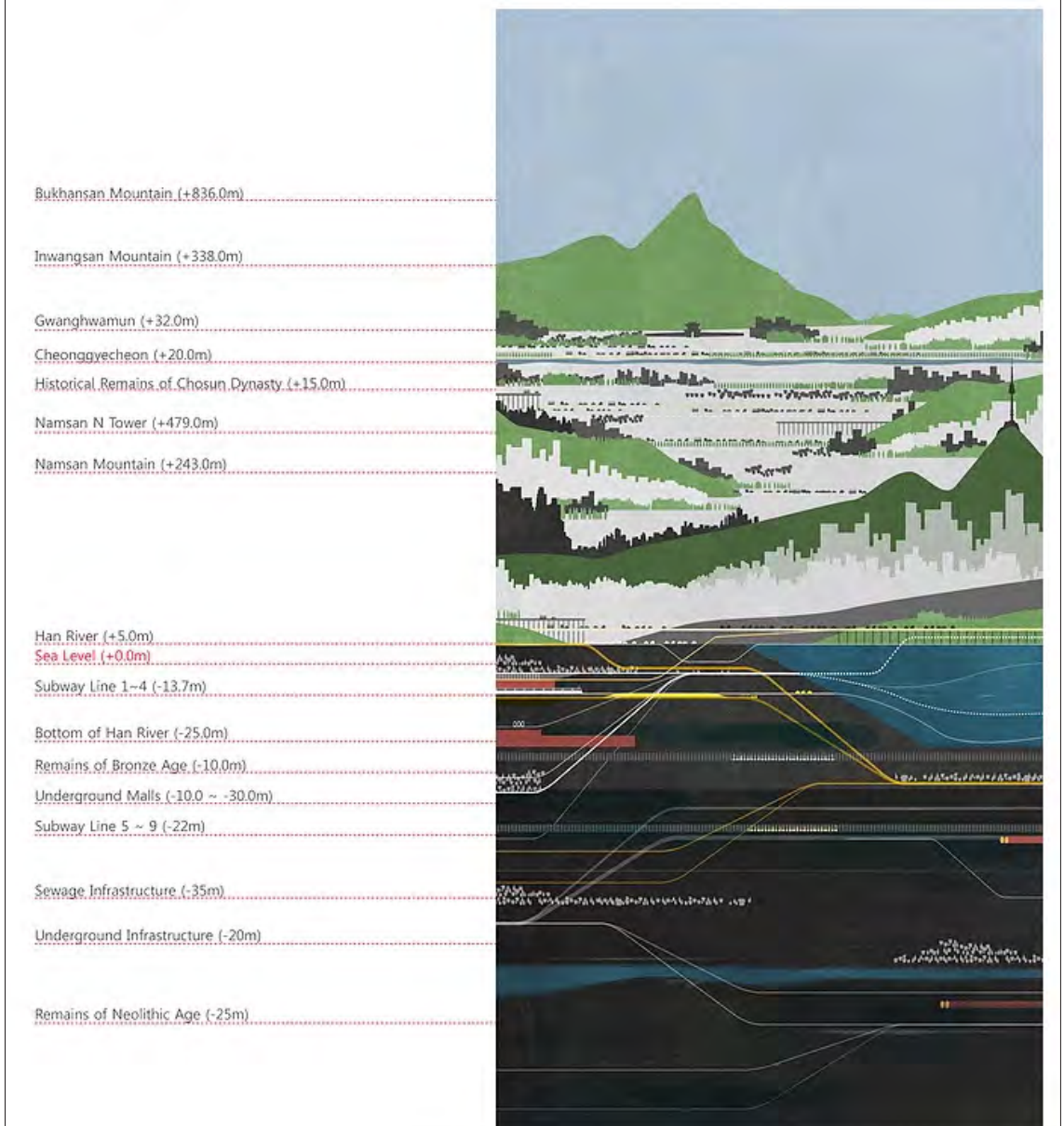
“어반 플랫폼”을 통한 개인의 기억과 도시의 “기억”을 연결한다. “기억”이라는 키워드는 지상에 세워질 덕수궁 둘과 서울시청 광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야트막한 지붕에서도 드러났다. “어반 플랫폼”이라고 이름 붙인 이 지붕은 덕수궁 담과 같은 높이로 띄워 설계 했다. 지붕 위를 오르는 시민은 덕수궁이나 서울시청 광장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기억을 도시의 기억(즉 대한제국시대의 근대역사를 환기시킨다)과 연결하고자 했다.

기억을 끌어들이는 플랫폼에는 이웃들과의 다양한 액티비티를 위한 장소로서 지상 1층 레벨은 방문센터와 카페가 정동 언덕으로의 지름길을 제공하면서 양분되었다. 수평 플랫폼 아래의 틈새는 가로공간에서 지하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며, 지하 레벨(과거 국제청 별관 지하층, 현재의 지하철 1호선 레벨과 일치한다)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하철로 연결하는 기존의 지하통로로 접근할 수 있다. 마스터플랜 단계에서 그 지하 공간은 확장되면서 서울 지하 공간의 서쪽 관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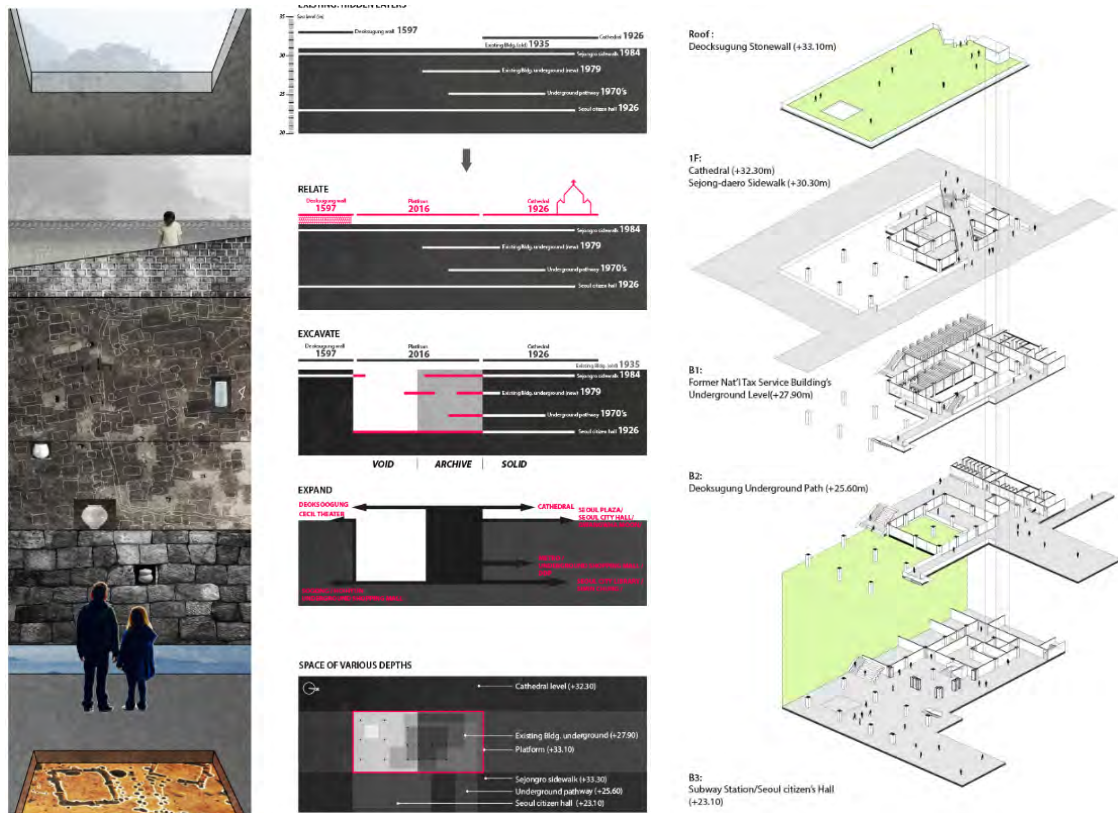
광역계획

PLATFORM



도시건축전시관 주변환경 요소 추출

더 나아가서 향후 광역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을지로, 광화문, 소공로 등에 있는 지하통로를 연결하여 시민들의 교류 장소와 격동의 역사체험 장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서울 중심 지하 공간의 메카로 발전하도록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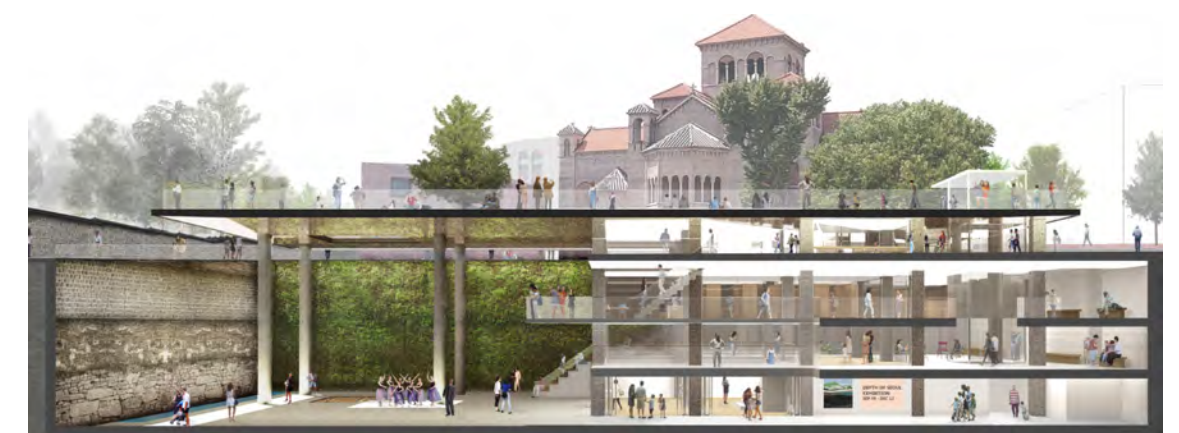


도시건축 전시관 스페이스 프로그램

정리하면 “서울 클로니클”의 건축장치는 지붕상부는 덕수궁담장에 맞춰 덕수궁과 서울광장을 조망하면서 성공회 성당과 세종대로의 지상 레벨(과거 가로를 복원하면서), 구 국세청 별관의 지하 바닥 레벨, 덕수궁 가로와 건너편 가로를 연결하는 지하통로 바닥 레벨,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지하 바닥 레벨을 맞춰 다양한 층위를 만들고 이들 층서(層序) 공간을 경험하는 것은 대한제국 시기에서 월드컵의 열기를 재현한 현대까지 도시역사를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격동의 역사의 커를 상하 수직으로 연결된 아카이브월과 그린 월로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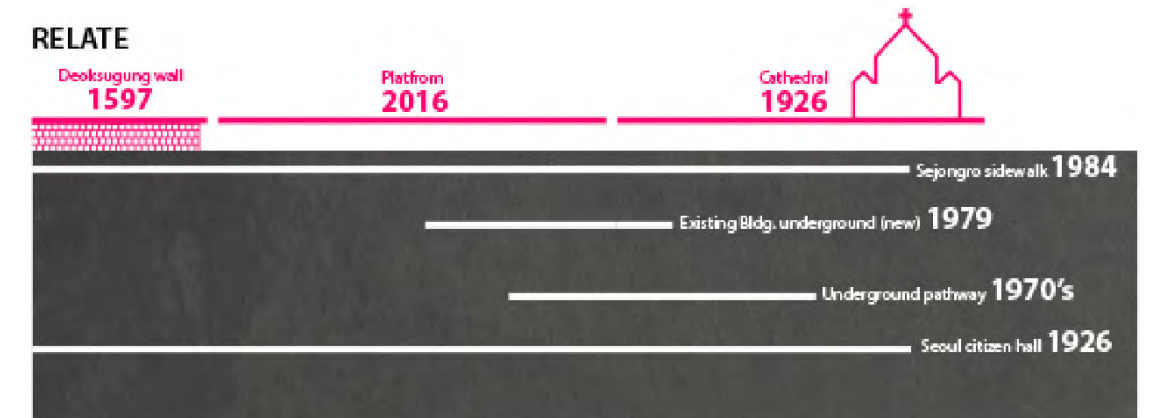
지하 공간 한편에는 8미터 높이(계획안에서는 7미터에서 9미터로 표기)의 아카이브 월(남쪽벽)과 80여 종의 식물로 이뤄진 그린 월(서쪽벽)도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 2개의 벽은 서울의 과거(아카이브 월)와 현재(그린 월)를 상징한다.

디자인설계 구상에서 접근한 것이지만, 공사 중 집터 같은 유적을 발견할 경우, B3층 레벨에 유적정원을 만들고 상층부까지 빛의 박스인 글라스 파빌리온을 만들어서 역사전시공간을 구상했다. “공공 건축의 완성도는 결국 디테일에서 결정된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건물은 아니지만 작은 요소 하나하나에 집중해 수준 높은 전시시설을 만들 것이다.”



아카이브월

그린월



도시건축전시관 (시공간 관념과 조우한 단면구상)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내외부 모습



상부지붕에 첨성대 모형이 설치된 모습

3.2 역사문화자원의 면적 활용

1) 아크로티리(Akrotiri), 테라(Thera), 산토리니(Santorini), 그리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공공장소의 구축



아크로티리의 고고학 유적지

아크로티리의 고고학 유적지의 셸터

아크로티리는 그리스의 화산섬 산토리니섬에 있던 키클라데스 청동기 시대의 고대 정착지였다. 영역은 약 20헥타르의 넓이에 달하며 키클라데스 제도의 테라 섬(산토리니라는 알려짐)에 있다.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후기 신석기시대부터였으나, 이곳이 대도시로 발전해 나간 것은 기원전 2천 년부터였다. 정착촌은 기원전 16세기에 티라 분화로 파괴되었으며, 화산재에 묻혀서 프레스코화되어 많은 유물과 예술품이 보존되었다. 섬의 전체 형상에서도 화산 폭발의 결과가 보인다.⁶¹ 구석기시대에 이미 작은 정착촌이 세워졌고, 신석기 시대에 마을은 점진적으로 확장되었고 초기 청동기시대에는 동부 해상무역거래의 중요한 중심지로 진화했다. 마을의 북쪽에는 완만한 경사면으로 자른 암석 깎아 만든 묘지가 있다.

61 아크로티리 [Akrotiri]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역사 유적 1001, 2009. 1. 20., 마로니에북스)

이 도시는 기원전 천년기가 끝나기 직전에 심한 지진으로 파괴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서 부유한 도시가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동묘지는 폐지되었고 방들은 파괴된 도시의 파편으로 채워져서 중동 청동기시대(2000-1650년경)에 이 도시는 적어도 2층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아크로티리의 발굴작업은 1967년 아테네 고고학협회(Archaeological Society of Athens)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으며, 17세기 말 직전에 발생한 두꺼운 화산 폭발로 매장된 청동기시대 후기 도시의 유적을 밝혀냈다. 민감한 보존 상태로 인해 다층 건물과 그 내용(벽화, 도자기, 청동, 바구니, 농산물 등)은 특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했다.

역사유적지는 매일 관광객의 수천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사이트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가치가 우선시되었다. 이 도시의 폐허는 오늘날 방문자들에게 접근 가능하며 과학 및 역사적 가치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즉, 고고학적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로 부지의 보호에 집중했고, 도기 및 벽화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해 현장 실험실을 구성하여 그림을 관리했다.⁶² 유기물, 금속 공예품 등을 위한 실험실이 설립되었다. 관광산업 발전 이전에는 토지 매입 비용이 낮았으므로 발굴 주변에서 상당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었고, 따라서 미래의 건물 활동으로부터 현장을 보호할 수 있었다.

간행물, 학술 심포지엄 및 국제 회의⁶³를 통한 지식의 보급과 함께 발굴의 진행 초기에 병행하여 역사에 관한 전례 없는 정보 덕분에 곧 전세계 대학의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교육적 가치를 얻게 된 이 사이트의 과학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사이트의 과학적, 역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셸터로 덮음으로써 미적 가치는 거의 완전히 무시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소크라테스 전 철학자의 자연 철학에 따라 자연 물질을 4원소(흙, 물, 공기, 산)의 혼합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차례로 지구 - 냉 / 건조, 물 - 냉 / 습기, 공기 - 고온 / 습기, 고온 - 건조 로 구성된다고 보았다.⁶⁴

62 Marinatos, S. 1973. 「Die Ausgrabungen auf Thera und ihre Probleme. Vienna: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63 Sherratt, S. ed. 1999.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Symposium: The Wall Paintings of Thera. Athens: Idryma Thiras P. M. Nomikos」.

64 Roussos, E. N. 1984. 「Αριστοτέλης ο Σταγειρίτης, Παγκόσμιο Βιογραφικό Λεξικό, 2. Athens: Ekdotike Athinon S.A., p. 15.



아크로티리 고고학 유적지 전시관 내부



전시관 내부의 공공공간으로서 활용



아크로티리 도시주거 유구



전시관 내 보존센터

이 철학에서 영감을 얻은 건축가 핀티카키스 노코(N. Fintikakis)는 생체 쉼터(bioclimate shelter)라는 개념을 고안했다.⁶⁵ ‘테라 아크로티리의 고고학 유적지의 개선, 프리젠테이션 및 셸터 교체’라는 타이틀로 유럽 연합과 공동으로 재정 지원을 받고 아테네 고고학협회가 구현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기후조건, 지질학 및 지진과 관련된 연구를 동반한 새로운 피난처의 건축 및 엔지니어링 계획은 아테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발표되고 논의되었으며 이후 총회 제목 “테라섬에 아크로티리의 고고학 사이트를 위한 새로운 셸터(The New Shelter for the Archaeological Site of Akrotiri on the Island of Thera)”였다. 새로운 피난처를 위한 기둥을 세우는 데 필요한 100개 이상의 샤프트 굴착은 사이트의 전체 역사가 기록된 층서학을 노출시켰는데, 지질학자들은 선사시대 정착지가 설립된 지역의 분출 전의 상황을 재구성 할 수 있었다.⁶⁶ 이러한 정보 덕분에 첫 번째 정착지가

65 Fintikakis, N. 2003. Η αρχιτεκτονική φιλοσοφία του έργου. Ύλη και Κτίριο, 63: 46-49.

66 Marinos, P. G. and Benisi, M. B. 2003. Ο χαρακτήρας των γεωλογικών συνθηκών του χώρου. Ύλη και Κτίριο 63:62-63.

기원전 5천년 중반에 조성된 낮은 갑(岬) 끝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셸터는 토층으로 단열된 지붕으로 내부에는 쾌적한 안락함을 보장하며 주변 경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집수장치 역할을 하는 거대한 지붕은 발굴의 필요에 따라 담수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긴 창문의 북쪽 방향과 야간의 자동 규정된 개통 덕분에 고고학 지역 내부공기의 재생 및 냉각이 이루어지며 풍부한 채광을 확보하였다. 또한 특수 유리창은 햇빛을 필터링하여 적외선 및 자외선으로부터 사이트를 보호한다.

현재 지표면 수 미터 아래에 있는 폐허의 위치는 현대 지붕과 조경의 조화를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발굴된 유구 주변에는 산책로를 만들었다. 발굴된 기념비보다 레벨을 높게 하였는데 방문객이 근처를 걸을 때 유리한 각도에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유적에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였다. 이 산책로는 휠체어 사용자에게도 제공된다. 새로운 셸터 아래에서 방문자를 위해 설계된 경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운영자가 매일 여러 그룹을 구성할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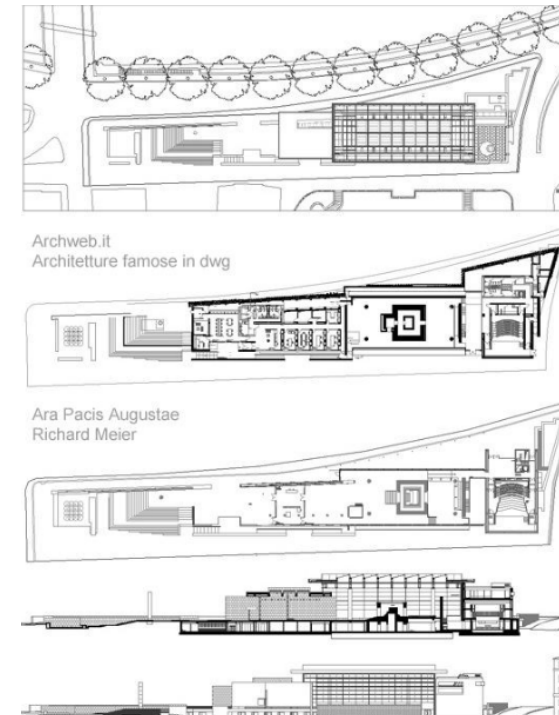
2) 역사문화자원과 현대 도시의 새로운 공공 역할, 평화의 제단(Ara Pacis)

과거 기억의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자원 활용

평화의 제단(Ara Pacis)을 위한 박물관의 경우이다.⁶⁷ 이 건물은 티베르(Tiber)강, 제방 및 도로에 대한 경계를 구성하고 영묘는 긴 사각형의 축을 형성한다. 1930년대 말에 철거와 고고학 발굴의 시작으로 영묘(1780~1930년대), 코레아 극장, 다용도 극장, 움베르토 1세 건물 및 성 세실리아 아카데미의 강당에서 파생된 초기의 웅장한 모습은 잃어 버렸다.

1996년 건축가인 리처드 마이어(Richard Meier)의 의뢰를 받은 새로운 아라 파시스박물관은 2006년 4월 21일(전통적인 로마 건국 기념일)에 개관했다. 개관 전과 후에 기념비의 경계로서 “기능과 도시적 맥락” 사이에서 강한 경계성을 보여준다.

67 ‘평화의 제단’이란 뜻. 아우구스투스에게 원로원이 헌당을 결정, B.C. 9년 로마의 마르스 광장(Campus Martius[라], 현재의 나보나 광장 부근)에 완성하였다.



평화의 제단, 리처드 마이어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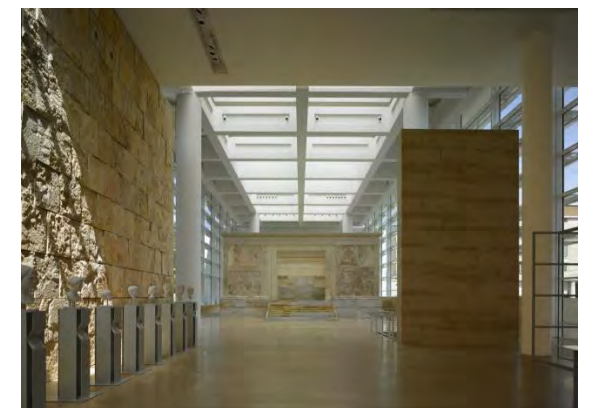


공공 광장, 프란체스코 펠리니 설계

로마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획된 새로운 구조는 붕괴가 진행된 기념비의 이전 보호각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새 건축물의 구조는 티베르(Tiber)강의 제방과 기원전 28년경에 지어진 아우구스투스 영묘 사이에 투명한 장벽을 제공하면서, 얇은 연단 위로 높이 올라간 긴 단층 유리로 구성된 로지아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건물은 상반되는 의견을 불러 일으켰다.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는 디자인은 실패로 간주했고, 미술 평론가이자 논쟁가인 비토리오 스가르비(Vittorio Sgarbi)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의 지구에 있는 텍사스 주유소가 세워졌다”라고 비판했다.



아라 파시스 박물관 입구



아라 파시스 박물관 전시공간 내부

3) 역사문화자원과 현대 도시의 새로운 공공 역할, 아우구스투스의 영묘(MAUSOLEUM)

과거 기억의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자원 활용



아라 파시스 박물관 주변 공공광장 설계 (프란체스코 첼리니)

공공광장의 재생설계에서는 2006년 건축가 프란체스코 첼리니(Francesco Cellini)가 당선되었다.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고고학적 유적지의 접근성과 유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도시 공간이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관점에서 고려되었다.

프로젝트는 두 단계의 구분해서 진행되었다. 2014년 12월에 완료된 첫 번째 단계는 산 카를로 알 코르소 교회(San Carlo al Corso Church)의 뒷편과 아라 파시스 박물관(Ara Pacis Museum) 계단 사이의 남부 영역에 관한 것이다. 고고학적 근거를 가진 큰 광장의 배치를 포함한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지역의 북부 지역과 주변 도로의 개편에 관한 것이다. 영묘 주변의 현재 광장의 구조 조정 및 확장을 제공하여 현대와 고대 도시 간의 역사적 관계를 재해석한다. 동시에 영묘 자체의 복원 및 배치를 위한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다.

프로젝트의 '허브'는 산 카를로 알 코르소 교회(San Carlo al Corso Church)와 아라 파시스 박물관(Ara Pacis Museum) 입구로 이어지는 계단 사이에 있는 남부 영역이다.

고고학적 층위에서 생동감 있고 매력적인 도시 광장을 만들어 도시를 더욱 과거의 상태에 가깝게 만들고

공간과 역사적 경로를 다시 연결하고자 했다. 즉, 길과 공간을 엮어서 이 특별한 도시의 팔림세스트(Palimpsest, 원래의 글 일부 또는 전체를 지우고 다시 쓴 고대 문서)의 개념으로 각 기념비적인 요소를 하나로 묶어주는 시각적인 흐름과 움직임의 흐름을 만들었다.



산 안젤로(Sant'Angelo) 교회와 축

진정성에 기반한 고고학적 속성을 따라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묘 및 관련 유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광장은 3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넓고 평평한 공간, 고고학적 층위와 일치하는 광장(1세기 및 2세기 AD), 평탄한 도시 테라스는 남쪽 가장자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도심을 향하고 가로로 따라 흐름을 모으는 동쪽 회랑은 스페인 계단처럼 단순한 길이 아니라 머물거나 걷고 쉴 수 있는 공간이며 광장이기도 하다. 고대 로마 층위에서 새로 발굴한 바닥재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석회 블록으로 1세기에 조성한 도미티아누스(Domitian, AD 81-96)시대⁶⁸의 바닥재가 설계안에서 노출되었다. 고대 포장도로는 가독성과 특성을

68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는 제 9대 로마황제이었고, 후사가 없었던 형 티투스의 뒤를 이을 황제감으로 인정받았다. 이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밧모섬으로 유배를 갔고, 로마의 클레멘트가 순교했다.

존중하면서 광장의 포장도로에 통합되어 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바닥 포장재는 고대 층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지만 표면 처리가 다르게 하여 구분시켰다.

옥타비아(Octavia)의 주랑 현관(Portico)의 고고학적 기반과 도시 지구의 재배치를 통해서 폐허의 일부를 복구하였다. 고고학 발굴의 결과를 토대로 숙박시설 현관(propylaea) 입구의 플라미니아 서커스(Plaminian Circus)와 중세 묘지(Necropolis)를 따라 일부 도로는 포티코(portico) 내에서 만들어진 로마 페세리아(Pescheria)의 산 안젤로(Sant' Angelo) 교회와 동서축을 연계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로라 로마놀리(Laura Romagnoli)와 귀도 바토치오니(Guido Batocchioni)는 구 사이트와 오늘날의 역동적인 도시 공간 사이의 비율을 재구성하기 위해 경사로와 경로 시스템을 연구하였는데 결과적으로서 로마 건축물의 복잡한 층위를 기억하고 옛 것과 현재 것이 투과하는 프로필레이아 입구로 접근성을 부여하도록 설계했다.



단면상에서 보이는 1세기 층위와 현재 층위와 일치시킴

4) 비아 줄리아(Via Giulia) 주변 광장, 로마

과거 기억의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자원 활용



비아 줄리아(Via Giulia)

비아 줄리아(Via Giulia)는 교황 율리우스 2세 델라 로베레(Julius II Della Rovere)가 도나토 브라만테에게 요청해서 건설한 도로로서 로마 교황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중요한 도시계획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로마 리노베이션의 핵심계획이었다. 중세시대에는 여전히 구불 구불하고 진흙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중심가로 여겨져 'magistralis(주도로)'라고 불렸다. 1478년 Sixtus IV della Rovere가 추진한 도시 개편 계획에 따라 개조되었으며 Piazza di Ponte S. Angelo의 상업 지역과 Campo de 'Fiori 및 Piazza Navona의 시장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via mercatoria'라는 이름을 따 왔다. 이 계획에는 로마 중심부에 Ponte Sisto를 Tiber와 평행을 이루는 San Giovanni dei Fiorentini 교회와 연결하는 새로운 경로가 포함되었다. 이후 이 거리는 도시에서 가장 긴 거리(약 1km)가 되어 'Via Rectae'라는 이름을 얻었다.

도로 확장에 있어서 3가지 목적이 있었다. 먼저 중세 로마의 복잡한 골목길에 넓은 메인 도로를 건립하는 것이었다. 교황은 카톨릭 교회의 정통성과 웅장함을 보여주기 위해 호화로운 건물로 둘러싸인 중심도로의 건설을 원했다. 교황이 거주하는 바티칸 근처에 새로운 행정 센터를 설립한 후에 도시기반을 위한 것이며,

교황에 반대하는 로마 남작 가문이 지배하는 카피톨리노 언덕의 전통적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건설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가장 중요한 집안 중 일부가 이곳에 정착했다. 여전히 거리를 가로지르며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 서있는 아치는 1540년 미켈란젤로의 프로젝트의 일부로, 1540년 다리를 통해 강 반대편에 있는 빌라 파르네세와 파르네세 궁전을 연결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비아 줄리아(Via Giulia)의 면모를 바꾼 마지막 프로젝트는 Tiber 성벽을 건설한 것으로 1870년 이후에 일어난 것이다.

도로 폭 조정과 관련하여 1931년 마스터플랜에서는 두 개의 중요한 거리인 Lungotevere와 Corso Vittorio Emanuele의 연결과 일부 건물의 철거가 포함되었다. 1939년 Palazzo Ruggia와 Palazzo Incoronati가 위치한 거리를 따라 중간에 있는 두 블록의 철거로 인해 3개의 주거용 도시 블록이 사라졌다. 주택 철거로 인해 르네상스 시기인 16세기 초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건설한 직선도로가 파괴될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서 엔지니어 마르첼로 레베치니(Marcello Rebecchini)가 비콜라 말파소(vicolo Malpasso) 블록 일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산 필리포 네리(San Filippo Neri) 교회를 포함한 블록 전체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비아 줄리아 거리의 양쪽 블록의 복원은 멈춰졌고 지역주민들은 주차문제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다. 건축가 파올로 포르토 게시(Paolo Portoghesi)에 따르면, 얼마나 심하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철거로 인한 상처 [...]는 거리 프로필에 의해 생성된 빛을 차단하므로 거리의 특성을 크게 변경했다. [...] 도로의 시각적 연속성을 방해하는 갑작스런 빛의 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따라서 가로를 따라서 배열된 완벽했던 건축 볼륨감이 단절되었다.”라고 하면서 계획의 문제성을 이야기했다.

사업은 좀 더 진행하여, 2005년에 한 민간 기업이 모레 타 지역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기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 비아 줄리아 거리가 관통하는 라드고 페로시(Largo Perosi) 블록에 3층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2008년에 회사와 로마시와 공공 재산의 표면과 지하에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 체결했다. 2009년에 담당 감독관은 작업 시작을 승인했다. 2011년 고고학 조사는 부분적으로 경기용 이룬마차(Aurighi) 와 관련해서 마구간 유적이 발견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간의 논란을 가중시켰다. 그래서 같은 해 로마시 당국은 7명의 이탈리아 및 외국 디자이너를 초대하여 Via Giulia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같은 해 2월 아라 파시스(Ara Pacis) 강당에서 ‘The Moretta and via Giulia’라는 주제로 회의 및 박람회를 개최되었는데, 과거와 현재를 묶어주는 아이디어는 알도 아이모니노(Aldo Aymonino), 데이빗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 스테파노 코르데쉬(Stefano Cordeschi), 로저 디엔너(Roger Diener), 파올로 포르토게시(Paolo Portoghesi), 프란코 프리니(Franco Purini), 쥐세페 레베치니(Giuseppe Rebecchini) 등 로마시 행정부가 초청한 이탈리아 및 해외 디자이너가 제안한 7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영국 데이빗 치퍼필드 또는

이탈리아 스테파노 코르데쉬와 알도 아이모니노는 또한 현대성과 전통을 결합한 건물 세트를 제공하여 로마 도심지역에 새롭고 역동적인 외관을 제안했다.



Roger Diener



Franco Purini



David chipperfield



Giuseppe Rebecchini



Paolo Portoghesi



Aldo Aymonino



Stefano Cordeschi

아틀리아 디엔너 앤 디엔너, 프란코 프리니, 데이빗 치퍼필드, 쥐세페 레베치니, 알도 아이모니노, 파올로 포르토게시, 스테파노 코르데쉬 (상부에서 하부)

파올로 포르토게시안은 Via Giulia를 향해 건물은 ‘Ruggia와 Incoronati Palace’의 동일한 윤곽을 가진 두 개의 정면을 보여주어 철거된 정면을 도시적 가치로 되돌려 놓았다. 이 프로젝트는 가장 널리 퍼진 주거용과 최근 수십 년 동안 도로에 정확한 도시 역할을 부여한 상업용 건물의 복원을 제안한다. 인간적 규모의 리듬, 색상, 가치의 관점에서 상처를 치유하려는 의도로 건물에 균질한 성격을 부여했다. 치유된 상처는 현대 도시 복원의 증거가 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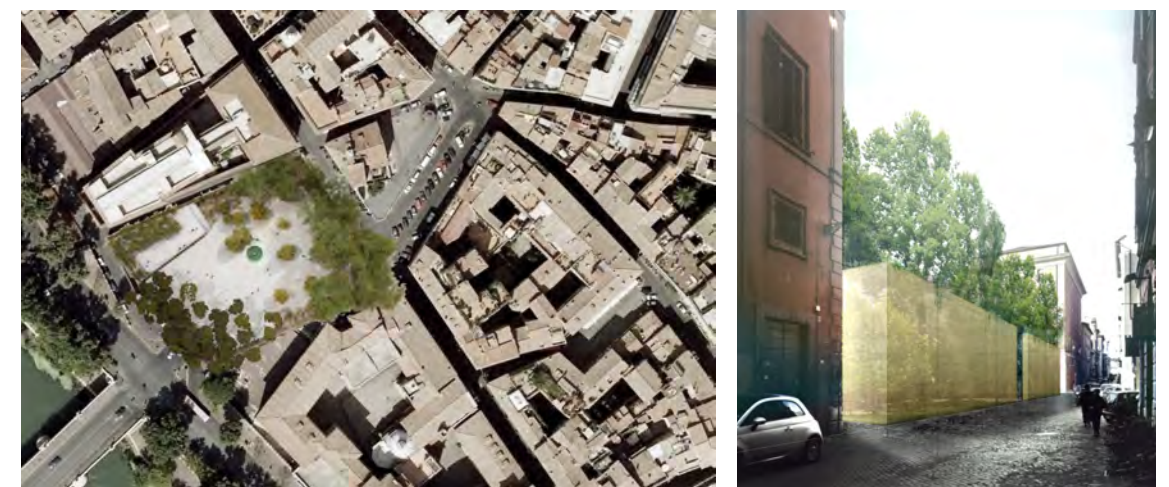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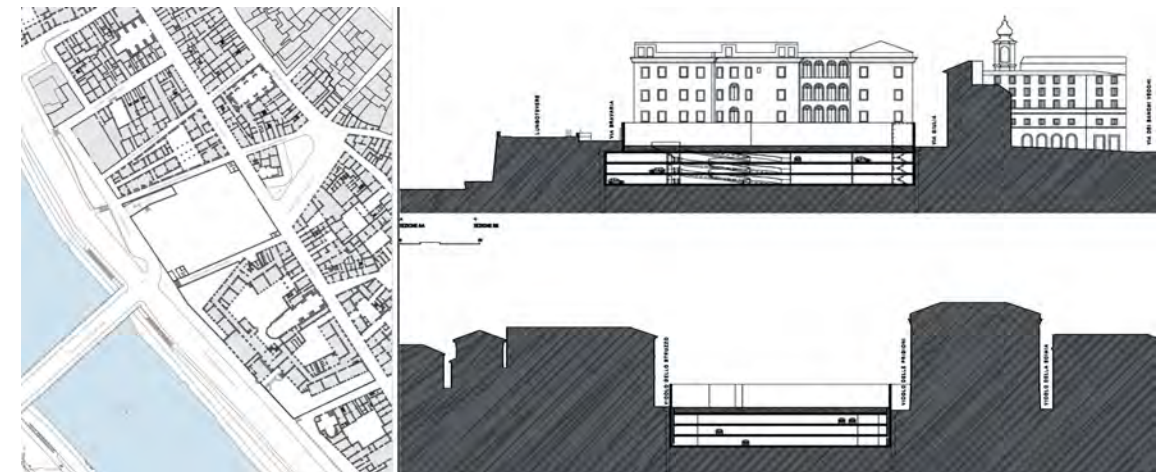


파올로 포르토게시(Paolo Portoghesi)의 안

아틀리아 디엔너 앤 디엔너(Atelier Diener & Diener)의 설계안(로마 아틀리에 Garofalo Miura Architects와 Gunther Vogt, 취리히의 풍경 화가와 협력하여)이 당선되었다. 디엔너는 비아 줄리아(Via Giulia)의 건물을 재건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했다. 새 건물은 거리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재창조할 능력 없이는 그 자체로 주목을 끌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것도 설치하지 않고 비워져 있는 공간에 역사적인 축선상에 배치한 정원 벽으로 해결했다. 디엔너는 주차장 위에 블록 전체를 담으로 둘러싸고 정원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파르네세 궁전(Palazzo Farnese)의 정원을 인용한 벽으로 둘러싸인 녹색 정원은 과거 르네상스 시기의 것과 일치하므로 결과적으로는 과거 비아 줄리아 거리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랑코 프리니(Franco Purini)는 현대 건축 언어가 역사 도시에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했다. 프리니는 사라진 고대 가로 경계선을 유추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철거된 도시 조직을 모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가 제안한 것은 철거된 도시조직을 따라 건물 전면을 보충하는 것이었다. 사라진 파사드의 공간적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메트릭'을 식별하기 위한 현대건축 '언어'의 도구와 테마였다. 이 프로젝트는 박물관, 서점 및 녹지로 구성된다. "이 지역은 역사적 중심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보행자 지역의 경계를 표시하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 계획안은 주차장 건설을 고려하며 1930년대에 철거한 벽체 부분을 재축하면서 유리 와 철골 구조의 현대성과 기존 구조의 진정성 사이의 조화를 만들고자 했다.⁶⁹

⁶⁹ <https://lepetitjournal.com/rome/actualites/urbanisme-un-nouveau-visage-pour-la-moretta-e-giulia-entre-tradition-et-modernite-37997> (2020. 11.12 접근)



아틀리아 디엔너 앤 디엔너 안

건축가 스테파노 코르데시(Stefano Cordeschi)는 새로운 건물은 상황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도시계획을 존중하지만 형식적 자율성과 유형학적 자율성을 모두 소유한다. 비아 줄리아(Via Giulia)의 가로 정면은 16세기 궁전의 상징적 장치를 떠올리지 않고 원근감있는 거리 정면의 재건을 목적으로 했다. 외관은 16세기 취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벽 구조에 새로운 발견물을 포함하는 야외 박물관이 되었다. 고고유적의 고려 없이 지하 주차장을 포함하여 박물관, 호텔, 식당, 주거, 공공중심장소를 제안했다. 이 안은 역사 도시를 대표하는 주민 조직의 강력한 반대로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⁷⁰

⁷⁰ 대평의회(Consiglio Grande e Generale)가 임명하는 11명의 국가회의(Congresso di Stato)의 '사전 예방 사례'를 통해 개발을 막는 데 성공했다.



건축가 스테파노 코르데시(Stefano Cordeschi)의 안



프랑코 프리니(Franco Purini)의 안

주세프 레베치니(Giuseppe Rebecchini)는 비야 줄리아(Via Giulia)의 연속성과 동질성을 갖고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가정하에 비야 줄리아(Via Giulia) 가로를 따라 1층에 아케이드를 배열하고 그 상부에 3개 층 아파트가 있는 새로운 오브제는 ‘맥락에 맞게 적응된’ 현대적인 언어를 표현한다. 비야 줄리아 쪽으로 정원이 약간의 경사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처리되고 파고라가 있는 중앙 경로로 표시되어 점차 포장된 지역이 되고 도로를 따라 보이는 높은 열주에서 끝난다. 때때로 시장에 사용한 열주는 부분적으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두 개의 공간(술집바와 레스토랑과 서점)으로 채웠으며, 두개 층 천장을 유리로 했다.



주세프 레베치니(Giuseppe Rebecchini)의 안

프로젝트 상에서의 간과했던 부분은 지역민들이 요청한 주차장이었다. 이미 ‘룽고테베레(Lungotevere)’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주차장을 건설하면 교통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정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모든 환경 조건(소음, 공기 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⁷¹

5) 유적 박물관의 건립을 통한 역사문화자원 활용

과거의 기억 복원과 새로운 기념물 조성, 아크로폴리스 박물관(Acropolis Museum)

아크로폴리스 주변에 새로운 박물관을 짓기 위한 그리스 정부의 노력은 1976년부터 시작한 여러 차례의 공모전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랜 시간동안 대지선정, 고고학적 유물들의 발견 등으로 지연된 후, 마침내 건물을 어느 정도 들어 올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가 추미의 안이 4번째 컴퓨터선에 의해서 당선작으로 결정되었다.

2007년 10월에는 3대의 거대한 타워 크레인을 통해서 아크로폴리스 정상에 위치한 유물들을 박물관으로

71 Miccoli, S., Finucci, F., & Murro, R. (2015). A direct deliberative evaluation method to choose a project for Via Giulia, Rome. Pollack Periodica, 10(1), 143-153.

직접 옮기는 총 4달에 걸친 작업을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마침내 완성된 박물관이 일반에 공개되었다. 현재 실제 대지에서 볼 수 있는 유물들은 전부 모조품이고, 진품은 모두 신축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영국으로부터 강탈당한 파르테논 대리석 조각들(Elgin Marbles)을 돌려받고자, 전시실 최상층에 그것들을 위한 장소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

고고학자들과 보존주의자들과 협력하여 추미의 해결책은 43개 기둥을 배치하여 건물 전체를 매달고 그 아래의 폐허가 보이게 하고 방문객들이 이들 유구를 내려다보게 했다. 한편, 신 아크로 폴리스 박물관 상층에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은 유리벽(글라스월)에 둘러싸인 갤러리를 세우고 성스러운 바위에 위에 남아있는 성전을 바라보게 했다. 갤러리는 파르테논 신전의 유물과 방향성을 그대로 복제하여 방문객들이 파르테논 신전이 손상되지 않았을 때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조각상을 나열했다.



글라스 월 사이에 파괴된 파르테논 신전과 남아있는 조각상들과 대비

추미의 건축 계획안은 그리스 건축가 피나키오스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파르테논을 향해 올라가는 색다른 경험을 제시한다. 박물관의 입구로 접근하면 마치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오르면서 오래된 유적을 만나듯이 건축구조가 드러난 열린 바닥을 통해서 고고학적인 유적이 보이고, 박물관 내의 모든 동선이 시작되는 입구 홀에 이르면 위로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렵듯이 보이는 유리로 된 천정을 통해서 마치 땅속 공간에 있다는 착각이 들게 된다(위 사진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입구 홀에서 위를 향해 보이는 유리로 된 바닥). 여기로부터 방문객들은 상층부에 배치된 전시관을 향해 수직적으로 이동하며, 실제로 아크로폴리스에서 가져온 유물들과 만나게 된다. 또한, 전시장 최상층에 위치한 전시공간은 파르테논 평면의 크기를 실제로 재현하였고, 방향도 실제와

평행되게 배치하였다. 여기서 방문객들은 유리를 통해 보이는 실제 파르테논을 배경으로 유물들을 관람하게 된다(아래사진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최상층에 위치한 파르테논을 실제 스케일로 재현한 전시장). 박물관 전시동선은 여기서 끝이 나며 방문객들은 밖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야외 테라스에서 실제 파르테논의 모습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게 된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내부의 유적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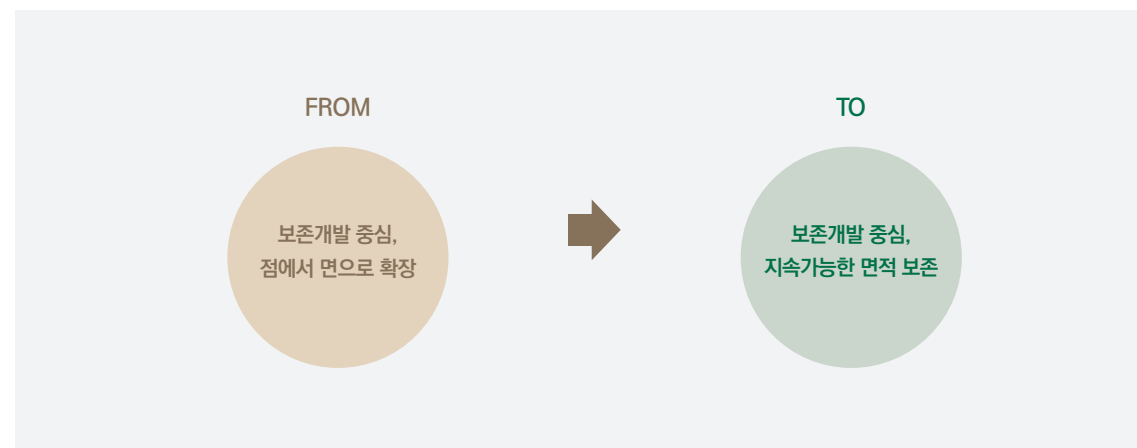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서 바라 본 파르테논 신전 전경

이상과 같이 피키오니스의 아크로폴리스의 프로젝트 그리고 추미의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프로젝트는 아크로폴리스와 이 주변지역을 경험하는 새로운 길들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파르테논을 향해 오른다는 행위는 비록 의미는 많이 바뀌었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식과 같은 행위이다. 이 두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현재에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고고학적 대지 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에 인위적인 개발의 손을 대는 것에 여전히 회의의 시각을 나타낸다. 다만 이 두 프로젝트의 경우 대지에 새롭게 접목된 길들을 통해서 파르테논을 포함한 이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고대의 유적들에 대한 경험의 폭이 넓혀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역사적 유적의 경우도 대지, 건축, 경험이 잘 어우러져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되고 정의될 때 그 의미가 더욱 증폭된다고 생각한다.

4 역사문화자원 활용 개념화

현대건축을 역사문화자원을 담고 있는 기념물에 통합하는 방법은 그것을 재사용하던, 확장을 하던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도미티크 롤라드(Dominique Rouillard)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과 프로젝트를 같이하는 것은 필요나 기회에 따라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 이론에 따라 개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접근방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루크 노펜(Luc Noppen)와 루시 모리셋(Lucie K. Morisset)은 '우리는 더 이상 역사를 복원하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사본으로 연결된다. 오히려, 역사적 해석을 구성하는 의미론적 자료에서 무엇을 복원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역사문화자원 및 기념물의 재사용의 방법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 활용의 개념화



이것은 모든 시대와 양식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결과 역사문화자원의 활용과 관련한 현상은 양식의 통일보다는 다양한 양식의 공존의 측면으로 고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설계경향은 역사도시경관의 권고를 적용하여 제안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역사도시경관이란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들이 역사적으로 중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시지역으로 그 범위를 지형, 역사와 현대를 포함하는 건조환경, 도시기반시설, 도시 공간, 토지 이용방식과 공간조직, 시각적 관계, 도시시설물을 포함한다. 권고문에 따르면 역사도시경관적 접근은 도시적 맥락을 이해하여 도시의 물리적 형태나 공간 구조, 자연환경, 사회문화적 가치들을 고려하는 보존과 개발을 염두에 둔 관리활용방식을 통합하는 접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관한 조사와 기록, 지역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계획,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파트너십 구축, 보존과 개발이 통합된 계획 수립을 다룬다.

샌안토니아 선언(1996)에서는 무형적 보존을 위해 조사와 기록을 근거로 한 기초 조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방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전략도 중요하다. 반면에서 비엔나 선언(2005)에서는 역사적이지 않고 현대적이지 않은 디자인의 방식을 강조하여 문화경관에서 간과했던 도시적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양상을 도시 전통의 일부로 인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다면 개발을 통한 오픈 스페이스와 현대건조물을 특성화로 브랜드화하여 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보존적 관념에서 확장된 개념이며 오히려 관리와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방법은 기념비적 성격을 갖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건물의 주제와 관련된 주변영역도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유산이 철거나 파괴로 훼손이 되면 역사지구로서의 이미지 자체도 사라지며, 반면에 문화유산의 주변이 근대자산과 맞지 않는 스케일과 형태의 건물로 채워진다면 역사성을 상실할 것이다.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건물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묶는 조닝의 설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즉,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는 영역을 묶어서 건물 한 채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문화유산과 관련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구역을 설정하여 활용해야 한다.

표2 개념화에 부합한 유형별 활용방식 분류

보존개발 중심, 점에서 면으로 확장	보존개발 중심, 지속가능한 면적 보존
• 벤자민 프랭클린 사저의 재생, 프랭클린 코트 역사문화자원의 무형적 요소를 활용한 스토리의 복원과 공공성의 이입 • 유적 복원과 스토리텔링을 위한 공공장소 필라델피아 대통령 관저 유적지 주변의 공공 광장으로서 재생 • 시간 흔적의 보존과 현재성의 통합,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 보존과 개발의 새로운 해석 시간, 남경 대보은사 흔적의 보존과 현재성의 통합 • 현재성에 입각한 역사문화자원의 변용 하셀트 대학교 법학부(UHasselt) 캠퍼스 내 공공 광장으로서 재생	• 보존과 개발의 맥락적 공존과 일상성의 유지 필라델피아 소사이어티 힐의 재생 • 문화재 주변의 공공장소로서 재생 아크로티리, 테라, 산토리니 • 과거 기억의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자원 활용 평화의 제단(Ara Pacis) 주변 공공광장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 역사문화자원과 현대 도시의 새로운 공공 역할, 아우구스투스의 영묘(MAUSOLEUM) • 과거의 기억 복원과 새로운 기념물 조성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유적 박물관의 건립을 통한 역사문화자원 활용 • 과거 기억의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자원 활용, 평화의 제단, 아우구스투스의 영묘

무형의 유적지는 복원보다는 그 사이트와 주변의 스토리와 결합한 공공성의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즉 완전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완전한 복원이 아닌 무형의 복원과 영역/흔적의 복원이 추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주변 역사지구에서 DNA 추출을 통한 문화영역에 따라서 보호권역을 설정하고 문화가 함축된 문화경관과 역사환경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은 등록문화재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관리기준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활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근대문화재에 지속가능한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소유자 및 관계단체 또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리 및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역사도시경관의 접근은 실존하는 원칙이나 보존방식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과 건조환경 보존의 결합을 위한 도구로 작동한다. 역사도시경관적 접근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시간의 중층성을 바닥레벨에 따른 시대 층위와 발굴유구를 가상해서 설정하고 건물의 상층부와 하층부가 연결될 수 있도록 파빌리온 설치 등 매력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라진 문화유산 유적지는 “무형의 복원을 통해서” 남아있거나 살아있는 문화유산은 “유형의 시간성 보존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유산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Tyler, N., Historic Preservation: an introduction to its history, principles, and practice. W. W. Norton & Company. 2000.
- Claudine Houbart, “Deconsecrating a Doctrinal Monument-Raymond M. Lemair {1921-1997} and the Revision of the Venice Charter”, Change Over Time vol.4 no 2,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4.
- Petzet, M. International principles of preservation. Monuments and Sites, 2009.
- lass, R., Introduction to London: Aspects of Change, London. Center for Urban Studies. MacGibbon & Kee. 1964.
- Julian Smith, “Marrying the Old with the New in Historic Urban Landscapes”, 『World Heritage Papers 27: Managing Historic Cities』, World Heritage Center. 2010.
- David, J., & Hammond, R. High Line: The inside story of New York City’s park in the sky. Farrar, Straus and Giroux. 2011.
- Juhani Pallasma, July “Question of Perception,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A+U July. 1994 Special Issue.
- 藤森照信, 汪坦, 全調査東アジア近代の都市と建築, 筑摩書房. 1996.
- 日本建築学会, 新版日本{近代建築総覧: 各地に遺る明治大正昭和の建物, 技法堂出版. 1994.
- 日本建築学会, 日本{近代建築総覧(追補), 建築雑誌(98.6), 日本建築学会. 1998.
- 유카 요킬레토, 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역사, 최병하 번역, 기문당. 2009,
- 조인숙, “고도와 문화풍경-독일 바이에른주 바트빈츠하임과 헤센주의 다름슈타트.” 夫餘學 (6호). 211-227.
- 김영재. “일상의 재생과 보존.” 건축 51, no. 5 (2007): 51-60.
- ____ 외 1인, “조선은행 해외지점의 설립배경과 건축적 의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6(9). 2010.
- ____, “역사도시의 가치평가를 통한 재생방안 연구”, 夫餘學 (6호). 2016, 271-318
- ____, “지속가능한 근대유산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활용전략.” 건축 62, no. 3 (2018): 63-68.
- ____, “역사도시 보존관리원칙의 국제적 동향과 주요쟁점”, 건축역사학회 월례회, 2018.09.

제 2 부

국내외 역사문화자원 활용 사례 조사



- I . 서론
- II . 국내사례
- III . 국외사례
- IV . 사례분석
- V . 결론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도시개발과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상충하는 가치의 문제가 점차 경쟁구도에서 상호 호혜적 발전관계로 이양되고 있다.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매장유산의 발견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문제는 도시개발을 규제하는 갈등요소로 작용하였으나, 문화유산 개념의 확대와 그것이 도시정체성에 담당하는 역할의 증대로 인해 점차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도시개발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의 문화유산 보호제도는 강력한 도시개발의 규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실무자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도시개발의 균형점을 시사하는 유의미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도시의 개발에 있어 유의미한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간의 국토개발사업의 사례를 보면,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프로세스 또는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부재하여 역사문화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아예 배제한 채 사업이 주도된 사례가 발견된다. 그러나 또다른 사례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개발에 유의미하게 적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체성을 개발사업 부지에 부여하는 등,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개발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이에 본 연구는 역사문화자원의 개념 및 정의와 그 유형 및 활용 방식에 대한 정리를 통해 그간의 사례연구를 종합하고 새로운 사례에 대한 분석적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문화유산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바, 매장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산업유산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을 역사문화자원의 잠정적 정의에 포함하도록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및 정의를 검토한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의 유형을 재구성하여 도시개발과 관련된 유형구분을 통해 그 유형별 활용방식을 정리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토지개발사업지구 중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거나 활용한 사례로 한다. 이에 대한 행정상의 서류 및 관련 보고서 등 문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사례를 1차로 추출하고, 이에 대한 목록화를 실시한 뒤 그 중 시사점이 큰 대상을 2차로 추출하여 사례연구의 심화조사대상으로 채택하도록 한다. 이후 도시개발, 공공주택,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의 유형별 역사문화자원의 활용방식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목록화를 통해 개발유형별 역사문화자원 활용 실태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토지개발 관련 사례연구를 종합 정리하고,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토지개발의 유형구분법, 역사문화자원의 개념설정, 주요 연구방법론 등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후 목록화를 통해 도출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사례 중 시사점이 강한 우수사례 또는 주요사례를 선정하여 자료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심화분석을 실시하여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과정과 그 결과를 상세히 기록 및 분석하도록 한다.

국외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사례 수집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표적인 국외 도시에 대한 사례조사로 한정하도록 하며, 국내 사례 검토 프로세스에 준하는 과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외 도시개발 프로세스는 국내의 택지개발 또는 주택단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신규개발 내지는 재개발에 해당하는 개발 프로세스와는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도시개발뿐만 아니라 도시정비, 가로정비, 경관정비 등에 있어 역사문화자원을 유의미하게 활용한 저명한 사례 또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도시 조성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에 대한 심층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Ⅱ 국내사례



1 부산 정관 지구

1.1 개발사업 개요

정관신도시는 부산광역시 광역도시계획의 일환으로 9개 교외전원도시 중 하나로서 개발계획이 진행되었다.¹⁵⁵ 지표조사를 통해 126만평 사업부지 내에서 6개소의 시굴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방곡리유적, 가동유적을 포함한 3개소를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조사결과 청동기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 및 유물들이 발굴되었으며, 기장지역 고고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발견이다.

정관신도시 내에서 대규모 유적이 발견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에 정관박물관을 조성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건립 기증되어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¹⁵⁵ 부산광역시, 2009.5.13.,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http://www.busan.go.kr/build/agora0702>)

표1 부산 정관 신도시 조성사업 개요

계획도	사업개요
	• 사업명 : 부산 정관 신도시 조성사업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일원 • 면적 : 13,750,000㎡
사업연혁	
1997.11	정관택지개발 지정고시
2000.2	문화재 지표조사(북천박물관)
2002.5~2002.9	문화재 시굴조사 수행(울산대학교박물관)
2003.4	조성공사 착공
2003.5~2005.9	문화재 발굴조사 수행(울산대학교박물관)
2007.11	사업준공
2008.9	사업완료
2011.7	정관박물관 건축공사 착공
2015.1	정관박물관 개관

1.2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현황

시굴조사(2002.5.13.~2002.9.9.)에 따라 4개 지점에서 문화재 발굴조사(2003.5.1.~2005.9.21.)를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지역은 방곡리유적 가지구, 나지구, 그리고 가동유적이다. 유적은 해발 300~500m 높이의 산에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한다. 중앙으로 큰 하천이 있어 하천 주변으로 충적지가 조성되었으며 선사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발굴되었다. 이는 알려지지 않았던 정관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표2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1) 방곡리 유적

방곡리유적은 발굴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6동, 삼한시대 목관묘 11기, 토광묘 6기, 옹관묘 10기, 삼국시대 목관, 석실(곽)묘 11기, 화장묘 1기, 요지 1기, 고려·조선시대 묘 197기, 묘막지 10기, 노지 10기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도류 189점, 옥석류 60점, 금속류 733점이 출토되었다.

발굴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들은 경사면에 위치하여 대부분 삭평되어 원형이 훼손된 상태였기에 더 많은 주거지가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주거지 유구들 중 한 면의 길이가 15m 이상의 대형주거지가 있었으며 공방이나 집회를 위한 공동시설이었으리라 추측된다. 삼한시대 분묘유구의 경우 조사대상지 내에서 일부 공간에서만 발굴되었다. 이외에 고려·조선시대 민묘는 유적 전체에 걸쳐 조사되었다.¹⁵⁶

2) 가동유적

가동유적은 청동기시대~조선시대까지의 다양한 유구들이 조사된 복합유적이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5동, 삼국시대 주거지 158동, 굴립주건물지 75동 및 저수지, 석실묘 18기, 기타 유구 57기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도류 225점, 금속류 36점 등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굴립주건물지와 저습지는 5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굴립주건물은 고대의 저장창고로 알려져 있다. 가동유적에서는 전형적인 9주식 굴립주건물지 이외에도 다양한 형식의 굴립주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일부 건물지는 당시 사용한 나무기둥이 기둥구멍에 박힌 채 발견되어 수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굴립주건물지는 삼국시대 주거지와 별개의 공간에 위치한다. 이는 당시에 주거지와 저장공간이 분리되어 유지되었으며, 마을 공동의 저장공간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유추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¹⁵⁷

156 울산대학교 박물관, 2007, 『부산 정관신도시 개발지구내 유적 기장 방곡리유적』.

157 울산대학교 박물관, 2008, 『부산 정관신도시 개발지구내 유적 기장 가동유적 I』.

1.3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식

사업부지 내 유적을 대상으로 진행된 발굴조사(2003.5.1.~2005.9.21.) 결과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연대의 유구 및 유물이 발굴되었다. 문화재위원회는 발굴된 유구 및 유물을 한 곳에 모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협의 하에 정관박물관을 건립 기증에 따른 관리운영방침을 결정(2006.10)하였으며, 2015년에 정관박물관을 개관하였다.

1.4 역사문화자원 관리 현황



정관박물관 전경(부산시청 홈페이지)



야외 전시장 전경(뉴스핌)

정관박물관은 약 990㎡ 규모의 상설전시실, 230㎡ 규모의 기획전시실, 야외 전시장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내부 전시실에는 방곡리유적, 가동유적에서 발굴된 마을유적 외에 기장읍 청강·대라리, 철마면 고촌 유적 등 기장지역에서 발굴된 생활유물들을 전시하여 과거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야외 전시장에는 삼국시대 주거지를 재현하였다. 사업지구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이외에도 ‘소두방의 기억’ 전시실을 통해 과거 정관의 경관과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야외 전시장에는 삼국시대 주거지를 재현하여 과거 주거생활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 시사점

부산 정관지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행된 택지개발사업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단계에서 주요 역사문화자원이 발견되어 이후 개발사업에 반영, 박물관 조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한 도시개발로서 시사적이다.

택지개발사업은 단순히 문화재 보존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매장문화재를 적극 활용할 경우 해당 유적의 보존 및 관리를 유도하여 관람객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 근린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용인 동백 택지지구

2.1 개발사업 개요

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은 수도권 일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취지에서 21세기 거주환경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쾌적한 환경의 신시가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서 향후 신시가지 개발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발사업 당시 사업지구의 넓은 범위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유적이 발굴되었으며, 유적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민들에게 전시·체험 제공을 위하여 시립으로 문화유적전시관을 설립·운영한 사례이다. 발굴조사 당시 출토된 유물은 지역사와 더불어 실내 공간에서 전시중이며 발굴된 유구는 이전복원을 통해 실외 공간에 전시 공간을 두었다. 개발사업 당시 발견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보존 및 활용 사례의 비교적 이른 예시로서 시사적이다.

표3 용인 동백 택지지구 사업 개요

위치도	사업개요
	• 사업명 : 용인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동백리, 중리 일원 • 면적 : 3,284,420.1㎡
사업연혁	
1997.2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건교부고시 제 1997-68호)
1998.2.	용인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착수
1999.10.	용인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 신청

사업연혁	
1999.12.	용인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1999-510호)
2002.1.	문화재 시굴조사 실시(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3.	환경평가 협의 완료
2002.7.	문화재 발굴조사 시행(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10.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2002.10.	공사착공
2004.11.	협의내용변경계획서 협의완료(신도시개발지원단-6804)
2006.11.	최종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2006.12.	사업준공(1단계)
2009.6.	사업준공(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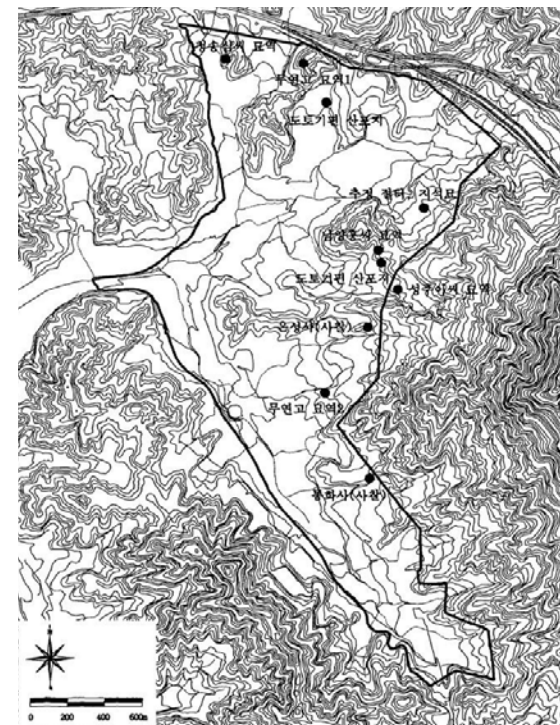
2.2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현황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항목에서의 지표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묘역, 도토기편 산포지, 산신제 유적 및 절터·지석묘로 추정되는 유적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시행 전 조사단의 견해를 반영하여 훼손·방치 등으로 인한 문화유적 손실을 피할 것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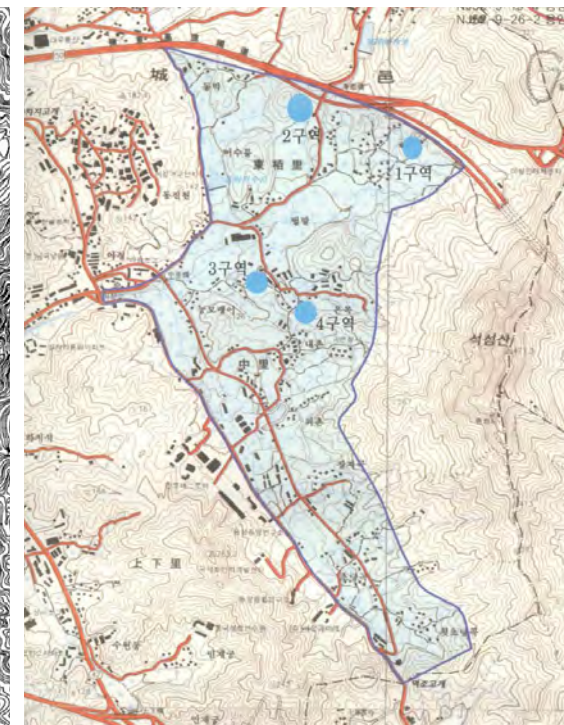
이에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사찰 2개소 통화사(관음사), 은성사는 사업완료 후 존치토록 계획하였고,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발굴 시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매장문화재 평가 및 보존절차 등 관련규정에 의거 발굴·보존함으로써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한다는 저감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문화재 시굴조사(2002.1.29.~2002.6.10.) 결과에 의거, 4개 지점에서 문화재 발굴조사(2002.7.29.~2004.2.14.)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유구 77기와 유물 4천여 점을 확인하였다.

1차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는 석실분 1기, 토광묘 19기, 가마 19기(도기가마 14기, 기와가마 3기, 탄요 2기), 수혈유구 및 기타유구 5기로 총 44기이다. 유물은 여러면 석기, 몸돌, 격지 등의 구석기와 회청색 경질도기(호형), 백자 등이 출토 되었다. 이어 2차 발굴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문화층과 역사시대의 수혈유구 7기, 토광묘 10기, 탄요 5기, 회곽묘 8기, 기타유구 3기로 총 3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굽개·밀개·흙날·몸돌·격지 등의 구석기와 회청색 경질도기(호형), 백자 등이 출토되었으며, 3차 발굴조사 결과, 3개의 구석기시대 문화층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찰개·굽개·밀개·흙날·모루돌·몸돌·격지 등의 구석기시대 편석기가 출토되었다.



동백지구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문화유적 분포도



동백지구 발굴조사지역 위치 및 지형도

1) 석실분

용인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석실분은 횡구식 석실분 1기가 조사되었다. 횡구식 석실분은 조사지역 내에서 가장 북동쪽에 위치하며, 1차 시굴조사 당시 폐고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석실분의 축조시기는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이 없고, 조사구역에서 확인된 석실분이 단 1기에 한정되어 있어 축조시기를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근에 보정리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고, 신갈-수지 도로구간 내 발굴조사와 축전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대에 축조되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석실분이 확인되었으며, 이 석실분들과 축조방법 등과 형태에 있어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이를 고려해 볼 때 통일신라시대 축조된 석실분일 가능성이 높으나 향후 상한이 삼국시대말까지 소급될 가능성도 있다.

2) 기와가마

용인 동백지구에서 조사된 기와가마는 I 구역에서 2기, IV구역 III지점에서 1기 등 모두 3기의 기와가마가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축조방식은 지하식이며,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용인 동백지구에서 확인된

기와가마의 양상을 살펴보면, 요전부에 퇴적되거나 폐기된 범위가 넓지 않다. 이를 통해 볼 때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토광묘·회곽묘

용인시 동백지구 시·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광묘는 조선시대 이후에 조영된 것으로 I 구역에서 1기, II 구역에서 8기와 회곽묘 5기, III 구역에서 1기, IV 구역에서 19기로 모두 34기의 토광묘와 회곽묘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토광묘를 굴광방식과 벽감시설의 유무를 기준으로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순수 토광묘는 16기, 2단 토광묘는 7기, 내부에 벽감시설을 갖추고 있는 토광묘는 4기이다.

4) 탄요

탄요는 일반적으로 제탄과정의 차이에 따라 백탄요와 흑탄요로 구분되며, 백탄요는 주로 고대에 확인되고 흑탄요는 근세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용인 동백지구에서 조사된 탄요는 총 8기인데, III 구역에서 4기, IV 구역에서 4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이 명확하지 않으며, 평면형태 및 구조에 따라 그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으나, 17세기에서 18세기경에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5) 수혈유구

본 조사구역에서 확인된 수혈유구는 모두 10기로 II 구역에서 1기, III 구역에서 7기, IV 구역 2지점에서 2기가 조사되었다.

6) 도기가마

용인 동백지구에서 조사된 도기가마는 IV 구역의 1지점에서 4기, 3지점에서 9기, 4지점에서 1기 등 모두 14기가 조사되었다. 가마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 또는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단면형태는 천정부가 유실되었으나 터널형으로 추정된다. 폐기장의 퇴적양상을 통해 볼 때, 폐기장의 층위가 여러 층에 걸쳐 다양하게 퇴적되어 있지 않고, 폐기장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이 시기적인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에 가마의 조업 활동은 장시간에 걸쳐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사된 도기가마 중 학술적 가치가 높고 잔존상태가 양호한 IV 구역의 3지점-8호와 4지점-1호의 도기가마는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제기되었으며, 지도위원회의 등 최종적인 검토에서 도기가마 2기는 축소모형으로 제작하여 추후 건립될 전시관에 전시·활용하기로 결정되었다.

표4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설계 변경	준공
			○/◎				◎		

2.3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식

2002년 1월 29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동백택지개발사업지구 시·발굴조사를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에서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확인된 구석기 문화층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후 유적전시관을 건립하여 이전·복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조치를 통보하였다.

2차 발굴조사에서 2차 지도위원회와 조사단은 추가발굴조사 완료 후 전시관에 이전복원 할 구석기유적에 대한 교육적인 자료(3개 문화층에 대한 토층전사와 평면적인 전사 이전 및 Block Sampling:실내전시용)를 확보한 다음 공사가 이루어져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차 지도위원회 의견에 따르면, 중요유구에 대한 이전복원 예정부지는 당초 시행처에서 대부분 원형보존지역(근린공원 예정지)인 2구역(무연고 남양홍씨묘역)이 적임지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2구역의 경우 사업지구 내에서 가장자리에 치우친 입지로 인해 부적합하며, 조사단과 협의하여 이전장소로써 가장 적합한 장소(지구 내 중앙부의 근린공원부지)를 다시 선정하기로 하였다.

4차 지도위원회의 조사단 의견을 살펴보면, 구석기유적의 사후처리는 전시관 건립의 전제하에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이며, 시행처에서는 전시관 건립에 대해 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전시관의 부지선정, 전시형태, 소요경비, 그리고 향후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종합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시관 내에 전시될 구석기문화층의 전시물은 실제 조사된 유적의 토층을 이전·전시 및 석기의 복제 등을 통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적인 방향으로 계획 및 진행되도록 시행처와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2002년 10월 23일 전시관 부지를 확정하였고, 2004년 7월 9일 동백지구 문화유적전시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 5회의 회의 과정을 거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유적전시관 건립의 기본 방향을 협의하였다. 건설은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운영 및 관리는 용인시가 담당하기로 결정되었고, 2005년 9월 26일 실무위원회 구성 및 개최하였다. 2006년 3월 27일부터 2006년 7월 14일까지 현상설계 공모 및 당선작을 확정하였고, 2007년 2월 16일에 건축허가가 났으며, 2007년 9월 18일 공사에 착공하였다.



용인문화유적전시관(현 용인시박물관)(용인시)

2009년 5월 29일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9년 8월 7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거쳐 2009년 11월 13일 개관하였다.

전시관은 용인 동백택지개발지구, 임진산성, 수지 백제주거지 등에서 나온 출토품과 향토자료관으로부터 이관된 천여 점의 유물이 소장되어있다. 이를 기반으로 선사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 상설 전시되어 있어 시대별 특징을 알 수 있으며, 역사인물실에서는 용인과 관련된 역사, 인물, 유적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유물을 만날 수 있어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시되어 있다.

전시 외에도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용인 동백유적의 석실분, 석곽묘, 구석기 문화층과 용인마북동 유적의 취락지 시설 등이 야외전시실에 이전되어 복원되었고, 3층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발굴체험실과 문화, 역사에 관한 학습도서 및 영상물이 어린이체험실에 마련되어있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어린이, 가족, 학교 및 유야단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진행 중이며, 매년 특별전을 개최해 새로운 유물이 전시된다.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의 건물 형태는 지하1층 지상3층이고, 대지면적 3,282㎡에 건축면적 1,317.46㎡으로 연면적 2,970.16㎡의 규모이다. 전시면적은 767.43㎡이고, 주요 전시물 내용과 현황은 석기, 도자기, 민속공예품 등 천여 점과 돌덧널무덤, 돌방무덤, 집자리 등 이전·복원유구 7기 등이다.

2.4 역사문화자원 관리 현황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은 3개 층의 전시공간과 야외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기획전시실, 기증실,

아카이브실, 2층은 역사문화실, 역사인물실, 다목적실, 문화교육실, 3층은 어린이 놀이공간과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외전시장에는 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돌방무덤, 집자리유구, 돌덧널무덤, 구덩이유구, 우물 유구가 이전복원되어 전시 중에 있다.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은 현재 용인시 박물관으로 확장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단순히 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전시 기능 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은 근린공원 내 입지하였다.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은 토지이용계획도 상 지구 한 가운데 입지하고 있으며, 동백지구 성산마을 능모령이 경관축의 자락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백도서관 맞은편에 건립되었다. 주변 여건 상 양호한 입지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지형 상 용인문화유적전시관과 동백도서관의 가운데를 지나는 동백3로는 이 시설에서 최고점에 이른다. 또한 능모령이 경관축은 석성산 자락에서 이어지는 녹지 흐름이며 이는 산책로 등 실제로 동선축으로 활용되는 녹지가 아닌 자연의 흐름을 연결하는 녹지로 계획되었다.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펼쳐져있는 대부분의 생활·문화시설과 분리되어 있어 사실상 실제 주민의 도보 생활권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입지를 가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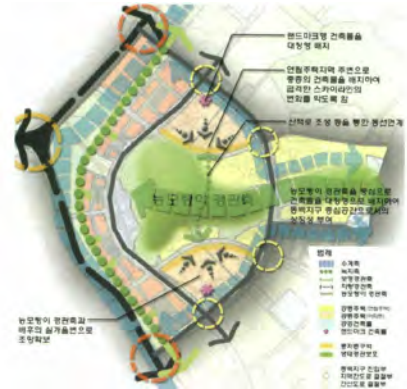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는 그 존재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주체로부터의 수용으로서 완성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역사문화자원의 중요성이나 그 보존 방식의 우수성과는 별개로 역사문화자원이 지역의 정체성의 형성과 존속, 계승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이러한 자원에 대한 수용이 특별한 체험이기보다는 동선상, 기능상 등 지역민의 일상생활에 녹아들 수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용인문화유적전시관 내부(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야외전시장(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입지(용인동백지구 경관형성계획, 2002)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은 사실상 초기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부지 선정 상 기존 시설에 밀려 차후 유류 부지를 할애해 배치된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5 시사점

동백지구의 역사문화자원은 대부분 개발사업 중 시행된 발굴조사 당시 확인된 유물과 유구 등 매장문화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문화재의 보존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전시관을 건립하여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보존 및 관리·활용 방안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은 현재 그 규모 및 기능이 확장되어 용인시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문화자원 활용 시설은 동백지구의 사례와 같이 매장 유구 등 사업 초기에 드러나지 않은 역사문화자원의 존재에 의해 추후 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적 맥락에 유기적·연속적이지 않은 어색한 입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동백지구의 유적 전시관은 개발사업 중 발굴된 역사문화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사례이나, 이러한 자원이 전시 관람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서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어려운 동선상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 판단된다.

3 성남 판교 개발지구

3.1 개요

성남 판교지구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하산운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 수정구 사송동, 금토동 일원을 포함한다. 사업 대지면적은 9,294,326㎡로, 29,265가구 87,795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었다. 성남 판교지구 시·발굴조사 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삼국~조선시대 수혈유구, 건물지, 가마, 분묘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사업지구 내 유적에서 발굴된 유구 및 유물들은 판교박물관으로 이장되어 전시 중이다. 그 중 특히 한성백제시대 분묘유구 9기 및 고구려 석실분 2기를 박물관 내 전시장으로 이전복원되었다.

표5 성남 판교 택지지구 사업 개요

계획도	사업개요
	• 사업명 : 성남 판교 택지개발사업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하산운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 수정구 사송동, 금토동 일원 • 면적 : 9,294,326㎡
사업연혁	
2001.1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03.12.	택지개발계획 승인
2004.12.	택지개발계획변경(1차) 및 실시계획 승인
2005.05.	택지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2005.06.	공사 착공
2005.09.	택지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2005.11.	택지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2005.12.~2008.05.	1차 문화재 발굴조사 수행(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6.01.~2007.06.	2차 문화재 발굴조사 수행(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6.03.	택지개발계획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2006.06.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사업연혁	
2006.08.	택지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2007.01.	택지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2009.12.	1단계 준공
2011.12.	2단계 준공

3.2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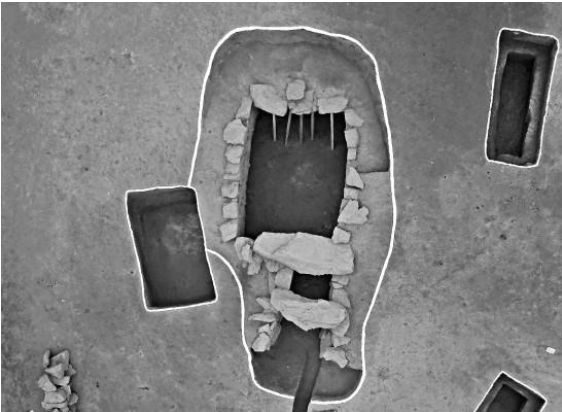
1) 판교동유적 7·9·11구역

성남 판교지구 1차 발굴조사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서판교의 7·9·11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시굴조사를 통해 추가발굴이 필요하다 판단된 구역을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했고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0동, 고려~조선시대 주거지, 건물지, 온돌, 수혈, 분묘, 가마, 부석유구, 용도미상유구 등 278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9구역 담장건물지 유구에서 철마가 13점 출토되었으며 이외에 청자잔, 접시, 기와 등 고려 중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고려시대 제사 및 의식 관련 시설로 추정된다.

2) 판교동유적 10·12·13·16·18·19·22구역

성남판교지구 2차 발굴조사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 2005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0·12·13·16·18·19·22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신석기~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조선시대 분묘유구 740여기, 건물지, 가마, 온돌, 소성유구, 수혈유구, 집석유구, 매납유구 등이 조사되었고 고려말~



백제 횡혈식 석실분(한국문화재보호재단)



고구려 횡혈식 석실분(한국문화재보호재단)

조선초기로 추정되는 건물지에서 금동비로자나불상과 금동보살상, 금동 소탑 등이 출토되었다.

발굴된 유구들 중 한성백제시대 횡혈식 석실분이 9기 확인되었다. 9기의 유구는 한 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유구 내에서 금·은제 장신구, 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석실분의 구조,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4세기 후반~5세기 후반에 조성된 상류층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백제의 분묘유구 외에도 고구려 횡혈식 석실분 2기가 확인되었다. 모줄임 천장구조, 바닥의 불다짐 등 다른 지역의 고구려 고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확인되며, 축조시기와 주체를 알 수 있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백제식 무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타지역 고구려 고분과 유사성을 보여 고구려의 영역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¹⁵⁸

표6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3.3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식

성남 판교지구에서 발굴된 삼국시대 석실분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구로서 발굴조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와 관련된 토론을 가졌다. 성남 판교지구 문화유적 2차 발굴조사의 6차 지도위원회(2008.1.22.)에서는 이전까지의 발굴성과를 토대로 발굴조사 완료 후 조사 지역의 처리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문화재청의 방침은 가능한 원형 그대로 현장보존이었으나 판교신도시 건설안 자체에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했으며, 보존 이후 관리상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LH 간의 타협을 통해 삼국시대 석실분 에 대한 이전복원이 결정되었다. 사업지구 내에 역사공원을 만들고 공원 내에 박물관을 지어 보존하는 계획이었다. LH는 10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분당구 판교동 499 일원에 판교역사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에 판교박물관을 건립했다. 판교동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을 이장하였고, 백제·고구려 횡혈식 석실분을 이전복원하였다.

15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0, 『성남 판교동유적 I』.

3.4 역사문화자원 관리 현황 및 시사점



3호 백제 석실분 9호 백제 석실분 자료 : 저자 촬영

삼국시대 황혈식 석실분은 박물관 내부 전시관으로 이전복원되거나(위 사진 3호, 9호), 공원 내부에 현지보존(위 사진 5호)되었다. 관람객들은 실물 그대로의 고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판교박물관과 같이 발굴된 유구를 이전복원한 사례는 적지 않다. 김해 대성동 고분박물관, 부산 동래 복천박물관, 고령 대가야 박물관 등 발굴 고분을 전시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모형이거나, 이전 과정에서 부재들을 해체하여 조립하는 과정에서 발굴당시 모습이 훼손되었다. 판교박물관은 다른 사례들과 다르게 중장비를 동원하여 고분을 흙과 함께 파내어 이전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이전복원 사례이다.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그 자체가 파괴이나, 판교동 유적은 현실적인 여건 상 유적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판교박물관은 최선은 아니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장 발굴당시 모습 그대로를 보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시흥 능곡 택지지구

4.1 개발사업 개요

시흥능곡지구는 택지개발지구로 수도권지역 주택난해소 및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공석동 일원을 포함한다. 사업 대지면적은 984,569㎡로, 5,755가구 17,265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었다. 시흥 능곡지구 시굴조사(2004.10.15.~2006.4.18.)결과 발견된 4개 주요지점에 대해 실시한 발굴조사(2006.4.19.~2007.10.10.) 결과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통일신라시대 석실묘, 조선시대 주거지, 조선시대 이후 생활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시흥 능곡지구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지구 내 녹지공간을 계획했다. 그러나 발굴조사에 의해 신석기시대 주거지 유적이 발굴됨에 따라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했다.

표7 시흥 능곡 택지지구 사업 개요

계획도	사업개요
	• 사업명 : 시흥 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공석동 일원 • 면적 : 984,569㎡
사업연혁	
2003.11	택지개발계획 승인(건교부 고시 제2003-300호)
2003.4~2003.6	문화재 지표조사(기전문화재연구원)
2004.07	시흥 능곡지구 경관형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04.10~2007.10	시흥 능곡지구 문화재시·발굴조사 수행(기전문화재연구원)
2004.11	시흥 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건교부고시 제2004-313호)
2004.07	환경평가 협의 완료
2005.02	공사착공
2009.1	사업준공(1단계)
2009.6	사업준공(2단계)
2011.6	최종사업 준공(국토부 고시 제2009-1246호)

4.2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현황

시흥 능곡택지개발지구는 해발 100m 내의 저평한 구릉이 연속하여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에 유리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조선시대의 다양한 유구들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신석기시대 주거지 24기가 발굴되어 내륙지역 신석기시대 취락 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한다.

표8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1) 신석기시대 주거지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1지점 내 능선 상단에 동-서로 길게 조성되어있다. 총 24기의 주거지가 유구 간 겹침이 없으며, 한 변이 450~500cm 내외의 비교적 대형 주거지는 정상부에 위치한다. 450cm 미만 규모의 주거지는 능선 남사면과 동쪽에 분포하고, 300cm 내외의 소형 3동은 동쪽 경사면에 위치한다. 출토되는 토기와 석기를 토대로 파악했을 때 24기의 주거지는 거의 동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청동기시대 유구

청동기시대 유구는 주거지 7기와 수혈 2기가 확인되었다. 1지점 구릉 정상부에 신석기시대 주거지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며, 주거지 간의 겹침은 없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장방형이나 세장방형 1기, 소형 방형 1기 또한 확인되었다.

수혈은 내부 바닥에 별다른 시설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노지가 확인되었다. 수혈에서는 소량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3) 삼국~통일신라시대 석실묘

삼국~통일신라시대 석실묘는 1지점 경사면의 상단과 하단에서 총 6기 확인되었다. 석실묘에서 출토된 유물과 묘의 구조를 분석했을 때 1·2호 석실묘는 5세기 중엽 백제 횡혈식석실묘, 4·5·6호는 7세기 말 통일신라 횡구식석실묘이다. 3호 석실묘는 유구 상태가 좋지 않으나 남아있는 구조를 보아 백제석실묘로 추정된다.

4) 조선시대 유구

조선시대 유구는 발굴조사지역 5개 지역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 4기, 수혈 8기, 묘 87기, 석렬

2기, 구들 1기, 소성유구 1기, 적석유구 1기, 기와가마 1기, 노지 4기 등 총 109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지역에서는 도기, 자기, 기와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¹⁵⁹

4.3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식



시흥 능곡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용지 초기 계획



시흥 능곡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용지 변경 후 계획

시흥 능곡지구는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컨셉으로 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이 제출(2004.7.15.)한 경관형성계획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용지 구역의 토지계획은 위 사진과 같았다. 그러나 시굴 및 발굴조사 과정에서 학술적 가치가 큰 선사시대 주거지 유적이 발굴되었고, 이후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시흥능곡선사유적공원을 추가하였다.

발굴조사 1지점에서 확인된 선사시대 주거지유적에 대해 14기의 신석기시대 주거지 및 3기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경화 및 충전·복토작업을 실시하여 원형보존하였다. 터널공사 지점에 위치한 10기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터널공사 완료 후 지형을 복원하여 4·5·6·7호 4기는 신석기시대 주거지를 원형재현하였고, 2·9호 2기는 주거지터 재현, 나머지 4기의 주거지는 위치를 표시하고 기록보존 하였다.

4.4 역사문화자원 관리 현황

능곡선사유적공원은 시흥 능곡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능곡초등학교,

159 기호문화재연구원, 2010, 『시흥 능곡동유적』.



주거복원



주거지 보존



주거지 터 재현 보존각



주거지 터 재현 보존각 내부

자료 : 저자 촬영

승지초등학교와 가까이 있고 아파트단지도 인근에 자리하여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시흥능곡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나 주차공간이 없어 타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은 불편함이 있다.

능곡선사유적공원은 주거복원 4기, 주거지 터 재현 2기, 유구 기록 보존 4기, 주거지 보존 14기 및 기타 편의시설로 구성되어있다. 주거복원은 신석기시대 움집 외관을 복원하였고, 주거지 터 재현은 주거지 내부 모습을 재현하여 공원 이용자들이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거지 보존은 주거지 유구를 회양목으로 구분하여 직관적으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4.5 시사점

시흥 능곡 택지지구 개발 사례는 착공 이전 시굴 및 발굴조사 단계에서 주요한 매장문화재가 검출되어 이후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역사유적공원을 설치한 사례로, 경관계획은 실시되었으나 실제 착공 이전에

검출된 역사문화자원의 경우 개발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재 주거지 일부는 보존되었고, 일부는 복원되거나 공원의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되어 공원 조성에 활용되었다. 주택지 인근의 근린 공원으로서 주민에게 매력도가 높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5 김해 율하 택지지구

5.1 개발사업 개요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관동리 일원 지역에 면적 1,911,731.6m², 수용인구 39,480인, 수용세대 13,160세대 규모로 조성되었다. 인접하는 도시로부터 계속되는 인구 유입의 증가를 해소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건설로 쾌적하고 차별화된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여 1999년 장유도시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에 따른 율하지구가 관동소생활권 계획에 포함되었다. 이곳 지세는 서고동저, 북에서 중앙으로, 남에서 중앙으로 경사가 형성된 지형으로 최고 표고차가 47.8m이며 대체로 완경사의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 전체를 소생활권으로 묶어 율하천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2개의 근린생활권을 형성하고 주택, 상업, 공공시설 용도로 나누어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였다.¹⁶⁰ 2001년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회청색 경질토기, 지석묘, 고분군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발견되었다. 지표조사를 토대로 2004년에 단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으로 2005년에 구역을 나누어 정밀 발굴조사 및 추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160 한국토지공사, 2004,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보고서』.

표9 김해 율하 택지지구 사업 개요

위치도	사업개요
	• 사업명 :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관동리 일원 • 면적 : 1,911,731.6㎡
사업연혁	
1998.10.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2001.12.	택지개발 기본계획 승인신청
2001.	단지개발 예정지구 지표조사
2002.10.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2003.12.	실시계획 승인
2004.	단지개발 예정지구 시굴조사
2004.	공사 착공
2005.05.	I 지구 발굴조사 시작
2005.06.	II 지구 발굴조사 시작
2006.05.	추가편입지 발굴조사 시작
2006.08.	추가편입지 발굴조사 완료
2006.12.	I 지구 발굴조사 완료
2007.12.	II 지구 발굴조사 완료
2008.06.	실시계획 변경
2008.07.	준공

5.2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현황

김해 율하리 유적은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가 시행하는 김해 율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2001년 동아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구역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율하천을 기준으로 남동쪽 구역인 I 지구는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북서쪽 구역인 II 지구는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각각 조사를 진행하였다.



1) 택지개발사업지구 I 지구

율하천을 기준으로 남동쪽 구역인 I 지구의 모두 6개 구역(A~F)에서 청동기시대를 분묘를 포함한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및 민묘 등 시대와 종류를 달리하는 다수의 유구가 발견되었다. 발굴조사 도중 1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정부지 외곽의 도로 법면부분이 사업구역에 추가로 편입되어 2006년 5월 22일부터 2006년 8월 22일까지 추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구역 중 A2구역 위 북쪽 유구들이 발굴구역을 벗어나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이 확장구역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를 2006년 8월 3일에서 2006년 12월 19일까지 실시하였다.

이 곳 유적지에서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의 분묘 106기, 주거지 52기, 수혈 31, 굴립주 건물지 7기, 구상유구 1기가 있으며, 삼국시대의 분묘 6기와 고려·조선시대의 건물지 7동, 분묘 146기, 수혈주거지 2동 등이 확인되었다.

조사된 청동기시대 분묘들의 특징으로 입지와 배치상태의 차이, 대형분의 축조, 다단묘광과 다중개석의 사용, 원형 또는 (장)방형 묘역을 가진 유구의 연접조성, 다양한 하부구조 등이 나타난다. A구역에서는 청동기 시대 분묘들만 확인되었다는 점과, B구역에서 확인된 ‘숫대’로 추정되는 B-14호를 경계로 주거지군과 묘역군이 분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에 주거공간과 무덤공간이 뚜렷이 구분되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묘역 B-4~6호분과 묘광 A1~11, A2-2, A2-19호분들처럼 대형분의 축조는 유력 개인의 등장을 암시하며 수장급 무덤의 발생과 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밖에 고려·조선시대 분묘들의 관찰을 통하여 이 시기에 관련된 생활사와 지역사 연구에 많은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1-11호분 전경



A2-2호분 전경



B-5호분 조선시대 분묘 전경



B-14호 전경(추정 숯대)

자료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6)

출토유물 현황을 살펴보면 청동검, 청동합, 청동수저, 철정, 엽전 등 금속류 243점을 비롯한 토기, 자기, 기와류 등 138점과 석검, 석초, 석기류 등 63점 및 관옥, 구슬 등 기타 6점이 확인되었다.¹⁶¹

추가편입 지역인 D1 및 F1구역은 발굴조사 계획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으로, 사업지구의 동남쪽 일주도로의 도로법면부에 접해있다. 추가 편입 부분에 대한 지표조사 2005년 12월에 실시되었고,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6년 5월 22일부터 2006년 8월 22일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D1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6동과 굴림주 건물지 3동,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민묘 2기가 확인되었다. 면적에 비해 유구의 수가 매우 적는데 이는 경사를 이루는 구릉에 입지하여 후대의 기나긴 경작으로 인한 삭평이 이루어져 유구의 대부분이 훼손되어 파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F1구역에서는 자연적인 삭평과 민묘 조성 등의 인위적인 삭평으로 유구가 확인되지 못하였다.

¹⁶¹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 『김해 율하 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I 지구 발굴조사』.

출토유물 목록을 살펴보면 석촉 등 석재류 3점, 방추차 토재류 1점, 무문토기 저부 외 무문토기편류 등 토기류 7점, 청동 숟가락 금속류 1점으로 총 12점이 확인되었다.¹⁶²

2) 택지개발사업지구 II 지구

경남고고학연구소는 2005년 6월 3일부터 2007년 12월 28일까지 김해 율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율하천을 기준으로 북서쪽인 II 지구 내 관동리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지류인 율하천 부근 습지에서 5세기 초중엽 가야시대의 선착장 부재를 비롯하여 건물지와 도로 유구를 발견하였다. 잔교 유적은 펄층에 다릿박을 박고 물에서 24m 가량 강쪽으로 튀어나온 막대 모양의 접안용 구조물로서 오늘날 잔교와 별 차이가 없는 고난도 공법의 시설물로 가야시대 교통사와 토목사 연구에 요긴한 자료로 평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확인된 남북방향의 도로는 노면에 공자갈을 깔아 지반 침하를 방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레바퀴 흔적으로 보이는 10~15cm가량의 홈이 길게 파여 있는 모습도 드러났다. 연구소는 수레바퀴 홈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삼국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구 건물지에 인접한 곳에서 발견된 우물은 돌을 둥글게 쌓아 올려 만든 형태를 띠고 있으며, 우물 안에서 삼국시대 도질토기편이 다수 발견되었다. 연구소는 이곳 건물지 등이 말을 갈아타던 곳이며, 도로와 다리를 관리하던 곳으로 추정하였다.¹⁶³



가야시대 선착장의 잔교시설



선착장 배후 지역에서 발견된 도로 모습

자료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6)

¹⁶²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 『김해 율하 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추가편입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¹⁶³ 한겨레, 2006.01.04. (<http://www.hani.co.kr/kisa/section-005006000/2006/01/005006000200601040637909.html>), 연합뉴스, 2006.03.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235068>)

표10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	◎	◎					

5.3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식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회의 권고안에 따라 시행사와 김해시의 울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고인돌공원 조성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였다. 2007년 3월 1일 울하 고인돌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공원에 청동기시대 분묘 106기 중 발굴 상태가 양호한 50여 기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비롯해 유물전시관 100평과 각 구역별로 유적지 이전복원장, 야외체험장, 주차장, 휴게공간 등이 들어선다는 내용이다.

그 이후 2008년 10월 1일에 고인돌공원이 임시로 개장하였다. 고인돌공원은 2006년 5월에서 12월 사이에 울하지구에 대한 고인돌 발굴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청동기 시대 고인돌 68기를 복원한 A지구공원과 18기의 고인돌을 현장보존한 B지구공원, 고인돌의 유래와 현황 등을 소개한 고인돌전시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고인돌 모형전시관과 가야시대 선착장 복원시설 등이 조성되는 마을유적 복원시설도



토지이용계획도

공원녹지계획도

자료 : 한국토지공사



울하유적공원-A 전경

울하유적공원-B 전경

자료 : 저자 촬영

들어서도록 하였다. 특히 이 공원은 고인돌구조 전체를 볼 수 있게 단면을 노출해 복원하였고, 원형 및 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의 묘역시설을 발굴조사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려 하였다. 울하지구에 청동기 시대 대표적 묘제인 고인돌을 주제로 한 야외유적공원이 조성되고 유물 전시관 등의 건립으로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5.4 역사문화자원 관리 현황

김해 울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앞서 실시된 2001년 지표조사와 더불어 2004년 시굴조사 결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지석묘, 삼국시대 목곽묘 및, 석곽묘, 고려시대 건물지, 조선시대 민묘 및 건물지 등 다양한 시대 층위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정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중요 유적의 기록 및 고고학적 연구의 기초자료 활용 및 문화유적 보존의 방안으로 1만6천m² 규모의 울하 유적공원을 조성하고 그 공원 부지 내에 별도로 330m²의 유적전시관을 건립하여 주요 유적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울하유적공원은 고인돌공원 A·B 2곳과 마을유적 1곳으로 이루어졌는데 고인돌A유적에 청동기시대 집 자리 3기, 고상건물지 2기, 무덤 74기 등이 복원되었으며, 고인돌B유적에 집 자리 13기, 구덩이 4기, 무덤 18기가 현장보존 되었는데 무덤공간과 집 자리 공간 사이에 솟대를 세웠던 자리가 처음 발견되었던 곳이다.

울하지구 동쪽에 위치한 김해관동유적체육공원은 본래 유적의 보존을 위해 유적지 위에 흙을 덮어 원래의 상태를 보존하고 관동유적모형관을 건립하였다. 또한 마을유적에는 가야시대의 도로, 선착장으로 추정되는 잔교(淺橋), 지면식 건물지와 구덩이, 우물 등을 복원하여 가야인들이 선착장을 통해 교역을 하고 도로를



울하유적전시관 내부 모습



고인돌공원 A 유적



고인돌공원 B 유적



관동유적모형관 외부 모습

자료 : 김해시 공식 블로그

이용하여 교역물자를 운송하였던 마을의 생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나¹⁶⁴ 현재는 관동유적모형관을 제외한 문화재 복원지는 철거되어 그 형상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5.5 시사점

울하지구는 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유적을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한 역사공원 조성 사례에 속한다. 울하지구는 출토된 유적의 수가 상당하며 유적이 확인된 시기가 비교적 이른 편에 속한다. 그에 따라 유적공원 조성계획 당시 유적의 보존과 더불어 복합적인 활용계획이 가능했다. 개발사업 당시 착공 이후 예기치 못한

매장 유구가 발견되면서 계획이 수정되는 경우 기존 도시계획적 맥락상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이 어색하게 도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역사문화자원은 제대로 활용되기보다 경관적 연속성을 저해하는 이질적인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

울하지구의 발굴 유적은 기존에 계획되었던 공원부지 및 문화시설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었으며, 유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충할 수 있는 전시관과 연계되어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접근성과 유적에 대한 충분한 교육적 기능성을 모두 충족시킨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 개발지역 안에서 유적의 본래 확인 장소와 인접하여 역사문화자원의 성격에 따라 유구 복원 혹은 장소성 재현 등 다양한 활용 방식을 취한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관동유적공원의 경우 유적의 재현 및 전시공간이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는 체육공원과 연계되면서 어색한 공간구성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는 전시관을 제외한 장소 재현은 모두 철거되었다는 점에서 활용계획 수립 시 차후 시설 간 연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함을 제언할 수 있다.

6 안산 신길 택지지구

6.1 개발사업 개요

개발사업 중 시행된 발굴조사 결과 신석기시대 주거지 23기가 조사된 IV지점은 현지보존 되어 유적공원화를 추진하였으며, 이 지역 주민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발굴조사의 결과물이 단순히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시민의 역사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 사례이다. 또한 그 운영과 관리에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사문화자원 활용 시설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164 김해시청 관광포털 (<http://www.gimhae.go.kr/00204/03060/00214.web?amode=view&idx=299>)

연합뉴스, 2008.10.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292268>)

표11 안산 신길 택지지구 사업 개요

계획도	사업개요
	• 사업명 : 안산 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원곡동, 선부동, 시흥시 거모동 일원 • 면적 : 812,000㎡
사업연혁	
2002.0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
2002.02.	주민공람공고
2002.06.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건교부 고시 제 2002-130호)
2002.11.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2003.03.	개발제한구역 해제(건교부고시 제2003-52호)
2003.06.	개발계획 승인
2005.02.	대지조성공사 착공
2005.12.	택지공급 승인(최초)
2007.10.	안산 신길지구 문화유적 현상보존 및 역사공원 조성방안 수립용역 착수
2009.0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고시
2009.06.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역사공원 조성)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1호)
2010.04.	신길역사유적공원 준공
2011.12.	사업준공(1단계)
2013.06.	사업준공(2단계)

6.2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현황

안산 신길동은 대부분 지형에서 매장유구의 존재가능성을 두고, 빠르게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앞서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우려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굴조사는 2005년 5월 30일~동년 11월 24일까지 (재)고려문화재연구원에서 유물산포지 Ⅰ,Ⅱ,Ⅲ,Ⅳ 지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Ⅰ, Ⅳ지점에서는 조선시대 생활유적과 분묘유구가 중심을



안산 신길 Ⅳ지점 유구현황

이루었으며, Ⅱ 지점은 근대석축물만 확인되었을 뿐 뚜렷한 유구의 징후는 파악되지 않았고, Ⅳ지점은 신석기시대 주거유적 및 원삼국시대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Ⅴ지점은 Ⅳ지점 시굴조사를 진행하면서 지도위원회의를 통해 추가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백제시대 주거지와 근대 분묘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 Ⅳ지점은 2006년 9월 4차 지도위원회의에 따라 신석기시대 유구의 보존여부를 위한 발굴조사 의견이 제시되었다. 2007년 5월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Ⅳ지점에서는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 23기와 원삼국시대 주구토광묘 2기가 조사되었다.

1) 신석기주거지

해발18m~20m의 평탄한 지형으로 형성된 구릉에서 총 23기의 신석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구릉상의 주거지 분포양상은 크게 동(10기), 서(13기) 두 개 군으로 구분되며, 주거지간에는 중복관계 없이 등 간격으로 배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사 전 이 지역은 인위적(과수원)이거나 자연적인 침식이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원지형이 남아있지 않았다 또한 5cm 내외의 표토(부식토)를 제거하자 곧바로 적갈색 풍화암반층이 노출되었다. 주거지는 이 적갈색의 풍화암반 상에서 노출되었다.

2) 토광묘

Ⅳ지점 조사지역 내 남쪽구릉 동북사면에서 해발 18m 위치에 토광묘 2기가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모두 토광목관묘로 묘광의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다. 1호 토광묘는 주구와 함께 확인되었으며, 주구의



안산 신길 선사유적공원 내 복원 유적

자료 : 저자 촬영

동사면은 유실되었다. 주구 내에서 회청색 타날문토기 1점과 묘광 내부에서 단경호와 철제칼이 각 1점씩 출토되었다. 2호 토광묘의 경우 주구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삭평된 묘광의 깊이로 보아 주구가 있었지만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토광묘에서 회백색연질토기 1점이 노출되었으며, 유물은 모두 목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후 IV 지점에 대한 2007년 9월 20일 5차 지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부지인 IV지점에 유적공원화 방안이 결정되었다. 유적공원조성 및 전시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이 모아졌으며,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안산시와 함께 유적공원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신석기시대 주거지를 현장보존케 하였다.

표12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	◎	

6.3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식

2005년 5월 18일 문화재 발굴이 시작되면서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재)고려문화재연구원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 3월 고려~조선시대 주거지 36기에 이어, 2007년 5월 신석기시대 주거지 23기가 추가로 발굴됐다. 하지만 발굴당시 이미 훼손된 석기등 유물들이 파편으로 수거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2002 - 2009)

문화재청에서는 신석기주거지 23기에 대해서만 현상보존 및 역사유적공원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안산시는 2007년 10월 『안산신길지구 문화유적 현상보존 및 역사공원 조성방안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2007년 10월 31일일부터 2008년 1월 28일까지 한국전통문화연구소에 의뢰하였으며, 2008년 1월 25일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검토에서 유적공원 조성 시 보존상태가 양호한 2기의 유구는 복원·공개하고, 18기의 유구는 복토 등 보존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2009년 8월 제반공사에 들어갔으며, 계획에 기반하여 주택공사 측은 기존의 아파트 부지(B2-BL)의 일부였던 대상지를 공원으로 계획변경하여, 공원 계획 및 조성을 진행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단원구 신길동 847 일원에 15,252㎡의 면적을 가지는 역사공원이 신설되었다.

신길 선사유적공원에는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 23기 중에서 오랜 침식으로 훼손이 심한 3기를 제외한 20기와 빗살무늬 토기, 갈판 등 유물을 보존하였다. 수혈주거지 14기는 복토 현지보존법으로 처리하고, 2기는 전체 복원, 2기는 부분 복원, 2기는 노출 현지보존법으로 발굴 상태를 재현하였다. 수혈주거지 5호는 보호각을 설치하고 발굴 유물들을 이전보존하였다.¹⁶⁵

165 김기욱·소현수, 2019,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양상』.



안산신길 선사유적공원 전경



안산신길 선사유적공원 내 조형물



자료 : 저자 촬영

신길선사유적공원은 발굴된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 유구를 보존처리하고 1m 가량 복토한 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현하였다. 공원은 세 개로 구분된 유구보존공간과 휴게공간, 교육문화공간으로 구성된다. 역사학습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교육문화공간에 야외스탠드가 있다.

6.4 역사문화자원 관리 현황

하지만 역사공원의 유적이 가진 역사적 가치와는 별개로 조성 후 관리 및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2년에 안산시로 관리 주체가 이관되었으나 공원 관리 주체가 이원화 되어 시설 확충과 보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지역의 무관심속에서 우범지역으로 방치되는 듯하였으나, 2013년 지역 활동가에 의해 인근에 거주하는 학부모와 함께 ‘석기마녀’라는 이름으로 유적지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석기마녀’는 안산시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안산시는 리모델링을 통해 신석기 시대 주거공간과 농경생활을 재연한



신길역사유적공원 재정비 마스터플랜(2104 신길마을네트워크 마을디자인학교)

천막 2개 동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가능한 움집 1개 동, 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석기마녀’에서 운영한 마을 디자인 학교는 신길선사유적공원을 민·관·학이 함께 논의하여 완성된 역사유적공원 마스터 플랜을 통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2014년 6월 18일에서 동년 7월 30일까지 총 7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관련 전문가와 관 행정 인력, 주민이 모두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길역사유적공원 1차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마스터플랜의 결과대로 종합안내판, 농경전시물, 안산지역 선사유적 안내판 등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지역 유적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며 지역 자원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성과를 내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신석기 유적을 전하자’는 관련 교육 활동이 이어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역사 지식이 부족했던 학부모들은 역사학자 초빙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신길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역사탐방(역사 체험학습)을 시작했다. 이 ‘석기마녀’ 지역 활동가는 신길 역사유적지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탄탄한 내용과 이야기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결성된 지역 활동가들은 신길샛별도서관을 사무국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아동을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신길선사유적공원에서 진행하는 ‘이곳에 가면 신석기가 보여요’ 등이 있다. 도서관 주부들이 교사로 나서고 초등 고학년들을 위한 역사체험 프로그램이다. 또한 안산 신길 신석기마을축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길선사유적공원을 배경으로 신길 신석기 마을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신석기를 주제로 한 석기시대 토기체험, 활만들기, 갈돌 갈판체험, 석기시대복장체험, 석기시대 액세서리 만들기, 신석기캐릭터 가방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제공, 신길선사유적공원 체험학습안내자인

‘석기마녀’가 안내하는 석기생활체험 프로그램은 직접 신석기시대의 의·식·주 체험에 이어 신석기마을투어도 함께 진행하는 복합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역사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안산시는 2018년에 안산품은학교 사업에 8천만 원을 지원하여 72개 학교 7,276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2019년에는 1억1천만 원을 지원하여 확대·추진한다. 안산품은학교란 안산혁신교육 일환으로 “우리지역의 역사·생태환경·시민성 교육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내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안산에 대한 자부심과 정주의식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단순 현장체험이 아닌 안산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관내 교사들과 함께 체험수업으로 맞춤형 개발한 교과연계 지역체험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중 ‘안산의 첫 마을을 달리다 프로그램’은 신길선사유적공원을 배경으로 내 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안산시가 중앙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8년 안산품은학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학생 87.5%, 교사 93.72%, 학부모 84%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돼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호응이 높았다.



신길선사유적공원의 활용(신길신석기마을축제)

6.5 시사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의 제15조에서는 주제공원으로 역사공원을 정의(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단순히 발굴된 유적의 보존 및 전시 공간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시설로서만 조성된 공원은 지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으며, 관리 주체의 이관 시 전시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시설 관리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유적의 공원화는 대개 기존 경관에 이질적인 형상을 부과하며 공원의 기능성을 저하하고 관리 부담을 가중시켜 활용 저하와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안산신길선사공원의 경우 또한 2005년 유적의 발굴로 공원이 조성된 이후 2013년까지 관리 소홀로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었다. 하지만 2013년 지역 주민 참여에 의한 공원 활성화 활동이 전개되며, 시설·조형물 설치 및 유적 정비 등 적극적인 공원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안산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2016)되어 있다.

신길선사유적공원의 사례는 발굴된 유적을 적극적으로 보존하였으며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으나, 그 이후 지역민이 적극적으로 해당 역사문화자원의 수용 및 관리, 가치 생산에 참여 지역 명소로 장소화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7 진주 평거3 택지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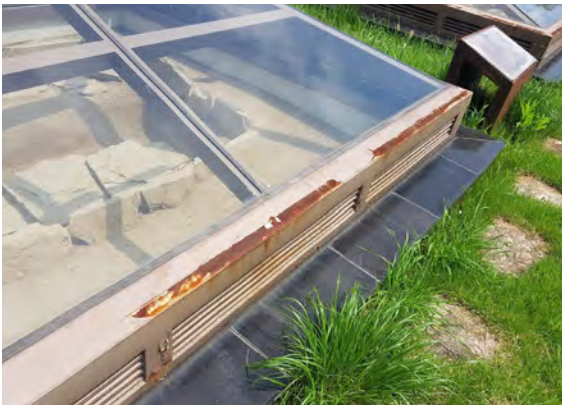
7.1 개발사업 개요

진주 평거3지구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일원이 대상지이다. 사업 대지면적은 475,225.5㎡로, 2,755가구 7,714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었다. 진주 평거3지구 사업부지 내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결과 신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 주거지, 수혈, 수전, 밭 등의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진주 평거3지구는 발굴된 주거유구에 보존처리를 하고 수혈건물을 재현하여 유적공원을 조성하였으나, 이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7.4 역사문화자원 관리 현황



부서진 모형



녹이 슨 구조물



파손된 재현 주거지 1



파손된 재현 주거지 2

자료 : 저자 촬영

진주 평거3지구 내 유적공원은 현재 관리실을 설치하고 1명의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인은 공원 내 구조물에 대해서는 일절 관리를 하지 않으며, 간단한 청소작업만 담당하고 있다.

공원 내 구조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유구를 보호하는 구조물은 녹이 슬어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으며, 모형의 경우 케이스의 천정이 부서져 있다. 청동기시대 재현 건물은 짚단이 썩어 내부가 노출되고 빗물이 고여 있거나, 지붕이나 계단 등의 부재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있다.

진주 평거3지구 유적공원 관리 문제는 2011년 유적공원이 완공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공원 관리권을 두고 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투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에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7.5 시사점

진주 평거3지구 사례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유적공원내 보수유적에 대한 보수절차가 수립되지 않았고, 관리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주시로 이양된 이후에도 재정 문제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8 화성 동탄 택지지구

8.1 개발사업 개요

화성 동탄지구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신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및 청계리 일원을 포함한다. 사업 대지면적은 24,014,896㎡로, 111,000가구 27,8만 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었다. 화성 동탄지구는 사업부지 내에서 통일신라시대 토기가마 및 고려시대 대형 건물지 등 대규모의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해 유구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화성 동탄지구는 이와 같은 매장문화재 발굴 결과를 택지개발사업 내 문화유적공원 조성으로 적극 수용하였으나, 고려시대 건물지의 경우 복토 후 보존하는 소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 외에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분포한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전통가옥 일부를 기록화하고 이전복원하였으며, 전통적 요소를 주요 설계 지침에 반영하여 도시 전반에 전통문화적 가치를 투영하려 노력하였다.

표14 화성 동탄 택지지구 사업 개요

위치도	사업개요
	• 사업명 :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등 • 면적 : 24,014,896㎡

사업연혁	
2007.06.	신도시 개발방안 발표
2007.12.	화성 동탄(2)택지개발예정 지구 고시
2007.12.~2008.05.	문화재 지표조사(LH공사 시행)
2009.03.	문화재 보존대책 조치사항 통보(문화재청→LH공사)
2009.09.~2011.09.	동탄2지구 내 문화재사·발굴조사 수행(기호문화재연구원)
2009.12.	전통가옥 현황조사 용역 완료
2010.07.	화성 동탄(2)택지개발사업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2010.12.	전통가옥 일부 해체실측 및 이전복원 완료
2011.04.	화성 동탄(2)택지개발사업 착공
	「신도시개발과 문화재보존, 상생워크샵」 개최
2013.05.	개발지구 2구역 12-2지점 공사 현장에서 고려시대 건물터 발견
	문화재청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회의 개최, 검토 결과 보존가치가 인정되며 복원 또는 보존방안 강구 조치 결정
2014.07.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6.02.	1단계 사업 준공
2019.06.	2단계 사업 준공
2021.12.	사업 준공(예정)

8.2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현황

1) 동탄2 택지개발사업부지 32-39지점 내 문화유적

본 역사문화자원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기호문화재연구원이 수행한 발굴조사에 의해 밝혀진 대규모 문화유적지이다. 364,780㎡에 대한 시굴조사 및 94,837㎡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청동기시대 주거지 4기, 삼국시대 웅관묘 1기, 토광묘 4기,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17기, 수혈 48기, 석곽묘 2기, 토기가마 14기, 고려~조선시대 주거지 157기, 야외노지 107기, 수혈 274기, 분묘 197기, 숯가마 6기 등 891기가 확인되었다.

택지개발사업 지구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상대적으로 개발 프로세스의 전반부에 실시하였던 발굴조사 결과 검출된 본 유적은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되어 보존조치 및 복원을 통한 정비가 수행되었다. 「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조경기본 및 실시설계」에 의하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본 역사문화자원의



동탄공원 내 정비된 고구려 석실분의 모습

자료 : 저자 촬영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시설계에 의하면 검출된 토기가마 14기 유구 중 4기는 동탄공원 내에 보존복원하여 활용하고 나머지 10기는 공원지역에 매몰 후 보존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토기가마, 고구려석실분, 온돌주거지 등은 설계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현재 동탄신도시 중앙공원 내에 복원정비되어 주민에게 개방되어 있다.

표15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	◎	◎				

2) 동탄2 택지개발사업부지 2구역 12-2지점 내 고려시대 건물터

화성 동탄2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시행된 발굴조사 결과 지구 내 남서쪽 부근에서 건물지 면적 3,665㎡에 달하는 고려시대 건물지가 발견되었다. 고려시대 건물지는 대형 ㄱ자 건물지 2동과 부속건물지 2동으로 조사되었으며, ㄱ자 중심건물지는 정면 5칸, 측면 1칸, 전후 각각 1퇴의 구조로 확인되었다. 건물지 외의 출토 유물로는 청자완, 수막새, 암막새, 쌍룡운문경(雙龍雲文鏡) 등이 검출되었다.

본 건물터는 발굴 시점이 개발사업 착공 이후인 2013년 5월이었다는 점에서 사업프로세스 내에 역사문화자원의 발견 시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알맞은 사례로 볼 수 있다. 2011년 4월 화성동탄2지구의 개발사업이 착공되었고, 2013년 5월 개발지구 2구역 12-2지점 공사 현장에서 고려시대 건물터가



화성 동탄2지구 내 오산리유적 1호 건물지

출토 수막새

자료 : 문화재청 보도자료(2013)

발견되었다.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이후, 같은 달 문화재청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회의에서 본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문화재위원회는 건물터의 보존 가치가 인정되며, 복원 또는 보존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사항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는 당초 상업계획(상업시설 1,748㎡, 도로 1,917㎡)을 변경(광장 1,748㎡, 도로 1,917㎡)하여 유적을 복토 후 보존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문화재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의 의견대로 조치할 것을 가결하였다.¹⁶⁷

표16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	----------	-----------	-------	----------	----------	----	-----------	-------	----

○ / ◎

본 유적지구의 발굴 과정과 보존조치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개발사업 프로세스 내에 역사문화자원의 검출 시기에 따라 도시계획에 포함 여부 또는 반영 범위가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택지개발예정 지구 고시 시점인 2007년 12월 이후 수행된 32-39지점의 고려시대 가마터 등 역사문화자원은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되어 공원조성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정비되었으나 착공 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에서 검출된 본 유적의 경우 복토 후 보존이라는 소극적 조치에 그친 것이다.

¹⁶⁷ 문화재청, 2013, 「문화재위원회 제5차 매장문화재 위원회 회의록」, p.22-23.

3) 신리, 산척리 일원 전통가옥 46동



안척석 가옥 안채 전경



모왕서 가옥 전경

자료 : 한국건축문화연구소(2009)

본 자원은 동탄2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 및 멸실의 우려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를 목적으로 2009년 6월 15일부터 12월 12일간 조사하여 확인된 전통가옥 46동이다. 택지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사업착공 이전에 대상지 내의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는데, 명지대학교 한국전통건축연구소에 의해 신리 및 산척리 일원을 중심으로 총 46동에 의한 조사가 완료되었다.¹⁶⁸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된 역사문화자원으로, 2009년 조사된 이후 2010년 전통가옥 보존대책 수립방안이 논의되었고, 이후 해체실측 및 이전복원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 해체이전 공사는 2010년 12월에 완료되었는데, 동탄2 공구 사업소 내 보관 중이었으나 2016년 12월 지구 내 근린공원으로의 이전이 검토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¹⁶⁹

표17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	◎				

¹⁶⁸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9, 『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전통가옥 현황조사 용역 보고서』, 경기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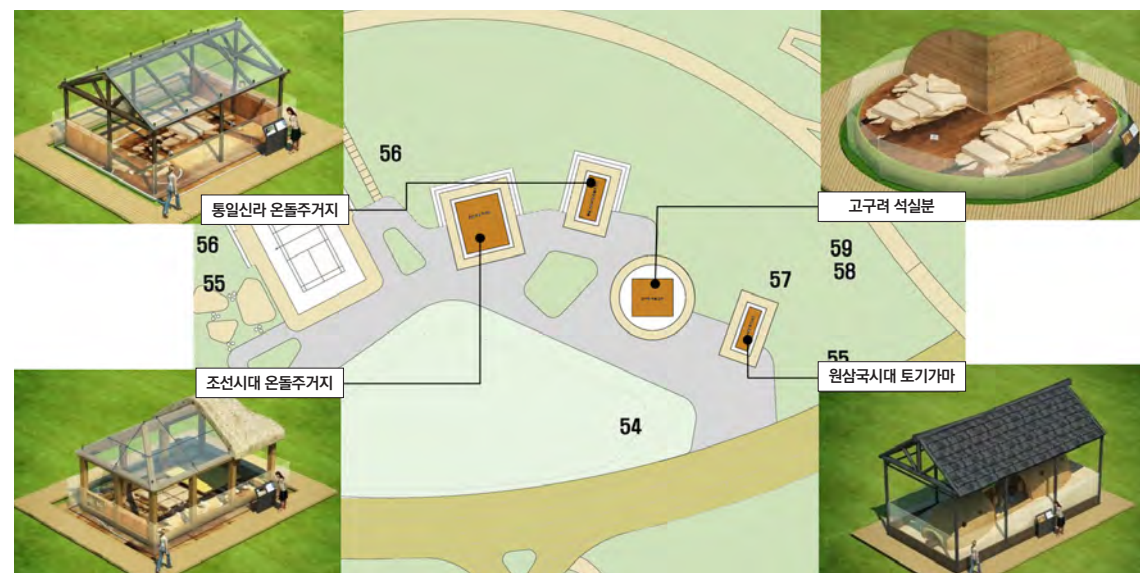
¹⁶⁹ LH 내부문서, 동탄2신도시 전통가옥 해체·이전복원 추진 현황

8.3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식

개발사업지구 내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방식은 역사문화자원의 유형별, 프로세스 내 적용 시기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부지 내에 이전부터 물리적으로 존재하였던 건조물의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 이후부터 사업 프로세스의 초기단계에서 고려되어 적극적으로 활용이 검토되었다. 신리, 신척리 일원의 전통가옥이 대표적인데, 문화재청의 지시에 의한 수동적인 판단이었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으나 이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전통가옥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행한 것, 그리고 이들 중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이전복원하고 이후 근린공원 내에 다시 끌어들이 주민에게 환원한 것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검토된다.

그러나 매장문화재의 경우 사업 프로세스의 어느 시점에서 발견되고 고려되느냐에 따라 활용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32-39지점에서 검출된 토기가마터 등 다수의 유적은 사업 프로세스의 초기단계에서 검출된 유적으로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교감 및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근린공원 내에 역사유적공원으로 정비하여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위 역사문화자원과는 달리, 사업착공 이후 개발 단계에서 인지된 매장문화재의 경우 계획 내로 끌어들여 활용하는 데에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사업부지 2구역 12-2지점에서 검출된 고려시대 건물터의 경우, 착공 이후 공사 단계에서 발견된 유적으로 이미 추진 중이었던 개발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 한 사업에 적극 반영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문화재위원회의 보존조치 결정과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측의 복토 후 보존 의견이 절충되어 일부 사업 면적이 변경되었지만 역사문화자원은 복토되었다.



동탄공원 유적 정비계획(안)

LH 내부자료, 2013

8.4 역사문화자원 관리 현황



동탄공원 내 유적 복원안내
출처 : 저자 촬영

안희석가옥 등의 이전복원 공원조성계획
출처 : LH 내부자료, 2017

화성 동탄지구의 역사문화자원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 정비되어 관리되는 것은 동탄2신도시 중앙공원에 복원정비된 자원과 근린공원으로의 이전복원이 논의된 2동의 전통민가건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화성 동탄지구 내 역사문화자원 중 사업 프로세스의 초기단계에서 인식된 역사문화자원의 경우 단지 내 적극 반영되어 활용 및 관리되고 있다. 동탄2지구 중앙공원 내에는 가마 및 온돌유구 등을 비롯한 4개 유적이 복원되어 공원의 주요 상징물로 기능하고 있으며, 동탄공원 유적 정비계획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유구의 재현과 유구의 상징적 이미지를 차용한 시설물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 교육적 가치와 체험적 가치를 동시에 획득하고 있다.

안희석 가옥, 모왕서 가옥 등 과거 이전 보존조치되었던 건조물 유산은 단지 내 근린공원으로 이전되어 조선시대 주거문화 교육을 위한 테마공원으로 활용될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2020년 9월 현장조사 결과 해당 계획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한 그림 '안희석가옥 등의 이전복원 공원조성계획'의 대상지는 신리저수지 인근으로 확인되지만 해당 구역은 미개발구역으로, 아직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구역으로서 안희석 가옥 등이 이전된 조치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가옥이 근린공원인 청계중앙공원에 이전복원된다는 언론기사가 일부에서 확인되어 청계중앙공원을 현지조사 범위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청계중앙공원은 한국 전통조경 및 건축요소를 모티브로 차용하여 문화재마당, 생태연못, 전통문화마당 등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언론에



고구려 석실분 모티브 시설물



토기가마 모티브 시설물



전통문화마당 안내도



전통문화마당 전경

자료 : 저자 촬영

따르면 문화재마당 내 해당 가옥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통문화마당 등은 전통누각과 홍살문, 전통담장 등을 설치하여 전통요소를 활용한 근린공원의 적절한 예시가 되고 있다.

8.5 시사점

화성 동탄지구의 사례는 역사문화자원의 검토 시점이 그 활용 범위 및 보존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당초 개발사업지구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했던 역사문화자원의 경우 사업검토단계에서부터 보존 및 활용이 논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원의 경우 이전복원 또는 근린공원 내 활용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의 유형 역시 활용 및 보존에 있어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두 매장문화재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지표조사의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지표조사 단계에서 검출된 매장문화재의 경우 발굴조사로 연결되어 이후 도시계획에 설계 요소로 반영되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되지만, 사업 시행 이후 공사 단계에서 예기치 못하게 검출된 유적의 경우 개발주체간의 논의에서 소외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유형별로 물리적-가시적/비가시적, 비물리적-환경적/의식적 요소로 구분하여 프로세스 내에 적절한 인지 시점 및 검토 시기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활용 논의를 전개함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9 용인 죽전 택지지구

9.1 개발사업 개요

용인 죽전 택지지구는 경기도지역 내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난 해소, 계획적 개발관리에 의한 난개발 방지,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당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리, 구성면 보정리 일원에 계획되었다. 죽전지구는 사업 계획 수립 이전부터 지역의 문화재 조사를 진행하는 등 문화재에 대해 사전적인 대처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하지만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상에 드러나지 않은 매장 유구가 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유구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으로 유적공원을 조성한 이른 사례로서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18 용인 죽전 택지지구 사업 개요

위치도	사업개요
	• 사업명 : 용인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기흥구 보정동 일원 • 면적 : 3,405,614㎡
사업연혁	
1998.10.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건교부 고시 98-328호)

사업연혁	
1999.02.	용인 죽전지구 조사설계용역 착수
1999.05.	개발계획(안) 사전협의(토지공사→용인시외 8개 기관)
1999.06.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1999.08.	용인시 개발계획(안) 사전협의 의견 회신
1999.10.	경기도 개발계획(안) 사전협의 의견 회신
1999.10.	개발계획 승인신청(토지공사→건교부)
1999.12.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건교부 고시 1999-364호)
2000.05.	문화재 시굴조사 시행(경기문화재단)
2000.09.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001.02.	실시계획 승인(경기도고시 제2001-20호)
2001.02.	공사착공
2002.05	문화재 조사착수(토지박물관)
2003.09.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완료(경기문화재단)
2004.12.	공사준공
2006.09.	사업준공

9.2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현황

죽전지구의 경우 설계에 들어가기 이전의 기본 계획 단계에서 문화재에 대한 사전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에 공사측의 의뢰를 받아 한신대학교박물관이 1998년 12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고고, 민속, 분묘와 석물 및 지명유래 등 4개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단독 및 합동으로 현지를 답사하면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고고 분야에 있어서 고대 이전의 것으로서는 구석기 1점을 채집한 외에 한 군데에서 백제토기가 채집되는 문화층을 발견하였으며, 선사·고대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세 이후의 유적이 많이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유적으로는 요지 두 군데(백자·청자, 도기), 건물지 1개소, 분묘 가능 지역 및 유물 산포지 등이 파악되었고, 조선시대 유적으로는 건물지와 추정 관방 유적을 각각 1개소씩 확인하였다.

민속 분야는 3개 마을(대지, 연원, 독정)의 생업 및 경제활동, 사회조직, 관혼상제, 세시풍속 및 마을신앙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 사라져가는 이 지역의 민속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분묘와 석물 분야, 사업지구 내 소재하는 경주김씨, 전의이씨, 성주이씨, 분묘와 석물을 중점적으로 조사,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 문화재위치도(2002)

아울러 이들 묘역의 석물들과 계기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사업지구 외곽의 성주이씨와 파평윤씨의 분묘와 석물도 함께 조사하여 이 분야 연구의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후 2001년 건영아파트 2블록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3, 4, 12지점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 죽전지구 3번 지점에서는 일부 소형 수혈유구만이 확인되었고 전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자연 구상에 능선에서 흘러 내려온 도기요지 관련유물 및 조선시대 유물들이 퇴적되어 있을 뿐 특별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죽전지구 4번 지점의 유구 성격은 크게 도기요지와 건물지, 수혈유구 들인데 대부분 잔존 상태가 불량한 편이며

수혈유구들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로 확인되었다. 죽전지구 12번 유적 발굴조사 중 고려시대 청자가마 2기, 석렬 13기, 황철식석실묘 1기, 민묘 10기, 수혈 1기, 기타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1) 용인 죽전동 고분군

본 역사문화자원은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과 용인시 죽전동의 경계를 이루는 숫돌봉에서 서편으로 흘러나간 능선부 중 해발 100m 내외의 야트막한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다. 이 일대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 유적을 비롯하여 백제 토광묘, 신라 석곽묘, 조선시대 토광묘 등의 분묘유적이 조사되었다.

2) 경주김씨 묘역

경주김씨 묘역은 대지고개 부근 동부아파트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기묘명현(己卯名賢)의 일원인 김세필을 입향조(入鄕祖)로 하는 경주김씨 문간공파(文簡公派)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불곡산 줄기가 서남쪽으로 뻗어 내려 만든 여러 구릉에 산재해 있는데 조선시대에 조성된 석물을 갖춘 곳은 1999년 4월 26일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2호로 일괄지정 되었다.

3) 용인 죽전동 선사유적1

이 유적은 죽전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문화유적 조사의 일환으로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이며 조사자에 의해 ‘대덕골유적’으로 명명되었다. 유적의 대부분은 발굴조사 후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어 모두 사라졌으나 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유적 북쪽의 능선부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양호한 유적이 지하에 부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용인 죽전동 유적

이 유적은 토지박물관에서 실시한 죽전지구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백제유적이다. 이 유적은 상당히 점성이 강한 암갈색 점토층위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주거지 2기 및 다수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 ① 1호 주거지 : 1호 주거지는 삭평이 심하여 정확한 평면형태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는 부뚜막 시설과 그 뒷벽의 형태로 보아 육각형 주거지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 당시 확인된 전체 규모는 장축 769cm, 단축 723cm, 깊이 36cm 정도이다.
- ② 2호 주거지 : 2호 주거지는 1호 주거지 남서편으로 약 5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고 상부는 암반을 굴착하였고 하부는 1호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삭평되어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하단부 저장공의 위치로 보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며 방형내지 장방형의 평면형태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2호 주거지에서는 1호 주거지보다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비교적 많은 양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유물의 중심연대는 대략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반으로 판단되었다. 주거지 규모는 장축 534cm, 단축 373cm, 깊이 42cm이다.
- ③ 수혈유구 : 주거지가 자리 잡은 곳은 동서로 야트막하게 능선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중 동쪽 능선 끝부분에 약 20여기의 수혈유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성격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우나 내부에서



죽전공원 내 청동기시대 주거지 유적 안내 및 복원유적

용인시

확인되는 유물로 보아 대부분 백제시대 유구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5) 도기가마

조사된 가마터는 경기도 일대에서는 발견된 예가 거의 없는 고려시대 중기 청자가마터로서 서리 중덕·시흥 방산동·여주 중암리 이후 용인 및 경기도 일대의 도자기 공급처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내부에서 확인된 유물로 보아 11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천장시설 일부와 아궁이 부분 잔존상태가 양호하나 주변에서 유물퇴적층이나 관련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기가마 유구 처리방안에 대하여 학교가 가마를 피해서 세워지는 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도기가마 주위의 유구 손상이 심하여 인근 적당한 지역에 이전복원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안이 채택되었으며,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유적공원 등을 만들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유적 보존이 추진되었다.

표19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 재발굴	설계 변경	준공
○			○					○/◎	◎	

9.3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식

기전문화재연구원의 조사단 의견서에 따르면 죽전 12번 지점에서 조사된 유적은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죽전 대덕골유적, 임진산성, 죽전 도기가마유적(고려시대), 보정리 소실마을 유적, 마북리 유적, 언남리유적,



죽전중앙공원 내 고려시대 도기가마 유적 안내 및 복원유적

자료 : 용인시

마북리 고려고분군, 청덕리 유적 등 고려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제 유적과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이 지역 일대의 문화양상 파악에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었다. 이에 가마 유구 및 관련시설은 현장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위에 유적 알리판을 세워 유적의 존재를 알리도록 하였다.

2002년 문화재발굴 유적처리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에 따르면 죽전 3, 4번 문화재발굴조사의 결과 중요유적으로 삼국시대 수혈유구가 확인되어 문화재 지도위원회 개최 결과 삼국시대 수혈 유구는 최대한 현장보존하여 후일 유적공원이나 전시관을 지을 경우를 대비토록 의견 제시됨에 따라 수혈유구 중 중요한 유구 4~19호는 당초 공동주택용지에서 녹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주변 지형과 조화롭게 유적을 현장보존하고, 고려시대 도기요지는 지도위원들의 의견대로 죽전지구 공원 등에 이전복원토록하고 나머지 유적에 대하여는 기록보존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고자 하였다.

2002년 문화재 보존에 따른 개발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죽전 3, 4번 지역의 유구에 대하여 죽전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수차례 걸쳐 협의한 결과 도로부지와 건영 상가 하부구간의 유구는 기록 보존 후 공사 진행토록 하고, 보존이 합의된 유구 4, 6, 7, 12~15호 구간은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건영 부지 내 상가 위치로 (주)건영의 건축허가(변경)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인근 존치지역인 산성교회의 어린이공원 위치이동 불가 등의 내용을 중재하여, 1번 어린이공원(1,579㎡)의 일부를 시설녹지나 완충녹지로 용도 변경하여 보존지역으로 위치변경(779㎡)하고, 잔여면적(800㎡)을 시설녹지나 완충녹지로 하여 기존 산성교회 옆에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였다.

용인죽전지구 발굴조사 3, 4지점 2차 지도위원회(2002. 12. 24) 당시 사업시행자 의견에 따르면, 상태가 양호한 고려시대 도기요지 1개소를 이전복원토록 결정되어 전문기관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에 의뢰해 도기요지를 현장 사무실에 이전, 보관 후 향후 죽전지구 내 공원조성시 공원 내 일부 구간을 유적공원으로



죽전중앙공원 내 문화재복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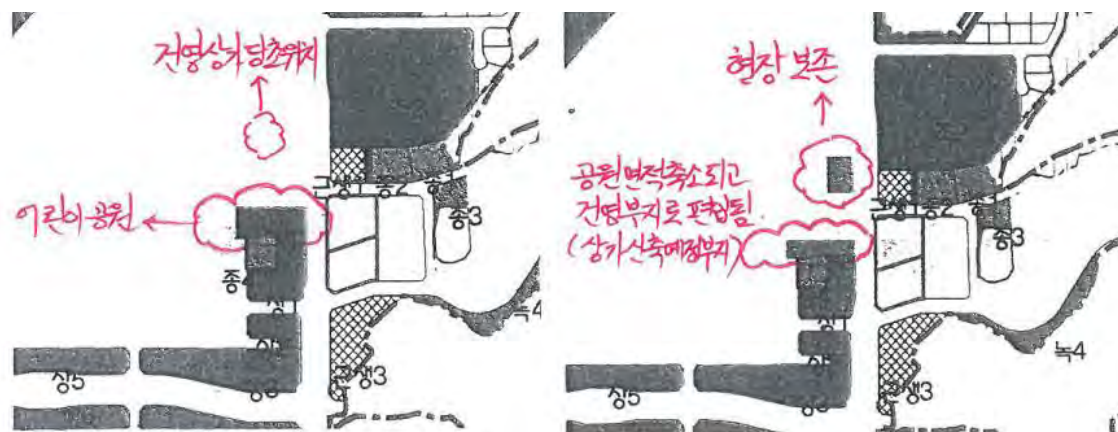
자료 : 네이버지도

계획 수립하여 동 문화재와 기 이전한 죽전지구 문화재(추거지, 소성유구 등)를 복원을 통해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하였다. 이에, 현재 죽전중앙공원 문화재복원지에는 죽전택지개발 당시 2000~2003년 실시된 발굴 조사 당시 확인된 조선전기(15~16세기)의 분묘석물, 고려시대 도기 가마터, 삼국시대 집터 내 부뚜막, 야외 불 댕 자리, 청동기시대 집터 등 총 6기의 문화재가 복원 및 전시되어 있다.

9.4 역사문화자원 관리 현황

현재 죽전중앙공원에는 개발사업 당시 확인된 유적 중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아우르는 생활유적과 생산유적 일부가 복원되어 전시 중이다. 전체 공원의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유적 전시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유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이 있어 지역 주민 등 공원 이용객에게 역사·문화적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유적 전시 공간이 별다른 휴게시설이나 관람 편의 시설 없이 전시실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공원에서 별도 공간을 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조성되었으므로 전시 이외의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시의 방식이 별다른 콘셉트 없이 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유적의 단순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각 유적이 가진 정보 이외의 특별한 연상 체험이나 감상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3, 4번 지역 계획 변경 사항

9.5 시사점

한국토지공사가 죽전지구의 약 1,136,000평에 대한 대규모의 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일대에 산재한 문화재가 소실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설계에 들어가기 이전의 기본 계획 단계에서 문화재에 대한 사전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발굴된 자원에 대해서 이전·복원하여 공원을 조성한 사례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 한 단계 진전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계획에 선행하여 개발사업 지역의 문화유산을 유·무형을 아울러 다방면으로 조사하였으나 기록 및 보존조치 이외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활용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이러한 선사시대 생활유적으로부터 얻는 메시지는 문화적인 연속성이라기보다 현재 거주하는 공간이 오래 전 형성된 주거지 유적으로 짐작컨대 오랜 시간 전에도 살기 좋은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데서 지역민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

하지만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역사문화자원이 가진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발현시키지 못한다. 죽전유적공원의 사례에서는 계획된 공원의 일부 공간을 할애하여 유적을 복원 전시하였으나, 전시된 유적 간의 연속되는 맥락이나 콘셉트,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서사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전시된 역사문화자원이 같은 지역에서 발굴되었다는 점과 오래된 유적이라는 공통분모를 제외하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단순 나열에 가까운 전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10 충주 호암 택지지구

10.1 개발사업 개요

충주 호암 택지지구는 충주지역의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공급 및 안정적인 주택건설 용지를 확보하며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건설로 쾌적하고 차별화된 단지 조성을 개발 목적으로 하였다. 2005년 12월 13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계획인구수 14,298명, 건설호수 5,917호로 사업이 착수되었으며, 2019년 1월 31일 사업 준공되었다.¹⁷⁰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이 2012년 10월부터 발굴조사를 하는 충주 호암동 택지개발사업 부지에서 구석기 유적, 삼국시대

170 택지정보시스템(<https://openapi.jigu.go.kr/main.do>)

고분, 고려~조선시대 분묘, 고려시대 토성, 조선시대 기와가마 등 대규모 복합 유적을 발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성 유적은 녹지 축을 조성해 원형 보존 및 재현하고 기와 가마터 유적 6곳 가운데 4곳은 흙을 쌓아 잔디를 심어 원형 보존한다는 계획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으며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표20 충주 호암 택지지구 사업개요

위치도	사업개요
	• 사업명: 충주 호암 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일원 • 면적: 739,638.6m²
사업연혁	
2005. 12.	사업시행 시작 및 지구 지정
2007. 9.	전체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시작
2007. 10.	전체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종료
2011. 12.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2012. 3.	추가 지표조사 시작
2012. 4.	추가 지표조사 종료
2012. 7.	공사 착공
2012. 10.	발굴조사 시작일자
2016. 6.	발굴조사 종료
2016. 7.	사업계획변경승인(균형발전과-7370호)
2019. 1.	개발계획 변경일자 및 실시계획 변경, 지구지정 변경
2019. 1.	준공 일자 및 사업시행 종료일자

10.2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현황



조사대상지역 위성사진

자료 :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7년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시행된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 결과에서는 매장문화재의 유존정후가 높게 나타났다. 이후에 이어서 (재)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이 2012년 10월 중순에서 2016년 6월 말엽 기간 동안 충주 호암동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I~V구역은 고려~조선시대 분묘를 중심으로 형성된 분묘유적지이며, VI~VIII구역은 구석기, 토성, 기와가마, 청동기~조선시대 분묘, 생활유구 등이 포함된 복합유적지로 드러났다. 시대별로 나누어 구석기 유적, 삼국시대 고분, 고려~조선시대 분묘, 고려시대 토성, 조선시대 기와가마 등이 확인되었으며 충주 지역의 대규모 복합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기 구석기(약 7만 5천 년 전) 유적에서는 찰개, 몸돌, 격지 등이 출토되었으며, 50여 기의 삼국 시대 고분은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중엽에 축조된 앞트기식 돌방무덤으로 추가장(追加葬)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진흥왕 시기 이후 신라가 북쪽으로 진출하면서 충주 지역이 신라에 복속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조선 시대 분묘는 총 1,300여 기가 발굴되었으며, 청동거울(銅鏡)과 인장(印章, 도장), 그릇, 손가락, 젓가락, 도자기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인장 3점에 장식된 사자 등 동물 문양은 해학적이고 특이하며, 글자는 鳳(봉) 등으로 해석되는 것 외에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총 28점이 출토된 거울은 최대 지름이 23cm인 쌍룡운문대경(雙龍雲文大鏡, 두 마리 용과 구름문양)과 팔사자문경(八獅子文鏡, 여덟사자문양) 등이 있으며,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 거울을 통해 고려시대의 뛰어난 미적, 공예적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토성은 4m 폭으로 석렬(石列)을 1단으로 배치하고, 그 위에 흙을 쌓아 올린



분묘 유적(고려시대) 출토 동경 및 청동인장 유물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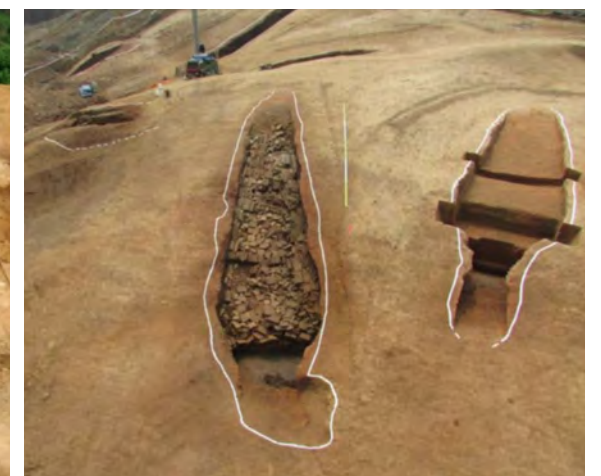
토성 출토 '官(관)'자명 기와



토성 출토 '龍山寺(용산사)'명 기와



토성 유적 치성(雉城)과 성벽 전경(성외-성내)



6호 기와가마 전경

자료 : 문화재청 보도자료(2014)

것으로, 성벽에 일정한 간격(50~70m)으로 치성(雉城)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성벽조사 과정에서 ‘龍山寺(용산사)’, ‘官(관)’자를 새긴 기와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토성의 축조 시기인 13세기를 전후하여 주변에 용산사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확인하였다.¹⁷¹

표21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 재발굴	설계 변경	준공
							○	○/◎	◎	

10.3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식

조사지역에서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생활, 생산, 분묘유적이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4일 8월 29일 전문가 검토회의에서는 고려시대 토성은 잔존형태가 양호하고 그 범위와 구조 및 축조방법이 확인되었고, 또한 조선시대 기와가마는 가마의 축조 및 보수방법 뿐만 아니라 내부의 재임양상을 통해 생산량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이에 따른 보존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2014년도 제11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구석기유적, 토성유적(고려시대), 기와가마 4기(조선시대)가 보존대상으로 설정되었다.

구석기유적은 토성 보존구간과 중첩되는 고토 양층 분포구간을 토성보존과 연계하여 원형보존 하기로 하였다. 토성유적은 녹지축을 조성하여 원형보존하고, 토루와 치성 등 토성의 원래 모습을 재현하여 문화유산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토성의 보존범위는 재현된 토성의 기저부 외연 2m까지로 하며, 재현된 토성의 문화재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10m 이상으로 충분한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토성을 횡단하는 도로개설 구간의 절취범위는 필요최소한으로 계획되었다. 기와가마 4기는 복토하여 원형보존하고 보존 범위는 기와가마 외곽 경계에서 2m까지로 설정되었다.

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 발견된 복합유적 중에서 토성 유적은 토지이용계획상 아파트 블록 3개소, 도로 2곳에 걸쳐 있고, 기와가마터 유적은 도로, 공원 및 주유소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호암동 토성 역사공원 조성(2011~201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성유적의 일부구간에 대해서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개설의 절취가 불가피하며 녹지축을 조성해 원형보존 및 재현하고, 기와 가마터 유적 6곳 가운데 4곳은 흙을 쌓아 잔디를 심어 원형 보존한다는 계획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며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결과 및 조치통보(발굴제도와 11171)를 받은 바 있다.¹⁷² 2019년 1월 호암동 토성 재현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며, 재현된 토성의 높이는 약 2m, 전체 보존면적은 5,860㎡이며, 역사공원 확장으로 인해 공원 면적이 2011년도 당초 승인 시 75,041㎡(10.1%)에서 80,741㎡(10.9%)로 증가하였다.

10.4 역사문화자원 관리 현황

현재 재현된 호암동 토성은 공원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토성 유구를 따라 조성된 공원은 아파트 단지 외곽으로 둘러 산책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주천을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과 인접하였고, 지점마다 어린이 공원이 배치되어 인근 아파트 주민 뿐 아닌 가까운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활용도가 높은 공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어린이 공원의 시설 디자인에서도 이러한 토성 유적의 형상을 응용한 사례가 나타나 유적과의 시각적 연결성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경관적 맥락을 구성하였다.

유적에 대한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유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 전문적 수준의 난해한 용어가 설명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설명이 산책로를 따라 분산되어 있어 유적에 대한 정보 전달력과

171 문화재청(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698866§ionId=b_sec_1)

172 문화재청,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발굴제도와-11171



호암동 토성 공원 전경



기와가마 현장 보존

자료 : 저자 촬영

매력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마 유구의 경우 원형 보존을 위해 복토하고 그 주변에 펜스를 둘러 유구의 존재를 드러내었으나 외관적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형상이 없어 복원 전시된 유적에 비해 가독성이 낮다는 한계를 가진다.

10.5 시사점

충주 호암 지구는 발굴된 유적의 주요부분을 정비하여 역사공원으로 조성한 사례이다. 개발사업 당시 발굴된 유적의 현장 보존 혹은 이전복원을 통해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으나, 대부분 기존에 계획 되어있던 공원 부지의 일부를 할애하여 유적 보존·전시 공간을 조성하거나 연관성이 없는 공간에 위치하여 역사문화자원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호암 지구의 토성을 활용한 역사공원의 경우, 지구 중심을 관통하는 도보 동선을 형성하고, 토성의 유구를 따라 기본적으로 산책로를 형성함과 동시에 수변공원 및 어린이 공원, 인근 상가와 연계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유적과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경관적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인 토성의 형상을 응용하여 어린이 공원의 놀이 시설 및 토성이 연속되지 않는 구간의 둔덕을 디자인하는 등 다소 주변 환경과 이질적일 수 있는 유산 경관을 통일성 있게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호암 지구는 기존의 개발 계획을 대거 수정하는 등 유적에 대한 원형 보존 대책을 적극 강구하면서도 도시계획적 맥락 유지를 위해 주요 도로에 대한 유구의 일부 구간 절개라는 절충안을 이끌어내었다. 호암

지구가 가진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에 대한 절충적이고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 또한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11 울산 혁신도시 개발지구

11.1 개발사업 개요

울산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혁신도시사업의 추진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일원에 조성된 도시계획사업이다. 울산 혁신도시는 기존의 공업도시에 입지하여 공업기능에 더해 에너지 산업군, 노동·복지기능군을 이전하여 친환경 에너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국가에너지 정책의 중심도시로 육성함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2005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2005년 12월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 실시계획 승인 이후 2007년 착공, 2011년부터 2016년에 걸쳐 준공되었다.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발굴조사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5월 사이 한겨레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해당 조사 결과 삼국시대 제방유적 등 대형 유적이 검출되어 이후 조사가 계속되었고, 해당 제방유적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유적공원이 조성되었다.

표22 울산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요

토지이용계획도	사업개요					
	• 사업명 : 울산 혁신도시 개발지구 (울산우정혁신도시)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일원 • 면적 : 2,991,000㎡					
	<table> <tr> <th colspan="2">사업연혁</th></tr> <tr> <td>2005.05.</td><td>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td></tr> <tr> <td>2005.12.</td><td>혁신도시 입지 선정</td></tr> </table>	사업연혁		2005.0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05.12.
사업연혁						
2005.0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05.12.	혁신도시 입지 선정					

사업연혁	
2007.02.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초안 제출
2007.03.	개발계획 승인 신청 (LH→건설교통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2007.04.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2007.09.	실시계획 승인
2007.12.	공사착공 및 기공식
2009.02.	2공구 착공
2009.03.	3공구 착공
2009.09.~2010.05.	약사동 581번지 일원 발굴조사 실시
2011.06.	제1공구 준공
2014.06.	사업준공(1단계)
2014.09.	울산 약사동 제방 유적 사적 지정
2016.06.	사업준공(2단계)
2016.12.	사업준공(3단계)

11.2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현황

1)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¹⁷³

개발사업지구 인근의 유곡동 54-1 일원은 다수의 초식 공룡 및 육식 공룡의 발자국이 확인되어 2000년 11월 9일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2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유곡동의 공룡발자국 화석은 약 91㎡ 넓이의 사암 바위에 약 80여 개가 남아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초식 공룡의 것으로 확인되며, 발자국 세 개의 경우 육식 공룡 한 마리의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발자국의 배치로 보면 초식 공룡 여러 마리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육식 공룡 한 마리가 초식 공룡을 따라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한 마리의 육식 공룡이 9마리의 초식 공룡을 사냥하였던 흔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면적은 686㎡이다.

현재 울산혁신도시 내 동원로알듀크 1차 아파트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함월산에서 남쪽으로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

자료 : 울산역사문화대전

발달한 능선 사이에 해당하지만,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본래 지형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다.

표23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				◎					

2) 울산 약사동 제방

울산 약사동 제방유적은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에 있는 삼국시대의 수리시설 관련 유적지이다. 유물과 목탄, 초본류, 목본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해당 제방 유적은 약 7세기 말 경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방의 성토층은 부지폭이 34m, 독마루 폭이 약 8m로 단면은 아래가 넓고 위쪽이 좁은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제방의 평면형태는 일자형으로 추정되며, 길이는 약 155m이다. 종단면형태는 사다리꼴이고, 잔존규모는 독마루 폭 8~12m, 제방부지 폭 25~37m, 제방의 높이는 4.5~8m(해발13~22m), 비탈면의 각도는 약 35~40°이다. 제방의 저수면적은 약사천 좌안 한겨레문화재연구원의 조사구간에서 확인된 구가 여수로일 가능성을 추정해 볼 때, 만수위는 21.5m이며, 저수면적은 약 23,639㎡로 추정된다.¹⁷⁴

약사동 제방 유적은 발굴조사를 통해 축조시기와 기법 등이 최초로 밝혀진 유적으로, 단면 굴착 결과 가공된 기초지반 위에 점성이 높은 실트경과 패각류를 깔고 그 위에 잎이 달린 가는 나뭇가지를 까는

173 울산역사문화대전(<http://ulsan.grandculture.net/Contents/Index?local=ulsan>), 2020년 9월 확인

174 문화재청, 2014, 「제9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울산 약사동 제방 단면 현황

자료 : 문화재청

‘부엽공법(敷葉工法)’이라는 고대의 토목·건축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요한 학술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역사문화자원은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시대 초(6~7세기)에 저수를 목적으로 조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수리시설로, 제방의 축조공정과 함께 부엽공법 등 고대 토목기법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중요 유적으로 인정되어 2014년 9월 16일 사적 제528호로 지정되었다.¹⁷⁵

울산 약사동 제방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5월 사이에 한겨레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당시 고대수리시설로 추정되어 보존조치가 논의되었으며, 이후 2010년 4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실시된 발굴조사에 의해 제방 유구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되었다. 사업의 프로세스에서 보자면 해당 역사문화자원은 공사 착공인 2007년 이후 발굴조사에 의해 밝혀진 매장문화재로서, 이후 문화재청과 사업시행자측간의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며 현재의 유적공원 조성 및 문화재지정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⁷⁶

175 문화재청고시 제2014-89호

176 문화재청, 2011, 「제8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표24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 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11.3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식

울산 혁신도시 내 역사문화자원은 크게 기존부터 인식되었던 공룡 발자국 화석 관련 유적과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약사동 제방 유구로 나뉜다. 두 역사문화자원은 모두 유적지라는 유형상의 공통점이 있으나, 인식 시점과 논의과정에서의 차이를 보여 활용 방식이 주목된다.

1)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

먼저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의 경우 2000년 11월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었던 역사문화자원으로, 후보지선정 단계에서 이미 역사문화자원으로 인식되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부지인 유곡동 54-1 일원은 공룡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 민간에 개방되어 있다. LH는 우정혁신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을 널리 알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공룡발자국 공원을 조성하였다.

2016년 7월 준공 및 개원한 공룡발자국 공원의 총 면적은 31,042㎡로, 공룡 뼈 모양의 게이트와 공룡 발자국 모형, 각종 공룡 모형을 배치하는 등 공룡발자국이라는 해당 역사문화자원을 모티브로 하여 공원의 이미지 및 설치물 요소에 적극 차용하였다.



공룡발자국 공원



공룡발자국 공원
자료 : 울산광역시 중구청

2) 울산 약사동 제방

울산 약사동 제방의 경우 공사 착공 후 발굴조사에 의해 발견된 역사문화자원으로, 해당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에 있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0년 3월 울산 약사동 제방의 보존에 대해 지도위원회는 현지보존하여 학술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조사기관인 우리문화재연구원은 이에 동의하며 전시관 조성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측은 예상치 못하게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며 토지이용계획상 복지시설 부지로 계획되어 있어 현황 보존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¹⁷⁷

이후 2010년 5월 실시된 회의에서도 같은 논박이 이어졌으며, 2010년 6월에는 사적지정 권고안이 상정되었다. 제방유적의 가치가 국가지정문화재 수준으로 예상되자 LH측은 제방유구를 복원하여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사적지정시 보호구역 200m 이내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에 제한사항이 발생하므로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며 사적지정권고를 재고할 것을 요청하였다.¹⁷⁸

그러나 사적지정이 가시화되자 2011년 7월 LH측은 제방유구의 보존에 있어 약 80m 규모를 복원하고 제방전시관을 복원될 제방 내에 두어 전시관으로 활용할 것이며, 제방유구에 한정한 사적지정은 수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울산혁신도시 내 해당 부지에 약 26천㎡ 규모의 역사유적공원을 조성하여 울산혁신도시사업 및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피력하기도 하였다.¹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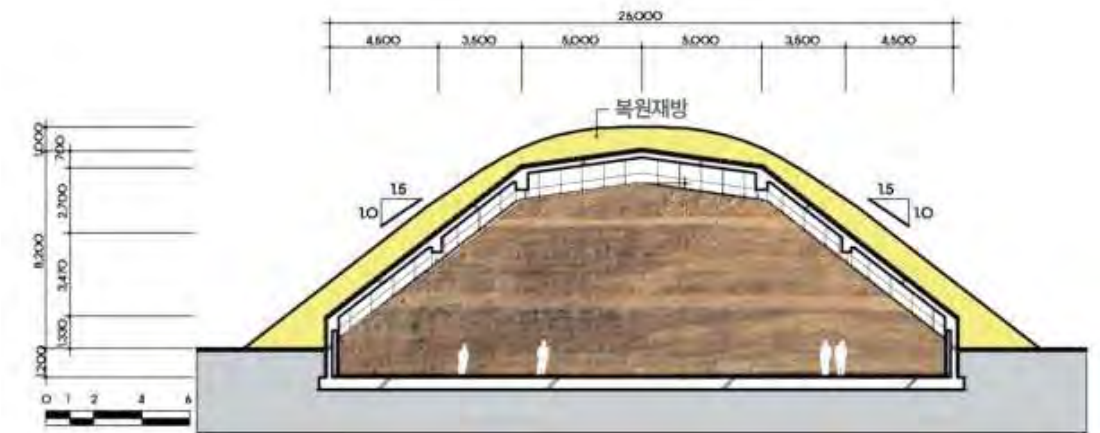
이후 2014년 사적분과위원회의의 사적 지정 검토 가결로 9월 16일 사적 제528호로 지정되었다. 사적지정 면적 범위, 문화재 영향검토구역 고시 등 역시 사업시행자와 문화재청이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되었으며, 약사천 하부에 제방을 복원하고 복원 제방 내에 전시관을 설치하는 조성안이 제시되었다. 약사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전시관 전면에는 자연친화적인 오픈형 광장을 조성, 제방 단면을 전시관 내에 보존조치하여 관람객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 등이 전시관 설계 개념으로 제안되었고, 이러한 제안 내용은 대부분 현실화되어 현재의 울산 약사동 제방유적공원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¹⁸⁰



제방유적공원 조감도



제방유적공원 배치도



제방유적공원 전시관 단면도

자료 : 문화재청

11.4 역사문화자원 관리 현황

역사문화자원의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 9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룡발자국공원의 경우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근린공원이자 테마공원으로서 관람객에게 개방되어 활용되고 있었으며, 공룡발자국 화석의 경우 하천 하부에 위치하여 별도의 보존조치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인근 주민의 발언에 의하면 여름철에는 하천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상 풀과 이끼가 과대식생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약사동 제방 유적은 현장조사 결과 당초의 설계안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방 유적의 입지적 특성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공원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제방 유적의 수리시설의 특징을 살려 전시공간을 복토하여 매립형으로 조성하고 그 내부에 유적 단면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람객에게 제방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설명하는 노력을 강구하였다. 다만 제방유적 전시관의 경우 현재 코로나19의 전국적인

177 문화재청, 2010, 「제6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178 문화재청, 2010, 「제8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179 문화재청, 2011, 「제8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180 문화재청, 2015, 「제5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제방유적공원 전경



제방유적 전시관 전경

자료 : 저자 촬영

확산으로 인해 휴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내 전시 현황은 조사하지 못하였다. 제방유적의 단면전시 내용 등은 간접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추후 구체적인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1.5 시사점

울산혁신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은 크게 공룡 발자국 화석 관련 유적과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제방 유적으로 구분되었다. 두 유적 모두 건조물이나 무형유산이 아닌 면적(面的)으로 조성된 유적이라는 유형상의 공통점이 있으며, 활용 방식 역시 해당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유적공원 조성이라는 점에서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자원의 인식 시점에 차이가 있어 해당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단계에서 큰 차이를 보여 시사점이 있는 사례로 판단된다. 공룡발자국 유적의 경우 이미 택지개발 이전단계부터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었던 유적으로, 택지 지정 단계에서부터 인식되고 설계에 반영된 역사문화자원이라는 점에서 사업시행자와 문화재청간의 큰 갈등 없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되었다. 하지만 제방유적의 경우 착공 이후 발굴조사를 통해 돌발적으로 검출된 유적으로, 이미 택지조성계획 상 복지시설 부지로 예정된 해당 역사문화자원 부지를 보존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문화재청과 사업시행자, 그리고 발굴조사 수행기관측의 논의를 거쳐 유적 보존이 결정되고 전시관 건립 및 유적공원 조성 등의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나, 이 과정에서의 과업공정 지연, 인력 및 행정력 소모 등이 발생한 바, 본 사례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인식 시점이 특화도시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12 김포 한강신도시

12.1 개발사업 개요

김포 한강신도시는 2003년 발표되고 2004년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는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다. 본 사업은 수행 과정에서 택지개발지구 나 1~11지점에서 원삼국~삼국시대 주구목관묘 5기, 구상유구 4기 등이 검출되었으며, 해당 시기의 토기 및 구슬류,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이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재두루미의 철새도래지가 인근에 있어 생물 자원 및 그 도래지가 포함된 역사문화자원의 포괄적 개념이 반영된 사례로 주목된다. 김포 한강신도시는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에 한옥체험공간,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등을 조성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표25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사업 개요

위치도	사업개요
	• 사업명 : 김포 양촌 택지개발지구 (김포한강신도시)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외 • 면적 : 10,875,559㎡
사업연혁	
2003.05.	신도시 입지선정 발표
2004.08.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07.02.	김포 한강신도시 특화방안 연구 (한옥마을 계획)
2007.05~2009.09.	택지개발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 실시
2012.12.	택지개발사업(1단계) 준공 (3,583천㎡)
2014.04.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1,959천㎡)
2015.02.	택지개발사업(3단계) 준공 (3,855천㎡)
2015.10.	택지개발사업(4단계) 준공 (314천㎡)
2017.03.	택지개발사업(5단계) 준공 (641천㎡)
2017.11.	택지개발사업(6단계) 준공 (513천㎡)
2018.09.	김포 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

12.2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현황

1) 원삼국~삼국시대 주구목관묘 5기, 구상유구 4기 등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1-11지점에서 원삼국~삼국시대의 주구목관묘 5기, 구상유구 4기 등이 검출되었다. 한강문화재연구원이 주관한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산 11-1임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원삼국~삼국시대 토기 및 구슬류, 철기류뿐만 아니라 목관묘 및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었는데, 한강 본류와 인접한 김포시 구릉지 일대에서 원삼국~삼국시대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주구목관묘 등이 확인된 것은 마한 백제 묘제연구의 주요 사례로서 의의가 인정되고 있다.

표26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 ◎										

2) 한강 하류 재두루미 및 재두루미 도래지

김포 한강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 인근은 천연기념물 203호로 지정된 재두루미의 도래지로 알려져 있으며, 택지개발지구의 근거리에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천연기념물 제 250호)가 위치하여 생물적 자원으로서의 역사문화자원이 분포한 지역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은 도시개발 과정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는데, 김포 한강신도시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인근의 도로개발사업에서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서의 검토 내용이 확인되는 등, 천연기념물 역시 주요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포 운양동 6호 분구묘 전경



김포 운양동 22호 주구목관묘 전경

자료 : 한강문화재연구원 (2010)

표27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					

12.3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식

상기한 김포한강신도시 내 역사문화자원 중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재두루미 및 재두루미 도래지는 개발지구 내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조성으로 연결되어 활용되었다. 김포한강신도시 동쪽 한강변에 위치한 본 공원은 17만평 규모의 국내 최초 야생조류생태공원으로서 계절별 동식물과 각종 야생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명소로 활용되고 있다. 도시개발과 자연유산의 보존이라는 대치되는 가치의 절충적 보완으로서,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라는 천연기념물 종의 보호 및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천연기념물 203호 재두루미

이외 양촌 유적지구에서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활용내용은 문헌상 구체적인 확인이 힘든 실정이다. 2009년 문화재청의 제10차 매장문화재분과 회의결과에 따르면,¹⁸¹ 김포시 운양동 일대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3기, 삼국시대 주구목관묘 17기 등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조치는 사업시행자인 LH측에서 제시한 '정밀실측 자료 확보 후 인근에 조성될 공원 등에 복원'하는 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¹⁸² 다만 해당 내용이 어느 공원에 반영되었는지 2020년 9월 현장조사시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박물관 및 전시관의 폐쇄 조치에 따라 확인이 불가하였다.¹⁸³

181 문화재청, 2009, 「제10차 매장문화재분과 회의결과」.

182 해당 안은 사업시행자측의 1안으로, 2안은 '정밀실측 자료 확보 후 배수지 상부에 복원'하는 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2안의 경우 발굴 유구를 복원한다 하더라도 배수지라는 입지적 특성상 관람객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1안이 권고된 것으로 보인다.

183 김포에코센터의 경우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전체적인 보수·보강 필요, 부분적인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2019년 2월 28일 폐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자료 : 김포시청 홈페이지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지만, 한강신도시 내에는 전통문화적 요소를 활용한 김포아트빌리지가 조성되어 전통건조물의 이미지를 차용한 역사문화자원 요소가 확인된다. 김포아트빌리지의 초안은 한국토지공사(2007)¹⁸⁴의 계획에서 착안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김포 신도시의 도시개발에 있어 김포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시정체성 확립을 목표한다고 밝히고 있어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문화재 지표조사 사이 기간에서 이미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계획을 고려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12.4 역사문화자원 관리 현황

현재 김포 한강신도시 내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는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김포아트빌리지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두 활용 성과 모두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인식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한강야생조류 생태공원은 천연기념물이라는 기존의 활용대상에서 벗어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시설물로서 그 인지도 및 위상이 높다 할 수 있다.

김포아트빌리지의 경우 도심 내에 위치한 주요 근린공원으로서 양호한 관리환경 속에서 주민들에게 이용되고 있음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근대한옥을 모티브로 한 한옥과 전통적인 신한옥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배치를 보이며, 배치된 건물 사이사이로 다양한 형태의 광장을 배치하여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아트빌리지의 테마에 맞게 일부 건물은 현대건축 양식으로 조성하여 나무공방, 인형공방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관람객이 단순히 공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요소를 도입하여 입객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84 한국토지공사, 2007, 『김포신도시 특화방안 연구』, (주)소토.



김포아트빌리지 전경

자료 : 김포시청 홈페이지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은 철새 도래지 인근에 근린공원으로 설치되었다. 전체적인 구성은 철새 도래시 체류할 수 있는 ‘날알들녘’, 습지생태원 및 각종 수목 관련 숲, 김포에코센터로 구성되어 있어 관람객의 다양한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김포에코센터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실시된 안전점검 결과 부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2019년 2월 28일부터 폐쇄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에코센터의 경우 A~C등급으로 보통 이상의 상태를 보였으나 에코관은 D~E등급 판정을 받아 수리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12.5 시사점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검출된 매장문화재의 활용 현황에 대한 파악은 분석이 더 필요한 상황에 있으나, 재두루미라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천연기념물을 역사문화자원으로 고려하여 개발사업부지 내 시설물로 차용하여 주요하게 활용한 점이 시사점으로 검토된다.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후 본격적 사업 착공단계 이전부터 김포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도시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역사문화적 요소를 차용한 아트빌리지를 조성하는 마케팅을 활용한 것은 역사적 층위가 누적된 기존의 역사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역사문화적 관점을 이미지 요소로 차용하여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역사문화자원의 범주를 유형의 물리적 요소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까지 포함하는 범주로 확장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역사문화자원의 기념비적 요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전통요소의 차용을 통해 역사문화도시의 특화성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김포아트빌리지 전경



아트빌리지 내 공방



생태공원 안내도



김포에코센터 전경

자료 : 저자 촬영

근대 입석 1기와 옹관 2기 등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역사문화자원 일부를 지구 내 공원으로 이전복원하였다. 이전복원된 역사문화자원들이 택지개발 이후 지역공동체의 연속성 유지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28 광주 풍암 택지지구 사업 개요

위치도	사업개요
	• 사업명 : 광주 풍암지구 택지개발사업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 풍암, 매월동, 남구 주월동 일원 • 면적 : 2,055,769.3㎡
사업연혁	
1991.4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건설부고시 제212호)
1992.12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건설부고시 제774호)
1995.6	환경영향평가 협의
1995.6	택지개발 실시계획승인(건설부고시 제1994-480호)
1995.7~1995.8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1996.6~1996.8	문화재 발굴조사 수행(전남대학교박물관)
1996.12	택지개발 실시계획변경승인(광주광역시고시 제1998-172호)
1999.6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광주광역시고시 제1999-68호)
1999.12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광주광역시고시 제1999-198호)

13.2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현황

1) 청동기시대 지석묘

풍암지구 발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지석묘는 총 2기로 각각 풍암동 풍암마을과 금호동 망월마을에서 발견되었다. 풍암마을 지석묘의 형태는 상석이 280×220cm의 부정형이고 하부 적석범위는 350×170cm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다. 상석을 중심으로 18×12m의 구역을 조사하였으나 매장시설 및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3 광주 풍암지구

13.1 개발사업 개요

광주 풍암지구 택지개발은 광주지역 인구유입에 대비해 주택난 해소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사업대상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 풍암, 매월동, 남구 주월동 일원에 면적 2,055,769.3㎡이며, 사업비 408,651,000,000원, 계획인구수 62,086명, 건설호수 18,814호이다.

전남대학교 박물관이 진행한 풍암지구 지표조사(1995.7.10.~1995.8.7)를 통해 지석묘, 입석, 기와가마, 유물산포지 등이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발굴조사(1996.6.1.~1996.8.21.) 결과 청동기시대 지석묘 2기, 철기시대 수혈유구 1기,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2기, 이형유구, 수로, 조선시대 기와가마 3기, 입석 3기,

금호동 망월마을 지석묘는 상석이 부정형으로 210×205cm의 크기이고 하부 적석크기는 410×370cm이다. 장축방향은 북-남으로 보이며 상석이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간 이동된 것으로 판단된다. 적석 하부에서 매장시설은 찾을 수 없었으며 토기와 석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망월마을 지석묘 서쪽으로 2m 떨어진 지점에서 방형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가 발견되었으며 탄화된 목재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표29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2)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풍암동 금당산 계곡 상류의 분지에 주거지 유구가 위치하며 발굴조사 이전까지 논으로 경작되던 곳이다. 주거지 2기 이외에도 부정형 유구와 소굴, 수로가 확인되었다.

주거지 2기는 모두 삼국시대 수혈주거지로 1호 주거지는 방형에 가까운 평면 형태를 가졌으며 570~670×610~1520cm 규모이다. 2호 주거지는 1호의 ㄸ쪽에 위치한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며 크기는 약 550×670cm 정도이다. 주거지 내부에 기둥구멍 4개가 사각형을 이루며 나타났으며 용도를 알 수 없는 50~60cm 깊이의 용도불명 구멍이가 확인되었다.

2호 주거지 서쪽에서는 너비 9~10m의 수로가 조사되었다. 곡간 지형을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내부에서 토기가 출토되었다. 1호 주거지 남동쪽에서는 10여개의 작은 구멍과 함께 타원형에 가까운 부정형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삼국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표30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3) 조선시대 기와가마

풍암마을 맞은편 아산에서 3기의 기와가마가 발견되었다. 1호 가마는 동쪽 경사면을 뚫고 만들어진 굴식

등요이고, 2호·3호 기와가마는 남쪽 경사면을 옆에서 파고들어가 만든 지하식 등요이다. 2호·3호 기와가마의 배치나, 크기와 출토된 기와편 등을 고려했을 때 조선시대 가마로 추측된다. 또한 두 가마의 배치가 나란한 점, 연도부 뒤쪽이 연결된 점을 볼 때 서로 비슷한 시기에 기와를 소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1호 가마는 2호·3호 가마와 축이 다르고 크기와 구조가 다른 점을 고려했을 때 두 가마보다는 시기적으로 이른 가마로 판단된다.

표31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4) 입석

조사지역에서 총 4기의 입석이 확인되었으며 풍암동 풍암마을에서 3기, 금호동 망월마을에서 1기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풍암마을 입석은 마을 입구 당산나무 주변에 3기의 입석이 33m 간격으로 나란히 위치했으며 금줄이 둘러져 있다. 크기는 1호 입석이 183×54cm에 적석 크기 415×350cm, 2호 입석이 287×65cm에 적석 크기 340×270cm, 3호 입석이 200×80cm에 적석 크기 512×364cm이다. 적석 사이와 적석 하부에서는 근대기에 제사를 지내면서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옹기편이나 사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표32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5) 풍암마을 왕버들

풍암지구 택지개발 이전 풍암마을 입구에 왕버들나무와 입석군이 자리하고 있었다. 왕버들나무의 크기는 수고 9.7m, 흉고둘레 5.5m에 수관발달사향은 동서방향으로 11.5m, 남북방향 10.2m이다. 풍암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대보름에 이 왕버들나무를 할머니 당산, 또 다른 나무를 할아버지 당산으로 삼아 당산제를 지냈다.

풍암지구 택지개발과정에서 왕버들나무의 당산나무로서의 성격은 인지되지 않았고 시지정 보호수로서

풍암 금호타운 1차 아파트 옆 당산어린이공원 부지로 이식되었다. 아파트 준공 이후 마을 주민들은 매년 당산나무를 대상으로 하여 당산제를 개최하고 있다.¹⁸⁵

표33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13.3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식

광주풍암 택지개발지구 지표조사단계에서 조사단은 기존 문헌자료, 현지답사 및 현지인 인터뷰를 통해 지석묘, 입석, 기와가마, 유물산포지 등을 파악했다. 이 중 지석묘 2기와 입석 4기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구조물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근 공원지구에 적절한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 복원 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사단의 제안을 바탕으로 광주풍암지구 문화유적 보존방안을 검토하였다. 지표조사 시행(1995.7.10.) 이전에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1994.12.2.)되었고 주택건설업체에 토지가 선수공급(1994.12.16.) 된 상황이었다. 기존 개발계획 상 지석묘와 입석은 주택지나 도로구역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토지개발과 유적 보존 사이에서의 가치판단이 필요했다. 유적을 현지에 보존할 경우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며, 계획을 수정할 경우 토지개발 효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이던 토목작업을 재시행 해야했다. 풍암지구의 문화유적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비해 현실적으로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어 지석묘, 입석에 대한 이전 복원이 결정되었다.

보존방안 검토 과정에서 입석은 당산나무와 함께 주민들의 의례행위 대상이었으므로 당산나무 이식 예정장소에 이전 복원되는 것이 결정되었다. 지석묘의 경우 발굴조사결과 구조상 특수성을 보여 입석과 함께 이전 복원하여 지역 향토문화재 및 동지역의 선사시대 문화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998년 초에 당산나무가 지구 내 당산어린이공원으로 이식이 완료되었고 6월 중 부지가 조성됨에 따라 지석묘와 입석의 이전복원이 시행되었다.

185 전남대학교 박물관, 1997, 『광주 풍암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지석묘와 입석 이전 복원 후 전경



당산 어린이공원 현재 전경

자료 : 저자 촬영

13.4 역사문화자원 관리 현황

이전 복원된 입석군은 현재 당산나무와 함께 당산제의 신앙대상이 되고 있다. 풍암동 주민들은 택지개발계획 이전부터 매년 정월 보름마다 당산나무와 입석군에 당산제를 지내왔고, 준공 이후에도 당산제를 지속했다. 2005년에는 풍암동 마을주민들을 중심으로 풍암골 신암마을 당산제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당산제를 지속하고 있다. 이 때, 당산제는 단순히 의례적 행사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축제로서 치러지며 마을주민, 지역 정치인, 행정관료 외에 외부인도 참석 가능하다. 광주시에는 풍암동 이외 지역에서도 매년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한 사례로 문흥지구도 풍암지구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 과정에서 기존에 당산나무를 보호하고 부지 내 공원으로 이식하여 당산제 행사를 지속하고 있다.



신암마을 당산제(2015년)



문흥지구 당산나무

자료 : 저자 촬영

지석묘 및 입석군 이전복원은 당산제라는 의식행위의 구심점을 보존하는 효과를 낳았으나 개발구역 내 공원 활용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인다. 기존에 아파트단지 어린이공원으로 계획된 구역을 나눠 일부를 놓이터, 일부를 이전복원 부지로 활용하다보니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과 교육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여러 기능을 넣음으로써 공원부지가 협소해졌고, 각 기능 간에 연속성이 떨어진다.

13.5 시사점

광주 풍암지구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식은 대다수의 개발지구에서 나타나는 수량이 많은 보호수나 발굴된 유적의 보존을 위한 역사공원 조성의 유형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풍암지구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사례는 발굴된 입석 및 지석묘의 보존이 주요 골자였으며, 당산나무는 단순히 보호수이며 입석 및 고인돌과 같이 제의적 성격을 가진 유산이라는 이유로 함께 공원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당시 의도되지는 않았으나 개발사업 당시 사라진 주변 마을과 기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속시켜주는 당산제라는 의식행위의 물리적인 구심점을 보존하였다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다른 사례에서의 역사문화자원이 과거에 대한 기념물적 성격을 가지는 단순 전시 및 관람의 대상으로 기능한다면, 풍암지구의 역사문화자원은 개발사업 당시 필연적인 지역 정체성과 맥락의 훼손과 단절을 극복하는 구심점으로서 기능하며, 이로 인해 역사문화자원이 현재적이고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지속하게 되었다. 풍암지구는 비록 의도되지 않았으나, 기존 지역 공동체와 정체성, 무형적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III 국외사례



1 일본 오타루시 도시경관 정비

1.1 개발사업 개요

일본 오타루시는 홋카이도 시리베시 종합진흥국 내의 중도시로, 청어잡이 등 어업으로 번성하던 도시가 인근 석탄 매장지의 발견으로 인한 철도 및 항만 건설과 함께 번성하게 되었으나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구도심의 옛 경관을 철거하고 재개발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단계부터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자원 보존운동에 의해 운하를 비롯한 산업유산이 형성하는 구도심의 재개발 논의는 경관 보존과 관광도시로서의 정비로 전환되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운하와 목골석조창고군 등 오타루시의 도시정체성을 함축하는 역사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지 정비의 우수한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표1 오타루 산업유산 활용 도시정비 사업 개요

오타루 운하 및 목골석조창고군		사업개요
		• 사업명 : 오타루시 도시정비사업 • 위치 : 일본 홋카이도 시리베시 종합진흥국 오타루시 • 면적 : 243.1km²(오타루지역)
사업연혁		
1923	오타루 운하 준공	
1966	오타루 운하 매립 및 재개발 계획 승인	
1971~1973	아리호로초 창고군 철거	
1973	‘오타루 운하를 지키는 모임’ 발족	
1979	시의 운하 전면매립안 수정안 발표	
1981	운하 매립 및 도도 임항선 건설 계획 시의회 가결	
1982	사업 시행자 대표측의 오타루 운하 개발계획 철회 발표	
1983	운하 매립공사 착공 / 홋카이도지사의 절충안 발표	
1983	‘오타루시 역사적 건축물 및 경관지구 보전조례’ 시행	
1985	28동의 역사적 건축물 선정, 그 중 13동이 ‘오타루시 지정 역사적 건축물’로 지정	
1987	오타루 운하 주변 정비공사 완공	
1992	‘오타루의 역사와 자연을 살리는 마을만들기 경관조례’ 제정 ‘오타루시 지구계획의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1.2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현황¹⁸⁶

1) 오타루의 청어잡이 역사를 담고 있는 어가주택

오타루는 내지인의 정착단계에서 형성된 어촌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 어가주택이 상당수 남아있어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있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오타루는 청어잡이로 번성했던 도시형성 초기단계의 모습을 일부 보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도시 외곽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는 도심지 내 별장 형식으로

186 김병완, 2020, 「오타루 산업유산경관 보존의 집단기억 관점에서의 해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산재해 있어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다.

대표적인 어가주택은 오타루시지정역사적건축물 제62호로 지정된 구 시라토리케 번옥(旧白鳥家番屋), 홋카이도지정유형문화재인 청어어장건축(にしん漁場建築), 오타루시지정역사적건축물 제75호인 구 이노마타 저택(旧猪俣邸) 등이 있다. 이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엽까지의 오타루시 지역민의 생활 양식을 풍부하게 담고 있으며, 현재도 외관의 일부 변경 외에 보존 상태가 양호하게 남아 있어 학술적·건축적 가치가 큰 역사문화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표2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

2) 오타루의 발전기를 보여주는 철도 관련 역사경관

오타루는 시 인근 소라치 지구에서 발견된 막대한 양의 석탄을 운송하기 위해 테미야-삿포로간 관영 호로나이(官営幌内) 철도가 부설되며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오타루의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구 테미야선(手宮線)과 구 테미야 철도시설(旧手宮鉄道施設, 국가지정중요문화재)은 오타루의 철도 관련 역사문화 자원으로서, 현재는 운영하지 않지만 도심지의 역사경관으로 기능하는 주요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철도 관련 역사문화자원은 현재 도심지 내의 산책로 등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일부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

표3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

3) 근대 산업도시로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운하의 풍경

석탄 운송으로 인해 홋카이도 핵심 물류도시로 성장한 오타루는 운하의 건설과 함께 호황의 절정기를 맞는다. 운하의 준공과 함께 그 주변에 건설된 물류 적재를 위한 목골석조창고군은 오타루의 역사적



청어어장건축



구 이노마타 저택

자료 : 小樽市, 2018

경관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사문화자원이다. 오타루시지정역사적건조물의 상당수는 이 운하 인근의 목골석조창고군이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는 보존된 운하와 목골석조창고군에 의해 형성되는 바가 크다.

오타루시의 운하경관은 특히 도심지 재개발사업의 논의 시점에서 전면 매립을 통한 도로확충과 상업편의시설 건설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본 사례조사의 핵심적인 역사문화자원으로 볼 수 있다. 오타루운하의 매립 결정은 곧바로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이는 ‘오타루 운하를 지키는 모임’의 발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로 전개되었다. 오타루의 역사적 경관을 지키려는 시민사회의 운동은 곧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며 사회 각기의 지지를 얻어내었고, 운하의 전면매립 및 목골석조창고군의 철거와 재개발이라는 시의 주장을 운하 반철 매립 및 목골석조창고군 보존이라는 절충안으로 이끌어내는 주력이 되었다.

표4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 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									

4) 상업도시로서의 풍경을 보여주는 은행 건축군

오타루시는 물류도시로의 성장 이후 도심지에 다수의 은행건축이 들어서게 되며 북의 월가로 불릴 정도로 금융산업이 번성하게 된다. 19세기 말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오타루의 은행 건축은 나가노 우헤이지



구 테미야철도시설 및 폐선된 테미야선을 활용한 현재의 산책로



자료 : 小樽市, 2010

(長野宇平治), 다쓰노 킨고(辰野金吾) 등 중앙에서 활약한 저명한 건축가에 의한 작품을 다수 남기고 있다. 오타루시의 자료에 의하면 1923년 오타루 시내에 출점한 은행의 수는 25개소에 이르렀다고 하며,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은행 관련 역사문화자원은 12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 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

5) 오타루 운하보존운동과 시민운동의 문화적 인식

오타루의 사례는 역사문화자원이 보존의 대상이 되는 유형적 요소뿐만 아니라, 보존과정을 통해 발아한 시민운동과 그 문화적 인식 또한 역사문화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타루의



오타루의 역사를 설명하는 인력거꾼과 운하 크루즈

운하보존운동은 단발적인 시민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집단적인 인식 속에 각인되어 이후의 오타루 도시경관정비 과정에 깊게 개입하고 영향을 주게 되었다. 오타루 도시경관 기초의 일관된 경향인 시민참여 독려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축제 개최, 자원봉사자에 의한 도시 역사문화 안내 활동 등은 시민운동문화라는 오타루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표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1.3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식

상기한 오타루의 역사문화자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래 주거건축이었던 어가건축은 현재 고급 숙박시설인 료칸 등으로 활용되는 것이 다수로 분석되었으며, 오타루의 철도 관련 역사문화자원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선적 개념의 경관으로서 산책로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일상적인 활동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다.

오타루 운하 및 주변의 창고건축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실제 상업시설 및 전시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 오타루 창고(旧小樽倉庫)는 현재 오타루의 역사를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구 시부사와 창고(旧渋澤倉庫) 등은 식당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창고건축은 현재도 상업시설의 부속시설로서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보였으며, 이외의 카페, 공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됨을 확인하였다.

은행건축은 대체로 공간적인 특성으로 인해 상업시설 또는 공업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와인을 판매하는 고급 식당시설 등으로 활용되는 등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상기한 바와 같이, 오타루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으로서 무형의 시민적 의식은 다양한 시민참여의



구 하쿠슈산은행 오타루지점



구 홋카이도은행 본점

자료 : 小樽市, 2018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타루의 주요 축제 중 하나인 오타루눈빛거리축제, 우시오마츠리 등은 오타루 운하보존운동의 주역이 중심이 되어 민·관에 의한 합동 개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타루 안내인 제도의 운영 등은 과거 시민운동을 통한 오타루의 역사문화자원 보존 운동이 현재에도 이어져 역사문화자원 그 자체로서 기능함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1.4 역사문화자원 관리 현황

현재 오타루의 역사문화자원 대다수는 오타루시 지정 역사적 건조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동결보존이 아닌 활용을 통한 보존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역사문화자원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로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 주체에 따라 문화재적 측면은 공공기관의 규제와 지원을 통해, 활용적 측면은 공공 및 민간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제된 역사문화자원이 아닌 생동하는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오타루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식은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의 관리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양 극단의 논의 가운데에서 보존과 활용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5 시사점

오타루 도시정비 과정에서 역사문화자원은 도심지 재개발을 멈추고 도시정비계획으로 전환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따라서 본 사례는 도시개발에 있어서의 활용 프로세스 중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해 도시개발계획 자체가 중단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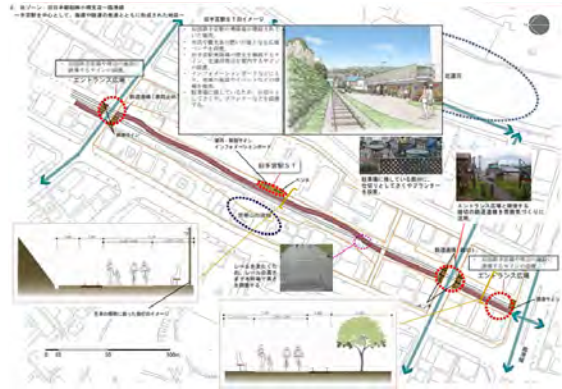
시 당국은 물류산업의 쇠퇴 이후 방치된 운하와 그 주변 창고건축을 매립·철거한 뒤 형성된 부지에 도로 폭을 확충하고 상업근린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하였으며,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시의회를 승인을 득하는 단계까지 추진하여 실제 사업시행단계까지 진입하였다. 그러나 시민운동에 의해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도시개발 사이의 논의가 전국단위로 진행되었고,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세이부 유통그룹의 사업 철폐 선언으로 도지사의 절충안이 채택되며 현재의 오타루 도심지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도시개발에 있어 역사문화자원의 고려가 갖는 중대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역사문화자원을 개발논리에 의해 철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거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료칸으로 활용되는 구 이노마타 저택의 모습

자료 : www.ginrinsou.com



구 국철 테미아선 활용계획 일부

자료 : 小樽市, 2010

채 추진하는 개발계획은 필연적으로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거주민의 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된 역사문화자원의 경우 시민에 의해 개발단계에서 그 계획이 무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역사문화자원을 개발사업 시행 이전 단계부터 고려해야하며, 그 단계에 있어 단순한 역사적·기념비적 자원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의 일상적 배경이 된 역사문화자원 역시 고려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해야할 것이다.

2 미니애폴리스 도로개발과 밀 루인스 파크 계획

2.1 개발사업 개요

미니애폴리스 밀 루인스 파크(Mill Ruins Park) 정비계획은 두 개의 도로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유적을 보존하며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개발사업의 사례이다.

St. Anthony Falls의 역사적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미니애폴리스의 해당 지구는 1971년 NRHP(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되었으며, 1980년대 도로공사 및 공원개발에 따른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에 미네소타 고고학회의 시군 고속도로 고고학자 발굴조사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1820년대부터 1870년대까지의 도심지 역사문화자원이 발굴되어 보존 논의가 촉발되었다.

미네소타 고고학회 및 정책당국은 논의와 조율 끝에 ‘역사와 재현’을 목표로 19세기 번성했던 미니애폴리스의 모습을 보존하여 공원 개발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여 현재의 밀 루인스 파크를 조성하게 되었다.

표6 미니애폴리스 밀 루인스 파크 개발 계획 개요

미니애폴리스 역사경관지구		사업개요
		• 사업명 : Mill Ruins Park 정비계획 • 위치 : 102 Portland Ave S, Minneapolis • 면적 : 119,266㎡
사업연혁		
1971	대상지가 포함된 St. Anthony Falls 역사지구가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NRHP)로 지정	
1983	미니애폴리스 시내 서쪽 강변으로 웨스트 리버 파크 웨이 확장 사업 검토	
1983	미니애폴리스 공원 의뢰로 미네소타 고고학회의 시굴조사 실시 / 19세기 말의 다양한 유적 발견	
1985	Hannapin Avenue Bridge의 교체에 따른 조사 실시	
1988	세인트 안토니 폴 유산위원회와 공원위원회에 의해 공원 개발계획 수립	
1988-2001	Mill Ruins Park 발굴조사 실시	
2001	Mill Ruins Park 개장	

2.2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현황

1) St. Anthony Falls 국립역사유적지구

미니애폴리스의 도로 개발사업 이전에 이미 지정되었던 역사유적지구로서 15개소의 건물, 2개소의 다리, 2개소의 자연적 특징 및 1개소의 공원이 중요자산으로 등록되었다. 1971년 지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지정 건축물 중에는 Washburn A, Pillsbury A Mills, Stone Arch Bridge 등이 포함되었으나, 현황으로 잔존했던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매장되어 있는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수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미네소타주 역사보존소는 역사지구에 대한 목록을 갱신하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물 46채 및 고고학적 유적지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기록하였다.

표7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									

2) 도로개발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철도유적, 제분소 및 제재소 유적 등

1983년 St. Anthony Falls 역사지구를 대상으로 한 웨스트 리버 파크웨이의 개발사업이 착수되며 Bassett’s Creek 구역에서 19세기 말의 다양한 철도유적, 제분소 및 제재소 유적이 발굴되었다. 철도 원형 주택(railroad roundhouse)의 잔해(1891-1920), North Star Sawmill(1878-86)의 중장비 기반, 웨스트 사이드 파워 컴퍼니(West Side Power Company, 1884-95)의 비어있는 지하시설과 Pacific Sawmill(1866-87)의 광범위한 기반 등이 발견되었으며, 게이트웨이(Gateway) 구역에서는 1920년대부터의 Great Northern Railroad, 존 스티븐스 주택(John Stevens house)의 원래 위치 옆에 조성된 주거지와 연관된 공예품, Hennepin Avenue의 현수교 탐 기반이 발견되었다.¹⁸⁷

이에 따라 1985년 미니애폴리스 공원측은 미네소타 고고학회에 의뢰하여 Hennepin Avenue Bridge 건설 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1854년 조성된 기존의 다리는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른 가장 이른 시기의 다리로, 밝혀졌으며, 1985년의 조사에서는 현수교의 케이블용 철제 닻과 케이블을 부착한 연결봉 일부를 발굴하였다.

187 Scott Anfinson (2003). Unearthing the Invisible: Archaeology at the Riverfront, Minnesota History, 58(5), 320-331.

1998년 Mill Ruins Park에 대한 본격적 발굴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19세기 말의 미니애폴리스를 보여주는 다수의 유적이 검출되어 미니애폴리스의 역사성을 대변하는 역사문화자원으로 인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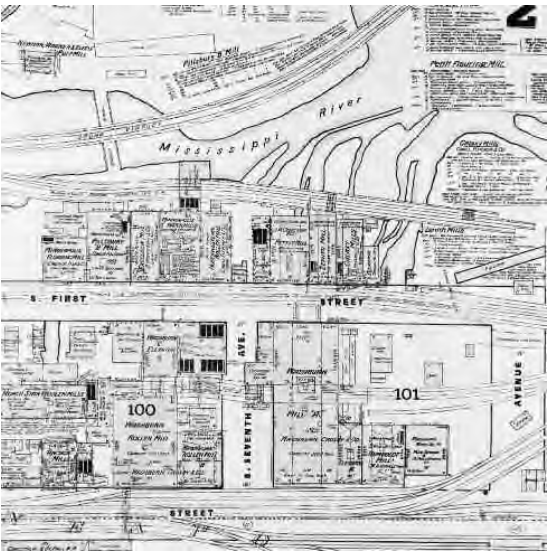
표8 사업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및 논의 시점 (○ : 인식, ◎ : 논의)

후보지 선정	사업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문화재 지표 조사	택지 조성	설계 지침 작성	계획·실시 설계	착공	2차 문화재 발굴	설계 변경	준공
			○					○	◎	◎

2.3 개발사업지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식

Mill Ruins Park는 발굴조사 결과 검출된 유적을 공원정비의 요소로 적극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정책당국은 미네소타 유적의 잔해에 대해 토지는 유한한데 비해 노출된 폐하는 위험할뿐더러 반달리스트, 불량자 등을 끌어들이는 ‘유혹적인 골칫거리(Attractive Nuisances)’로 여기며 꺼려하였다. 그러나 위험하고 미관상의 저해요소로 인식된 유적은 도시의 부흥기에 대한 역사적 증언으로 기능한다는 견해와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에 의해 보존되었으며, 상징성을 갖는 과거의 교각 유구 및 제분소 유적 등은 철거되거나 복토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공원의 요소로 활용되었다.

발굴된 유적은 교육, 관광, 상업적 발전을 위한 자산이 되었고, 공원이 조성된 이후 이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은



Sanborn Fire Insurance map, 1885년



과거 제재소 배수로



과거 현수교의 연결부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이 되었다.¹⁸⁸ 역사적 경관층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역사적 맥락 내에서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우수한 사례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에 대한 적극적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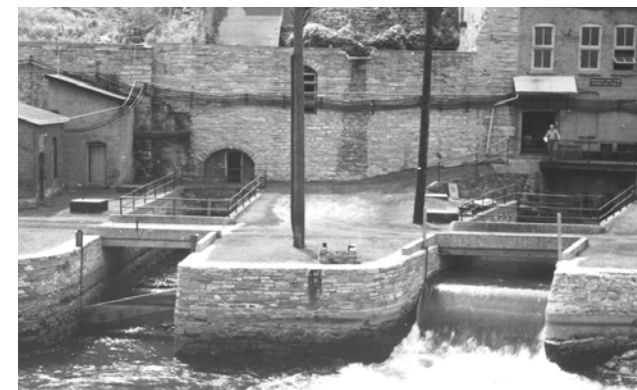
특히 운하를 중심으로 한 수변공간을 선(線)적 공원으로 개발하였으며, 발굴조사의 주 동인이 되었던 리버사이드 파크웨이 및 Hennapin Avenue Bridge의 건설과 조화된 점이 주목된다.

2.4 역사문화자원 관리 현황

현재 밀 루인스 파크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 시민친화적 장소로서의 수변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발굴조사 결과 역사적 배경이 새롭게 발견된 일부 건물은 외피를 보존하고 내부를 변경하여 전시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적 내에서 검출된 역사문화자원은 유적공원 내에 존치되어 시민에게 미니애폴리스의 역사를 환기시키는 상징물로 기능하고 있다.

현재 밀 루인스 파크는 공원 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경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개발사업 대상지구 뿐만 아니라 주변 신축공사 및 개보수에 대한 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등, 사업 준공 이후 단계에 있어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8 CPED (2012). St. Anthony Falls Historic District Design Guidelines.



Workers reconstructing the mill tailraces, about 1900
(1900년경, 제분소 방수로를 재축하는 작업자들) /



정비된 Mill Ruins Park의 모습

2.5 시사점

Mill Ruins Park는 두 차례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과 함께 지역 고고학회의 발굴조사가 선행된 사례로서, 개발사업의 절차적 보편성을 갖는 사례이다. 특히 Mill Ruins Park는 개발사업의 대상부지가 1971년 이미 국가지정 역사적 장소로 등록된 구역으로 해당 지구에 대한 발굴조사가 필수적이었으며, 이에 대해 시군 도로 고고학자의 책임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한 사례로 주목된다.

두 차례의 사업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도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을 다양한 층위 내에서 검출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 연구를 거쳐 미니애폴리스의 산업발전 단계 및 과거 도시의 위상을 밝혀내었다. 밀 루인스 파크는 개발과정에서의 개발목적과 역사적 유적의 보존이라는 양립된 가치를 모두 획득한 사례로서 발굴과정 및 보존과 정비계획의 요소로 도입한 과정 등에서 시사점이 큰 것을 판단된다.

발굴된 유적은 대부분 19세기 초반부터 말까지의 유적으로, 제분소, 제재소 등과 관련된 사업유산의 건물지, 중장비와 관련된 유구, 산업시설과 관련된 운하와 배수로 등이 검출되었다. 이들에 대한 잔해는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위험요소 내지는 미관저해요소로 인식되었으나, 고고학위원회 및 설계담당자의 적극적 검토로 공원계획의 주 요소로 활용되었다.

특히 2001년 공원 개장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비된 St. Anthony Falls 역사지구는 해당 지구의 경관관리를 위해 역사지구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지침을 마련하였다. Minneapolis Community Planning & 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 (CPED)의 가이드라인은 디자인 지침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도시의 역사적 배경, 발굴조사의 개요, 유적의 현황 등을 서술하여 설계담당자에 대한 이해도와 맥락보존 검토성을 제고하고 있다.



Mill Ruins Park 마스터플랜

CPED는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이 ‘역사지구가 그 시기에 동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역사적 특징을 해석하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진화와 변화를 표현하려는 것’에 있다고 밝히며 단순보존이 아닌 현재의 가치로 전이하려는 가치를 지향함을 밝히고 있다.¹⁸⁹

이와 같은 관점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준공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통상 택지개발사업 내지는 신도시 개발사업은 준공 단계 이전까지의 프로세스가 주요하게 다뤄졌으며, 사업 준공 이후 기 준공된 역사문화자원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에는 소원한 측면이 국내 사례를 통해 발견되었다. 밀 루인스 파크의 사례를 통해 도시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등 사후적 관점에서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관련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시 형성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3 일본 나라현의 역사경관 정비

3.1 개발사업 개요

710년 후지와라쿄(藤原京)에서 헤이조쿄(平城京)로 천도를 하면서 본격적인 나라시대가 시작하게 된다. 궁성인 헤이조쿄 역시 중국의 장안성의 도성제를 모방하여 조성되었으며, 784년까지 5년간의 공백을

제외하곤 수도로서 번영하였다.

헤이조쿄우 스자쿠오오지(朱雀大路)의 북단에는 스자쿠몬(朱雀門, 朱雀門)이 위치한다. 이 스자쿠몬을 지나면 바로 헤이조궁(平城宮)의 영역이 시작된다. 헤이조궁은 주작문을 비롯해 모두 12개의 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 내부는 다이고쿠덴(대극전, 大極殿), 초우도우인(조당원, 朝堂院), 다이리(내리, 內裏), 소우시(조사, 曹司)의 크게 4개의 영역과 정원 등의 기타 영역이 존재했다. 나라시대에 수도를 잠시 옮긴 전후로 대극전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기에는 스자쿠몬(朱雀門)의 진북방향이었으나 후기로 가면 동쪽구획에 궁성영역 옮긴다. 헤이안쿄(平安京)로 천도하는 794년 이후 이곳은 방치되어 농지가 되었다.

에도시기에 키타우라 사다마사는 헤이조의 전체 영역이 밝혀졌다. 그리고 나라공원의 식목을 담당하고 있던 타나다 카즈조는 사재를 털어 궁터보존에 평생을 바쳤다. 궁터 근처에서 살고 있던 미조베 분시로의 도움과 더불어 특히 지역주민인 사키 사람들과 협력을 보존운동의 지역도시민과의 이해와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1910년 헤이조쿄 천도 이백년 축제가 진행되었고 1913년에는 나라 대극전 보존회를 설립했다. 대극전 보존회 설립 직후, 1914년에 야마토 사이다이시-긴테츠 나라(大和西大寺-近鉄奈良) 사이에 철도가 개통이 되었는데, 긴테츠(近鉄)의 전신인 오사카 전기 궤도에 의해 개통되었다. 철로가 개설되던 당시에는 헤이조궁이 있던 장소가 사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궁지 일대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다. 따라서 대궐도 별다른 의식 없이 궁궐터를 가로지르는 루트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궁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1922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키타우라 사후에 1922년 헤이조 궁터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게 되었다. 1998년 고도 나라의 문화재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3.2 역사지구 보존과 개발

세키노 다다시는 1897년 고사사법 제정에 따라서 초대 나라현 기사로서 고사 보존 수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라현 재직 중에 헤이조쿄 연구를 시작하여 1900년에 헤이조쿄와 다이리라는 기사를 나라 신문에 게재했다. 1907년 헤이조와 나다리리에 대한 견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완성했다. 한편 키타 사다키치는 세키노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게재하여 논쟁을 일으켰다. 그들의 연구에 의해 헤이조쿄의 조방, 궁내의 건물구성, 일본과 중국의 수도 비교 등 현재 헤이조 연구의 기초가 구축되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과 일본패망 이후 헤이조궁은 다이쇼시대에 지정된 내리와 2차 대극전, 조당원 지구가 사적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 후 헤이조궁에 잇따른 개발에 노출된다. 1952년 전차 조차장 건설반대운동, 1962년에 동쪽 부분에 국도 24호선 우회통과계획이 부상했다. 1952년에 헤이조 궁터는 특별 사적으로

189 CPED (2012). St. Anthony Falls Historic District Design Guide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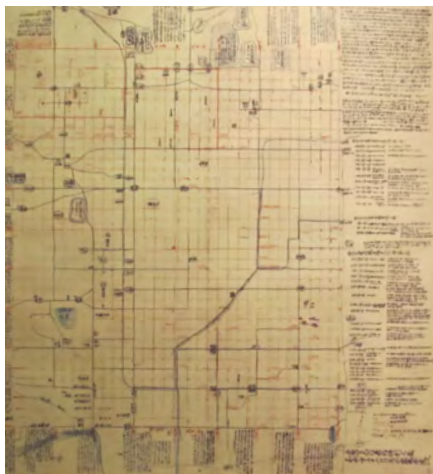
1961년 전차 조차장 건설반대운동(좌) 및
1962년 국도 24호선 우회통과계획 반대운동(우)

지정, 긴테쓰는 궁터를 가로지르는
부분에 차량기지 정비를 고려했으나
'국민적 여론에 의해 중지'가 되고, 대신
카시하라선(橿原線)의 야마토니시다이지-
아마가츠지(大和西大寺-尼ヶ辻) 사이에
차량기지를 정비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보존운동이 일어나서 미지정 지역에
대한 사적 추가지정을 결정하고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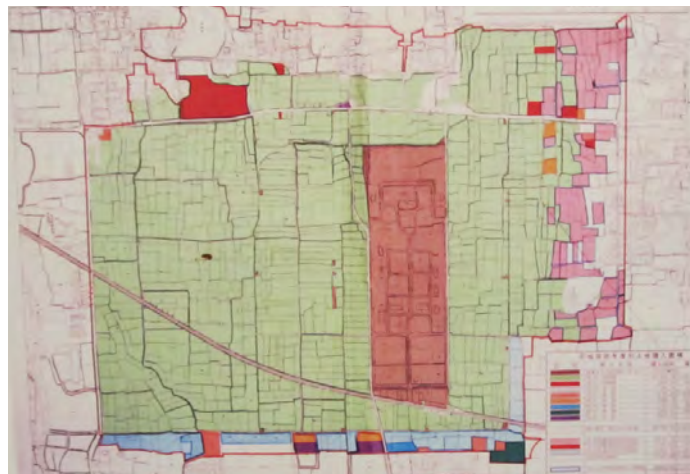
궁내의 거의 전역이 특별사적으로 지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요 유적을 지키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사적지 내에 평생을 살아온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제공하는 협력에 힘을 입어서 헤이조의 현재 모습이
이루어졌다. 결국 국도 24호선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도의 루트가 변경되었다.

3.3 유적활용과 개발간의 논의과정

최근에 1914년에 철도가 개설된 이후 오랫동안 여러 협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던 나라현과
나라시, 킨키 닛폰 철도의 3자는 2020년 7월 16일, 헤이조 궁터를 횡단하는 킨테쓰 나라선의 이설을 향한
협의의 개시에 합의했다. 선로 이설과 역 신설이 결정되면 평성궁의 원래대로 복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익숙한 경관으로 인식되어온 역사와 현대가 교차하는 평성궁과 전철이 동거하는 풍경은 마지막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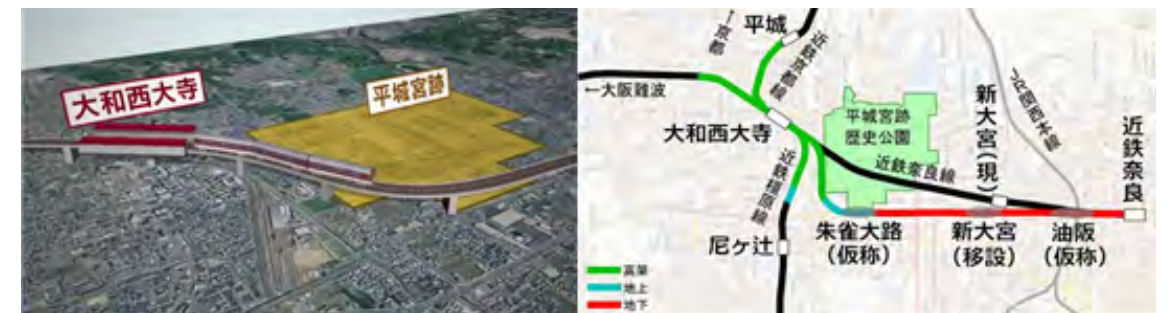
에도시기 키타우라 사다마사에 의해서
작성된 헤이조의 복원안



1910년대 서양식 측량방식을 통해 영역확정
(1914년 철도 개설)



정비된 나라현의 헤이조쿄 풍경



2020년 7월에 발표한 철로 이설과 지상철로 고가화 및 철로 지하화 구간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개발의 표상으로 보이는 현대와 고대가 교차하는 헤테로토피아적 경관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 왔다.

40년 전인 1980년대에, 궁터의 내외에 있는 다수의 건물목이 정체로 이슈화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당시의 건설성이나 나라현, 나라시, 킨테쓰(近鉄)는 역의 고가화나 궁터내의 선로의 지하화
등에 의한 건물목의 해소를 검토했지만, 방대한 비용이 드는 문제, 궁터 내에 묻혀 있는 목간 등의 문화재
보호가 큰 장애요소가 되어서 구체화시키지 못했다.

2020년 7월에 발표한 나라현의 제안은 긴테쓰 나라선에 대해 야마토 사이다이지역을 고가화하고
고가선로를 남하시켜 주작문 남쪽으로 우회시켜 오미야도리(현도 1호/국도 369호)를 확대, 중앙에 선로를
배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헤이조궁터 동쪽으로부터 지하」를 진행하여 킨테쓰 나라역에 이르는
새로운 철로를 개설하는 안을 제안했다.¹⁹⁰

190 역에 대해서는 신오미야역을 신루트로 이전하는 것 외에 헤이조궁 남쪽의 스자쿠문 부근에 「(가칭) 스자쿠 대로」, JR간사이
본선과의 교차부에 「(가칭) 아유한」의 2역을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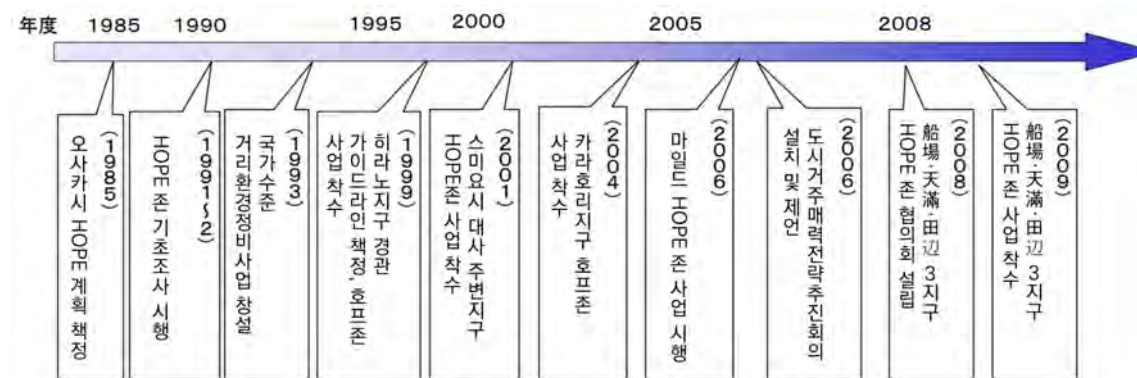
4 일본 오사카의 도시경관 정비

4.1 개요

HOPE 지구사업은 역사적, 문화적 분위기나 거리풍경 등 거주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민과 제휴·협력하여 다양한 도시 활동을 전개하면서 각각의 거리의 특성을 살린 거리풍경을 구축해 다이내믹한 거주지조성을 목표로 사업이다. “HOPE”는 “Housing with Proper Environment”의 약어로, “지역 고유의 환경을 살린 거주지 만들기”의 약어이며, 액면 그대로 보면 “희망”이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HOPE 지구사업은 역사나 문화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주택지의 형성을 목표로 하여 현지의 분들과 협력하여 주택지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다. HOPE 지구사업은 도시거주의 매력 창출과 그 활성화를 위해서 역사적·문화적 자원의 풍부한 지구를 선정하여 지역성이나 역사성의 발전적 계승과 거주지의 매력 만들기를 추진하여,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성이 추진하고 있는 보조제도인 「거리 수준 환경정비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제휴·협동하면서



HOPE 지구사업의 대상지



사업의 연혁 및 흐름(저자 번역 편집)

지역 고유의 애착심을 지닌 거주지형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섯 지구에서 각각의 ‘가로풍경 만들기의 주제’에 따라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각 지구의 재생사업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상이한데 후나바(船場) 지구의 경우는 “근세·근대의 모습이 빛나는 가로풍경 만들기”, 텡마(天満) 지구는 “큰 바닷가와 어울리는 거리풍경 만들기”, 다나베(田辺) 지구는 “가도와 역사가 풍겨나는 상가의 거리풍경”, 히라노고(平野郷) 지구는 “축제가 어울리는 가로풍경”, 카라호리(空堀) 지구는 “연속적인 가로풍경”, 스미요시 타이샤(住吉大社) 주변지구는 “스미요시의 역사와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사계절에 빛나는 가로풍경”¹⁹¹ 등의 구현을 사업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활동을 마친 사천왕사가 위치한 우에마치-다이치(上町台地) 마일드 지구가 있다.

4.2 역사지구 개발

1) 카라호리(空堀) 지구 (면적 : 약 36ha 인구 : 약 7,000인)

카라호리는 도요토미 시대에 오사카 성곽의 바깥 해자에 위치한 것에서 지명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카라호리 일대는 모래채취에 의해서 발생한 높낮이 차이에 따라서 거리를 따라 줄지어 늘어선 상가나 연립주택이 있으며 골목길을 중심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한 우물 등 공동 시설 등이 있다. 카라호리에는 옛날 그대로의 상가나 연립주택과 그들을 살린 새로운 가게나 집 등이 거리나 골목(로지)언덕과 돌계단을 따라서 연결하여, 어딘가 그리운 지금을 느끼는 운치 있는 가로경관을 갖는다. 카라호리 지구는 도심이면서 전쟁의 피해를 면해서 지금도 이전의 모습을 남기고 있다. 연립주택이나 상가, 비탈길이나 돌계단, 석조골목 등에 의해 형성된 풍부한 가로경관을 가지고 있다. 가로변 상가들은 옛날 그대로의 활기와 지역성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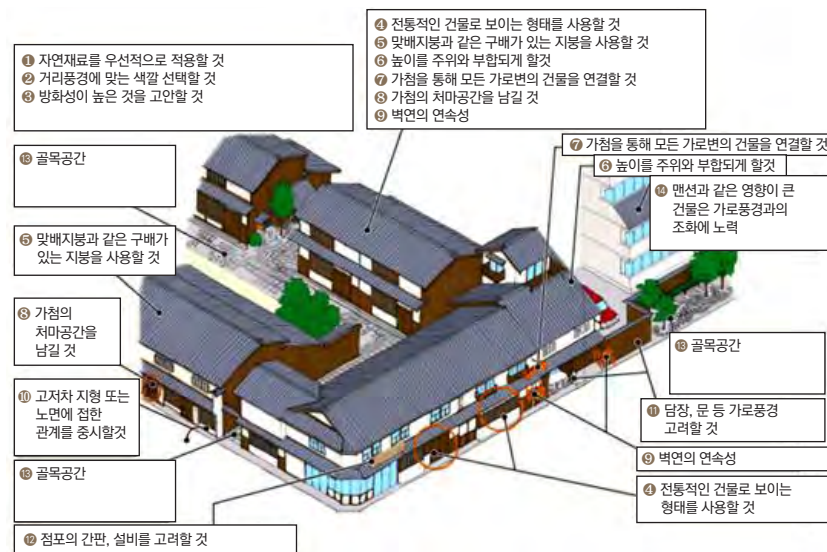
카라호리는 가로경관을 위한 3가지 방침이 있다. 첫째, 옛날 그대로의 건물은 특색을 살리면서 현재 생활에 맞추고 소중하게 사용하여 다음 세대에 계승한다. 두 번째는 신축건물은 옛날 그대로 건물의 장점을 적용하고, 가로경관과 유대를 소중히 할 것, 세 번째, 선대부터 내려온 골목 분위기나 지장보살 등 거리에 남는 문화를 소중히 할 것 등이다.

가로보존의 주요 논점은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소재는 자연소재를 우선하고, 색채는 가로경관보존에 적합한 명도와 채도를 기조로 한다. 높이는 주위를 보고 결정하며 맞배지붕을 기본으로 한다. 가침(차양)을 건물과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처마공간을 만들었다. 전통건물에서 보이는 형태와 디자인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¹⁹¹ 2016년 현재 히라노고 지구 외 스미요시 대사 주변 지구와 카라호리 지구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도(平成25) 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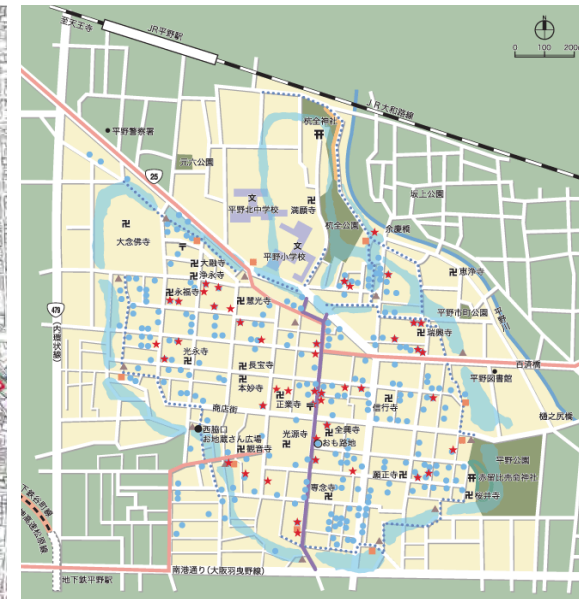
가로보존의 포인트 (저자 번역 편집)

2) 히라노고(平野郷) 지구 (면적 : 약80ha 인구 : 약13,000人)

히라노고 지구는 오사카 안에서도 가장 일찍이 헤이안 시대부터 발달했던 장소이고, 교통 요충지로서 상업이 발전하였다. 히라노고에서 “平野”는 “넓은 들판”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전국시대에는 주위를 호와 토루로 둘러싼 자위를 목적으로 한 환호취락이 등장했다. 이 때문에 거리는 환호를 따라 발전했으며, 『平野衆議定書』로 인한 15조에 이르는 마을법령(町掟)이 제정되어 마을회의에서 마을을 운영하는 자치도시로서 변영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 성을 조영할 때, 성시의 일부에 있는 히라노고 사람들을 성 주변에



히라노고 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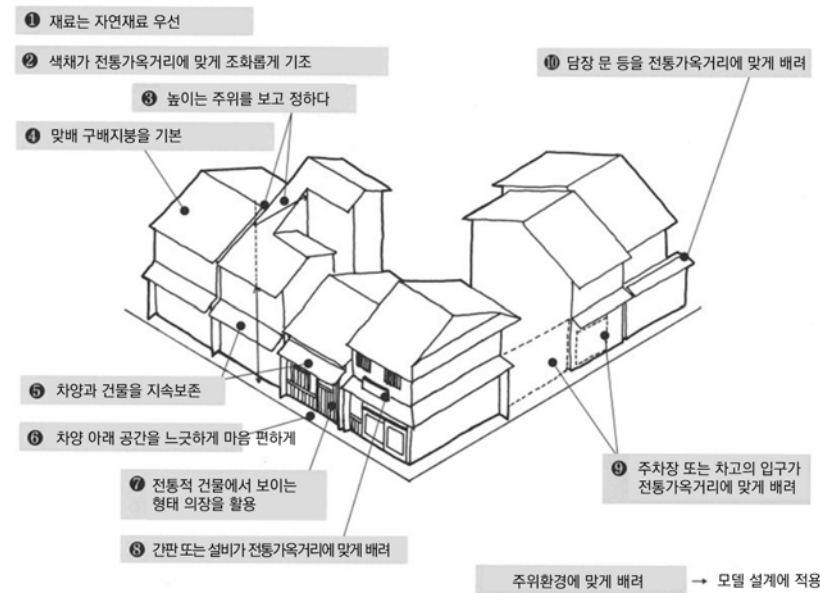


히라노고 관내의 주요 시설물

이주시켰다. 그 때문에 히라노초(平野町)라는 지명이 현재 지명으로 남아 있다. 사카가미(坂上氏)가의 자손과 스에요시(末吉)가를 필두로 노부나가(信長), 히데요시(秀吉)를 극진하게 보호하여 상업활동을 국내·외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도 환호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풍부한 역사자원 등이 남아 있으며, 여름축제 등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며, 역사문화적 분위기가 풍부하다.

히라노고 지구의 많은 마치야 주택들이 도로경계로부터 1~1.5미터의 위치에 벽선을 갖고 설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해서, 1층과 2층의 위치가 변화하는 양식들이 일반적이므로 후퇴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들이 연결되도록 했다. 앞마당 또는 주차장에는 건물을 후퇴할 경우에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하였다. 또한 높게 신축된 건축물의 경우, 도로면에서 2층까지는 관촬으나 3층 이상일 경우에는 3층부터 이격시켰다. 그리고 지붕도 일본풍 경사지붕을 설치해서 가로경관의 통일성을 갖도록 했다. 2층의 신축된 건물에도 1층과 2층을 구분하는 차양에 없을 경우엔 연속성¹⁹²을 위해서 가침을 설치했다. 경관보존을 위해서 자연소재와 소박한 색채는 사용하였다. 특히 이 지역의 주택들의 본보기를 통해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복원할 경우에는 1층 부분은 흙벽에 나무로 요판을 둘러싼 방식을 사용하고, 2층의 경우에는 백색과 검정색을 부가해서 벽면을 구성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창호도 1층부는 격자 또는 출격자 창호와 현관도 격자창을 사용했다. 2층의 경우에는 총룡창(虫龍窓) 또는 격자를 부착한 창호 등 전통적인 의장을 갖추었다.

192 마치나미(まちなみ, 町並み) 형태[전통거리를 강조하였다. 시내에 집·상점 따위가 늘비하게 서 있는 모양[국].



히라고노 역사문화가로 내 디자인 지침 (저자 번역 편집)



히라고노 도시정비사업의 결과 정비된 외관

4.3 유적활용과 개발간의 논의과정

현지주민 등으로 구성하는 「HOPE Zone 협의회」는 오사카시와 제휴 협력하고, 주민의 우리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길러, 거리풍경이나 마을만들기에 대한 의식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참여에 의한 스터디그룹을 결성하고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거리의 매력을 계승하기 위한 디자인 기준이 되는 「거리풍경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가로변 상가의 경관보존정비에 관련해서 오사카시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동시에, 도로의 최소화나 커뮤니티 광장의 정비 등의 공공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지역특성을 계승하는 매력 있는 거주지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본 사업은 관민 협동의 수법에 의해 거리풍경을 정비해 매력 있는 거주지 형성을 도모한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와 현지 협의회가 제휴해 홍보계발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커뮤니티를 보다 충실하게 하여, 거리애착이나 거리풍경 환경정비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기시점에서 사업기간을 일정 10년간 거리풍경 만들기 사업이 계속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우에마치 다이치(上町台地) 마일드 지구이다. 우에마치 다이치 지구는 2006년에 HOPE지구협의회를 결성하고 “이곳에서 사는 사람, 일하는 사람, 마을 건설 단체 등과 연계하여 오사카시와 함께 새로운 도시거주 가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2016년 3월 31일 10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산했으며, 2016년 4월부터 실행위원회로 새로운 목표와 체제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¹⁹³

구체적인 대응으로서 지역 협의회와 제휴 및 협동하여 건물경관보존을 통해서 매력 있는 거리풍경만들기 추진, 거리풍경 경관보존 보조제도, 지역 가로풍경과 마을건설 활동의 활성화, 보조금교부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개수·신축, 부분 경관보존 등을 중심으로 HOPE지역 협의회와의 상담을 거쳐서 공사를 한다. “거리풍경 가이드라인”에는 보조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보조대상은 대지붕, 도로에 면한 외벽, 차양, 창호 등이 있다. 보조 대상은 공사비 2/3이내를 보조하며 한도액이 있다. 도로에 면한 외벽, 히사시(가첨 하부공간), 창호, 큰 지붕 등을 포함한다.

5 미국 독립기념관 광장 정비

5.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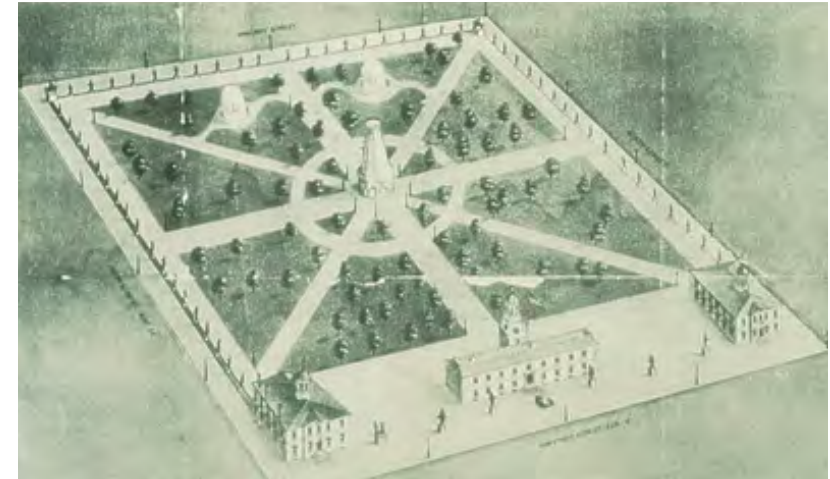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독립 기념관 주변에 확장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제안은 필라델피아인, 특히 건축가와 사회의 구성원들이 18세기의 랜드 마크와 현대 도시의 대조로 인해 불안정한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독립 선언서와 미국 헌법의 발상지를 지키려는 그들의 소망은 제 1차 세계 대전과 제 2 차 세계대전을 동반한 애국심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했다.

¹⁹³ <http://uemachi-hope.net/about/index.html>

1942년, 미국 혁명의 아들의 구성원인 에드윈 루이스 저지는 세 블록의 주립 공원(독립광장물, Independence Mall)을 만들기 위해 성공적으로 로비한 시민 정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룹인 독립홀 협회(Independence Hall Association)를 결성했다. 독립 기념관 북쪽과 동쪽에 3개의 추가 블록이 있는 국립공원. 나중에 독립국립 역사공원으로 통일된 6개의 블록은 “역사적”으로 간주되지 않는 모든 구조물을 제거하여 주로 18세기 건물과 미국 제2은행을 남겨두고 대통령 앤드류 잭슨과 은행 총재 니콜라스 비들 간의 은행 전쟁에서 그 역할이 두드러졌다. 1948년에 건물 내부는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독립국가역사공원은 미국 혁명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를 보존하기 위해 그 해 말 80번 째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독립국립역사공원(Independence National Historical Park)은 4개 도시 블록으로 구성된 조경 지역과 독립 광장, 목수 홀(첫 번째 대륙 회의의 회 합장), 벤자민 프랭클린의 집으로 재구성 된 그래프 하우스(토마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은 독립 선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City Tavern(혁명 전쟁의 중심지), 복원 된 기숙사 및 여러 초기 은행을 썼다. 공원에는 리버티 벨, 프랭클린의 책상, Syng 잉크 스탠드, 초상화 갤러리, 정원 및 도서관도 있다. 연방 정부의 광범위한 다큐멘터리 연구 및 고고학 제품, 독립 기념관 복원 및 공원의 다른 건물은 다른 역사적인 보존을 위한 표준을 설정하고 오래된 필라델피아의 회춘을 자극했다.

5.2 역사지구 개발과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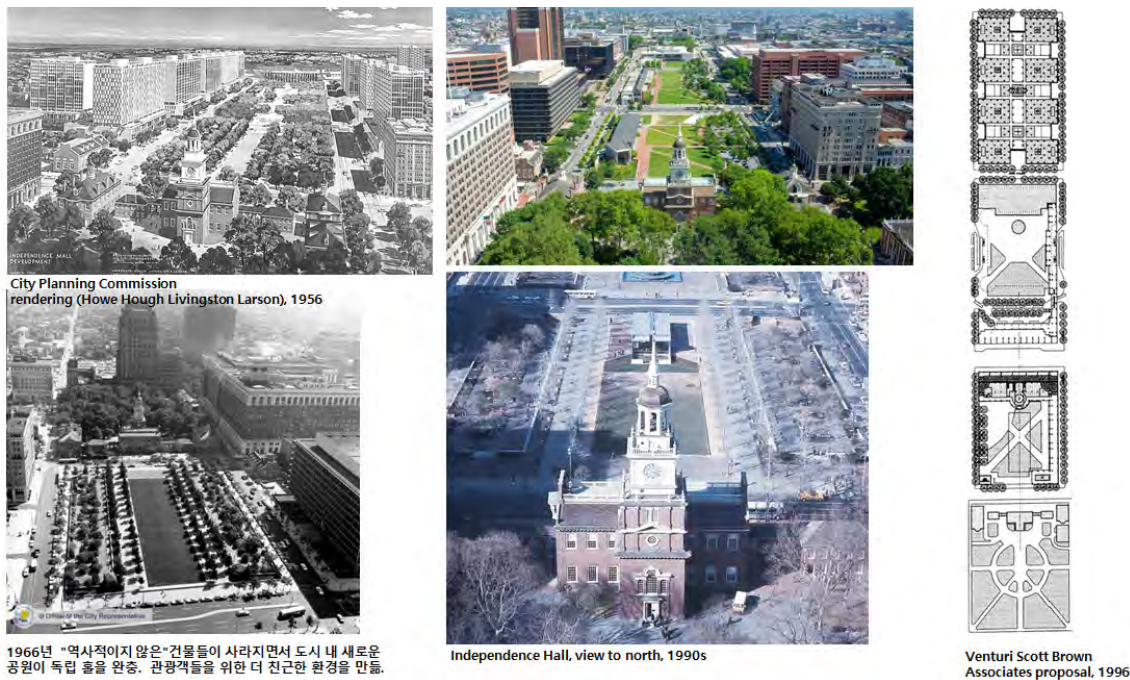
1915년 건축가 엘버트 켈시(Albert Kelsey)와 크닉커버커 보이드(D. Knickerbacker Boyd)는 독립 기념관 앞에서 “검토 광장”을 제안했다. 당시의 보자르 스타일로 정교하게 디자인된 이 설계는 향후 81년 동안 생산될 건물의 새로운 환경을 위한 15가지 계획 중 첫 번째 계획이었다. 켈시(Kelsey)와 보이드(Boyd)는 이 주제에 대한 미래의 토론을 정의할 4가지 동기를 식별했다. 이는 독립 홀을 위한 적절한 환경 조성, 화재 위험 감소, 정체 감소 및 도시 전체 사분면 미화로 구분된다. 켈시와 보이드의 제안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자르 디자인의 규범을 일관되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독립 기념관 규모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많은 양의 재산을 얻기 위한 메커니즘 또는 펀드의 부재에 대한 인식에 의해 유발된 겸손에 의해 특징적이다. 켈시(Kelsey)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켓 스트리트에서 전체 블록이 아닌 체스넛(Chestnut)과 루드로우 스트리트(Ludlow Street) 사이에서 반 블럭만 가면 충분했다. 독립 홀은 멀리서나 넓은 광장에서 최대한 잘 볼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았고 창조될 것이다.” 1937년 이전의 보자르 예술 계획의 규모와 1976년 규모 문제에 대한 기우르골라의 노력을 인식한 벤퓨리와 스콧 브라운 회사(VSBA)는 그 자체의 방식으로 급진적인 계획을 제안했다. 라슨 방문객 센터는 중요한 Market Street 축과 평행한 동서 방향을 지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켓 스트리트 남쪽에 위치하고



Plan for Independence Square(Jacques greber plan),1874 와 Roy Larson plan, 1938, Independence Mall, 1998 Graphics: Olin Partnership, Independence Mall master plan

있으며 광장물의 미래 전망을 무시하고 결정적으로 닫는 것이다.

이 센터의 디자인은 독립 홀을 향한 낮은 남쪽의 높이와 북쪽의 전자 “유리판 갤러리 내의 벽화”를 결합했다. 이 계획은 첫 번째 블록의 완전한 재구축을 의미했지만 VSBA는 마켓 스트리트(Market Street) 북쪽에 유사한 흔적을 남긴 건물을 배치하여 첫 번째 블록을 상대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대안을 꺼려했다. 이것은 남북 축을 구하기 위해 활발한 캠페인을 시작한 에드먼드 베이컨(Edmund Bacon)의 관심을 끌었다. 베이컨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들에게 큰 비용을 들이는 지지자들은 독립 기념관에 열린 공간의 전경을 제공하기 위해 3개 빌딩 블록을 파괴했다. 실질적인 건물로 인해 독립광장물의 중앙광장을 막는 것은 문화적 실수였다. 베이컨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국립 공원 관리 국장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구했다.” 후에 자크 그레버(Jacques Greber, 1924년과 1930년)와 폴 필립 크레(Paul Phillipe Cret, 1928년)는 비슷한 범위의 계획을 만들었다. 1937년까지 보이드(Boyd)와 크레(Cret)과 함께 일한 로이 라슨(Roy Larson)은 프로젝트를 완전히 재구성할 그림을 준비했다. 보자르 원칙의 적용 프로그램에서 라슨(Larson)은 도시의 가장 소중한 역사적 보물인 독립기념관과 최신 공공 작품인 Delaware River Bridge (현재 Benjamin Franklin Bridge)를 독립홀에서 Callowhill Street 홀 까지 다섯 블록 떨어진 일련의 열린 공간과 연결했다. 이 계획은 프랑스 낭시(Nancy)의 캐리에르와 광장(Place de la Carrière)를 모방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면서 국가 기념물 보호에 대한 애국심과 절박감이 높아졌다. 전쟁이 끝날 무렵 몇 가지 경향이 일치하여 새로운 종류의 계획에 대한 기회가 생겼다. 이 승리는 국가의 자부심을 높이고 미국의 리더십 역할을 강화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국가의 창립에 대한 보다 중요한 건축 인식이 있어야 함을 의미했다. 동시에 보자르(Beaux-Arts) 건축가들의 점점 더 기념비적인 관심은 새로운 도시재생법안을 찾았다.



1940년대 이후의 변화

독립기념 광장(Independence Mall)의 개념은 보자르(Beaux-Arts) 계획에서 Modern 계획으로 바뀌었다. 쓸모없는 인프라로 인해 이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 쇠퇴로 인식된 것을 해결할 기회가 있었다. 광장물은 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요 기업들에게 투자를 장려하는 수단이 되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연방은행, 새로운 연방건물 및 법원, 새 조폐국을 포함하여 3개의 새로운 사무실 건물을 위한 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5개의 인접한 블록을 괴롭히는 것을 수반했다. 에드윈 루이스 저지(Edwin O. Lewis)는 40년대에 이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많은 조직과 로비 활동을 수행했다. 전후 필라델피아에서 그는 도시 동부 지역의 대규모 리뉴얼을 모색한 새로운 계획 이사인 에드먼드 베이컨 (Edmund Bacon)을 만나 일을 시작했다. 국립 공원 관리청은 새로운 개념 요소를 현장에 도입했다. 북쪽에 독립 기념관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은 18세기 기념비로 붐비는 것으로 여겨지는 많은 건물들을 제거함으로써 동쪽 지역의 재건과 결합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18세기와 19세기 초의 기념물만 보존했던 역사적으로 부정확한 풍경인 독립기념 국립공원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초기 초고층 건물인 제인 빌딩(Jayne Building, William Johnston and Thomas U. Walter, 1850)¹⁹⁴과 프랑크 퍼니스(Frank Furness)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인 프로빈던트 라이트 앤

¹⁹⁴ Weisman, Winston. "Philadelphia Functionalism and Sullivan."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20, no. 1 (1961): 3-19. doi:10.2307/988149.

트러스트(Provident Life and Trust, 1879)와 같은 중요한 건물이 파괴되었다. 루이스 저지에 의해 강하게 밀려났으며, 공원 관리청은 결속되었다. 1840년에서 1900년 사이에 건물이 과잉으로 건립되었다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18세기의 맥락을 재구성한다는 개념을 규정하면서도 허위의 입안 설정의 결과였다. 이후 보존과 환경 법규에 대해 한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썼다. "... 국립공원 관리청은 과거의 인공적인 비전을 만들기 위해 도시의 역사적인 도시조직을 다시는 파괴할 수 없다."

빈 공간으로 정화에 대한 새로운 경향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보다 민감한 접근 방식에 대한 두 명의 강력한 지지자가 나왔다. 첫 번째는 19세기의 요소를 신형 공원에 통합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주장한 공원 관리 설계자 찰스 페터슨(Charles Peterson)이었다. 그는 1947년 한스 휴스(Hans Huth)와 같은 상황 보존에 대한 다른 강력한 지지자들을 그린 보고서를 준비했다. "필라델피아에서 건물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독립홀이 화려하게 고립되어 화장실처럼 보이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¹⁹⁵

5.3 유적활용과 개발간의 논의과정

독립 기념관 프로젝트는 건축 문화 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뛰어난 사례 중 하나이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윌리엄버그(Williamsburg)와 올드 디어필드(Old Deerfield) 프로젝트와는 다르므로 후속 개발이 없었던 것처럼 주어진 날짜로 지역을 복원하는 것은 매우 인위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건축 유산 보존은 특정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인 개발 기록이 되어야 한다. 보다 균형 잡힌 접근법의 두 번째 옹호자는 루이스 뎀포드(Lewis Mumford)였으며, 유펜(UPenn)에서 가르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피터슨의 의견을 따를 경우, 이 지역의 통합적인 재생은 강제적인 식민주의를 초래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과거 또는 새로 지은 건물에서 연계한 다양한 건물이 있을 것이다. 각 건물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순간을 나타낸다. 1840년 이후에 미국에서 진정으로 토착 건축이 생겨났으며, 피터슨의 접근 방식의 장점 중 하나는 이 지역에서 프랭크 퍼니스(Frank Furness)의 특징적인 작품 중 하나 이상을 보존한다는 것이다.¹⁹⁶ 그러나 이 시점에서 도시개발(정화)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다. Furness 은행과 다른 많은 중요한

¹⁹⁵ Carol L. V. Meeks, letter to Judge Edwin O. Lewis, 25 September 1956 inde archives, quoted in Cultural Landscape Report, 149.

¹⁹⁶ Mumford, 203

19세기 건축물은 지워졌고 오늘날까지 공원은 여전히 “1775년에서 1800년까지 국가의 설립”에 따라 초점이 맞춰 있다.¹⁹⁷ 광장물과 그 축의 주제에 대해 뎀포드(Mumford)와 피터슨(Peterson)은 동의했다. 필라델피아의 독립 기념관 축에 거대한 광장물을 만들겠다는 제안은 이 독특한 건물의 18세기 특성을 방해할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현재 인접한 건물들이 공화국의 요람에 적합한 환경을 형성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웅장한 신고전주의로 재현하는 것 또한 똑같이 부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⁹⁸

루이스 뎀포드는 디자인의 실패에 초점을 맞췄는데, “건축물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건물에 유쾌하고 적절한 접근 방식을 설계하는 문제는 역사적 주장보다 훨씬 완만하다. 이 첫 번째 탐험은 시각 골목으로 눈을 감았기 때문에 쫓겨서는 안된다. 그러한 디자인을 위한 적절한 열쇠는 전적으로 시각적인 것이 아니다. 디자이너들은 현대식 바로크 양식이 아니라 작은 성소 자체, 그것이 의미하는 것과 방문객이 접근하는 분위기와 목적에 대해 좀 더 생각했다면 더 나아졌을 것이다”라고 말했다.¹⁹⁹

1969년 광장물이 완성되면서 광장물에 대한 몇 가지 좋은 평가가 있었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심지어 루이스 뎀포드는 설계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때로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만들어 냈는지, 그것이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 궁금하다. 나는 그곳으로 가서 모든 것을 비워두고 생각한다. 무엇을 위해 만든 것인가?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과장했을 것이다.”²⁰⁰ 1976년 리버티 벨(Liberty Bell)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독립홀(Liberty Hall)을 향한 현대식 파빌리온으로 옮겨졌다. 로말도 기우르골라(Romaldo Giurgola)가 설계한 이 작은 구조물은 마켓 스트리트 남쪽 광장물과 연계되지 않았으며 독립홀 전면 광장과 둘러싼 논쟁도 없었다.

90년대 중반 필라델피아시는 관광지로서의 매력에 대한 첫 번째 진지한 평가에 참여했다.

방문객들은 몇 시간이나 되는 거리로부터 온 후에 짧은 방문을 위해 필라델피아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도는 공원을 위한 새로운 일반 관리 계획의 개발에 반응했다. 공원관리청은 문화경관보고서 독립광장물 (Cultural Landscape Report Independence Mall)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광장물을 철저히 연구했다.

¹⁹⁷ Abbreviated Final General Management Pla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Independence National Historical Park (Denver: National Park Service, March 1997), 1–9

¹⁹⁸ Turpin Bannister, Chair of aia national committee on the preservation of monuments, 1947, quoted in Charles Peterson, “Philadelphia’s New National Park,” in Proceedings of the Eightieth Fairmount Park Art Association (Philadelphia: 1952), 16

¹⁹⁹ Mumford, 193

²⁰⁰ Judge Edwin O. Lewis from the original interview by Eleanor Prescott, 19 January 1971, pp. 31–33 quoted in Cultural Landscape Report, 152

이 연구에서는 광장물을 역사적 또는 문화적 유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평가했다. “건설된 광장물은 도시의 아름다운 운동, 보자르 디자인 또는 국제 스타일 디자인의 중요한 대표 작품으로 간주될 수 없다.”²⁰¹ 이렇게 한 도시계획가는 도시의 역사적인 휴먼스케일 구조의 파괴, 서투르고 악의적으로 비워져 있는 볼모의 황무지로서 간주했다. 무의미하고 생명없는 디자인 요소들로 가득 찬 버려진 도시 유물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독립홀과 이 나라의 건국 정신뿐만 아니라 멸시하는 괴물같은, 무의식적으로 상상되고, 허위로 추리된 이론적인 “구조”였다고 평가했다.²⁰²

반면에 보자르의 지지자들과 또 다른 대립은 기념비를 개발하는데 공헌했다. 퓨 자선기금(The Pew Charitable Trust)은 필라델피아에서 로버트 벤추리와 그의 와이프 스캇 브라운과 함께 설계사무실을 계속 유지하여 광장물의 새로운 방문객 센터에 예비 설계 및 계획 서비스를 제안하도록 했고, 뎀포드(Mumford)의 복잡한 모호함이 1995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데니스 스콧 브라운(Denise Scott Brown)은 도심 이전 도시 상황에서 독립기념관의 이미지로 벤추리 스코트 브라운 건축사무소(Venturi Scott Brown and Associates (vsba))의 단독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로버트 벤추리(Robert Venturi)는 뎀포드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도시의 그리드 계획에 대해 분석했다. 벤추리는 설계안에서 펜의 격자 계획의 지명을 인정했다. 필라델피아의 격자 플랜(미국 도시의 프로토타입이 되었음)의 기원은 근본적으로 일관된 거리계획과 병치하고 한편으로는 시간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화하는 건물 유형 및 형태의 명시적으로 다양한 구성요소의 병치가 있다. 기하학적 구성에서 개성과 단순성을 수용하는 복잡성과 결합을 의도적으로 디자인 안에서 보여주었다.²⁰³

²⁰¹ Cultural Landscape Report, 147

²⁰² An anonymous city planner,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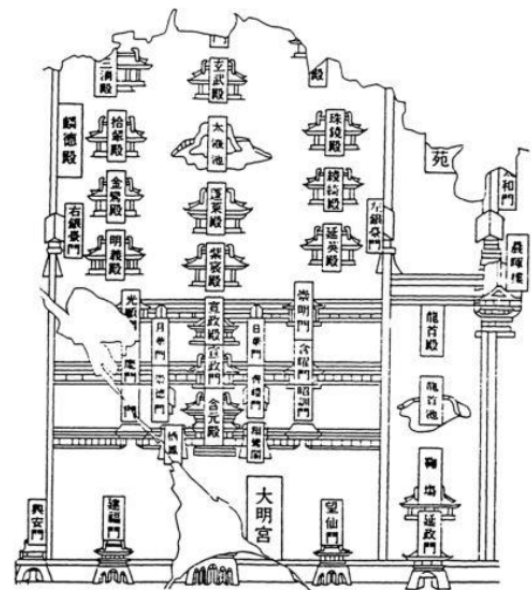
²⁰³ Robert Venturi, “Redesign of Independence Mall with Visitor Center: vsba’s Preliminary Analysis and Conceptual Design: Scheme A,” copyrighted memorandum to National Park Service, September, 1996, 1

6 중국 장안성 대명궁 국가유적공원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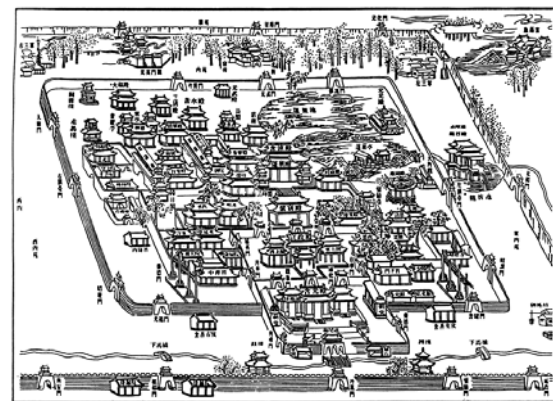
6.1 개발사업 개요

시안(西安, Xi'an)은 과거에는 장안(長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현재는 중국 산시성 성도로 2010년 기준 인구는 약 800만 명이다. 시안은 고도보존을 위해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도시의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를 통해 역사문화명성도시(历史文化名城)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 내 중요한 유적지에 대한 직접적인 보존을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시안의 명성(名城) 범위는 13km²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는 도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명성 내부는 종루(鐘樓)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4개의 성문과 그것을 연결하는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데, 시각통로 확보와 건축물 높이 규제, 개발행위 제한 등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명성 내부의 과밀을 완화시키기 위해 명성 주변지역에 웨이양, 홍경 등 11개 구역을 발전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시내의 일부 기능을 주변으로 이전한다든지, 이환(二環)을 따라 교통을 원활히 하고, 이환 양쪽의 도시화 수준을 정책적으로 제고시키는 것 등이다.

당대(618~907년) 장안성은 수나라 초년인 서기 582년에 창건되었고, 당나라 건국 후에도 수도로 답습하였다. 도시의 규모는 방리제를 근간으로 사찰, 주거구, 시장들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높은 공장화 화려한 궁전구에 관가와 정연하게 구획된 거리가 있었다. 당나라의 장안성은 동서 9,721m, 남북 8,652m로 면적은 약 90km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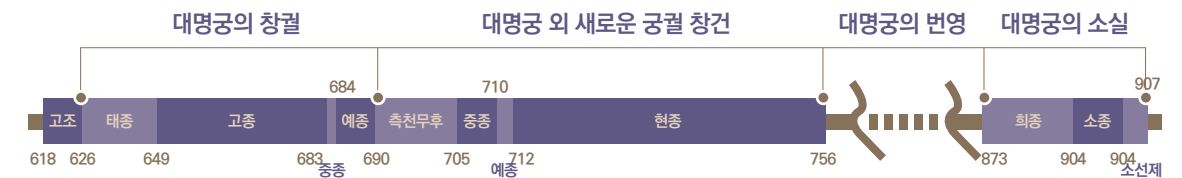
長安志圖, 呂大防(1027~1097, 북송)



陝西通志, 趙廷瑞(1492~1551, 명)

대명궁(大明宮)은 장안성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당 태종 이세민이 조영한 궁궐이다. 태종 이세민은 즉위함과 동시에 수 대흥성 태극궁(太極宮)에 입성했다. 대명궁은 함원전, 선정전, 자신전(含元殿(外朝), 宣政殿(中朝), 紫宸殿(內朝))이라는 3개의 정전으로 이루어진 정치구역과 그 뒤의 태액지를 중심으로 하는 침전구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장안성의 3개의 대형 궁궐 중 최대 규모이며 당의 정치중심지였다. 정관 3년(629), 이세민의 아버지인 고조 이연은 태극궁 보다 장안성의 서북쪽에 있는 대안궁으로 옮겼다. 정관 6년(632) 태종 이세민은 감찰어사 마주(監察禦史 馬周)가 낸 글을 보면 “대안궁은 더 비소하기 때문에 … 부족한 점이 있다. 마땅히 높은 대 위에 건물을 짓기를 희망한다”는 건의를 채택하여, 새롭게 대명궁으로써 ‘上皇(高祖)의 청서(淸暑)한 곳으로’ 건립하기에 이른다.²⁰⁴ 정관 8년(634) 궁궐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처음 ‘영안궁(永安宮)’이라 하였다가 이듬해 1월 ‘대명궁’이라 고쳤다. 정관 9년(635) 5월 고조 이연의 죽음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대명궁의 역사



그 후 고종은 용삭(龍朔) 2년(662)에 “(바람)에 시달리며 (태극)궁 내의 비하(卑下)를 혐오하고”²⁰⁵ “궁내가 비습(卑濕)하여 (대명궁)에 궁을 둔다”²⁰⁶고 하여 본격적으로 대명궁을 건립하였다. 궁명을 ‘봉래궁’으로 개칭하고 거처를 옮겨 청정을 하였다. 『장안지』 권6 ‘궁실4’와 『구당서』 권4의 기록에 따르면 “용삭(龍朔) 2년(662)에 봉래궁 함원전을 만들고 … 여름 4월 병오에 봉래궁(蓬萊宮)에 신축된 함원전(含元殿)에 행차하였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공사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벌어졌다. 함형(咸亨) 원년(670) 3월에는 다시

204 北宋·司馬光 (1997) 『資治通鑑』 卷194 「唐紀十」 「制度比於宸宮(大安宮), 尚為卑小, 於四方觀聽, 有所不足. 宜增修高大, 以稱中外之望」 협소한 대안궁에 대해서 감찰어사 마주의 건의를 채택해 새롭게 조영되고 대명궁으로 태상황의 ‘피서’의 경우가 된 것이다 pp.1550~1551.

205 北宋·王溥 (1984) 『唐會要』 卷30 大明宮, 「染風痺, 以宮內湫濕. 乃修舊大明宮」とある. (叢書集成初編), 中華書局, p.553.

206 唐·李隆基·李林甫等注1983『大唐六典』 卷7에 따르면, 「龍朔二年, 高宗以大內卑濕, 乃於此置宮」라고 적혀있다. (古逸叢書三編之三) 中華書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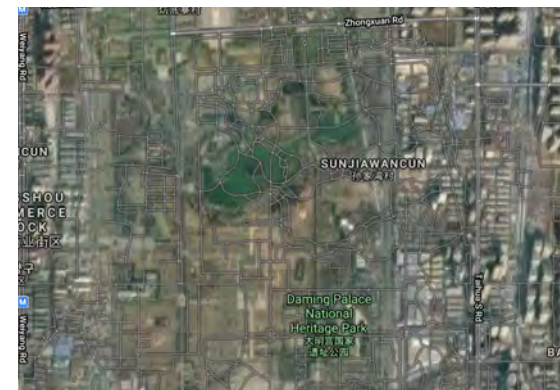
‘함원궁(含元宮)’이라 고치고, 그 정전을 ‘함원전(含元殿)’이라 하였다. 장안 원년(701) 11월에는 궁명만이 다시 ‘대명궁’으로 복원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함원전’을 ‘대명전(大明殿)’이라 하였으나, 신룡 원년(705)에 구칭인 ‘함원전’으로 다시 되돌려졌다. 이후로는 당대 말기까지 명칭이 변하지 않았다.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는 1959년 겨울부터 1960년 여름까지 처음으로 당장안 대명궁을 포함한 원전 유적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발굴시 전내 바닥면은 없어졌지만 정전은 아직 대부분의 벽 기부 및 기둥철 유적이 남아있어 그 기본적인 형식과 구조를 인식할 수 있었다. 1995년부터는 일본이 주도한 유네스코 신탁기금(ODA 사업)에 의하여 주로 함원전 기단 유구의 보존·복원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적 내 요지 유구는 함원전의 건축자재인 벽돌을 굽는데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함원전의 건립과정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화재로서 보존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왔다.²⁰⁷

6.2 역사지구 개발

대명궁(大明宮) 터는 “고대 왕립의 이궁식 건축과 황제가 살았던 기억으로 당(唐)대의 역사와 정치 권력에 버금가는 중국 최고 전성기 때의 독특한 증거로 세계 대표 당(唐)문명의 존재”라고 묘사된다. “대명궁은 세계 문화 아이콘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원의 질을 따지자면 대체할 수 없는 중국 원소다.” 중국 역사문화의 풍부한 함의가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문화유산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대명궁 함원전’은 국가 유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대명궁 국가유적공원은 2010년부터 개방되었다. 대명궁의 골격과 규모를 파악하는 데 60여 년이 소요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대명궁을 복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대명궁 문물국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발굴과정을 통해 대명궁의 실체를 상당 부분 밝혔지만, 발굴과정에서 나온 각종 유물을 근거로 당시 대명궁의 실체는 상상 속에 남겨두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중국 최초의 국가 고고유적공원으로 주요 궁궐 건축구(區), 문물 감상구, 과학 체험구 등으로 구성된다. 공원 정면 입구에는 단봉문의 모습을 추정 복원한 철골조로 지은 단봉문 유적 박물관이 들어서 내부 단봉문 유구의 보존·전시, 발굴된 유물 전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함원전 입구 서쪽에 위치한 고고탐색센터에서는 고고학 조사의 실제와 고고학과 현대생활의 연관성 등을 쌍방향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전시를 실시하고 있다. 함원전의 기단은 판축을 보호하면서 벽돌 기단과 옹미도 계단 등은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전시되어 있다. 함원전 북서부 대명궁



대명궁 항공사진



대명궁 정전인 함원전 터의 정비

유적 박물관에서는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당대 문물의 일부를 전시하고 있으며 대명궁을 비롯한 당시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2005년에 공원 정비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이 유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활 전사가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²⁰⁸ 시안시 계획국은 2014년 8월 초 개정된 ‘대명궁 지역보전 재구조화 마스터플랜(2007~2020)’에서 상황에 따라 유적지 보호구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부대시설 등 다중적 관점에서 기능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대명궁 정비계획의 원칙은 대명궁 유적의 보호, 중국 전통문명의 보존, 세계 문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대명궁 유적공원의 핵심은 유적공원 공간에서 “일심양익 삼륜(一心兩翼三圈)”을 형성하는 완전히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었다. 먼저 ‘일심(一心)’은 대명궁(大明宮) 국가유적공원이다. ‘양익(兩翼)’은 기차역 북쪽 광장을 축으로 한다. 동서로 횡단하는 농해선(隴海線)을 따라 동서 양대 도시 개조의 판이 형성되었다. “삼륜”은 미양로·태화로·북2로를 형성하는 것이다. “보호하고 보호하며 전시하며 전시한다.” 구권(舊圈)의 형성, 이 큰 틀은 대명궁 유적공원의 옛 특색, 역사와 현대, 경제와 문화, 계승과 혁신, 민생 개선과 도시 향상을 도모한다. 이처럼 대명궁 유적공원은 여러 가지 대비와 완벽한 조화를 통해 당대 장안의 국제화와 열린 마음을 표현하고, 보호를 전제로 합리적 개발촉진을 실현하고자 했다. 대명궁 유적의 효과적인 보호와 도시 발전을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안하고자 했다.²⁰⁹

전체 계획 구도는 초기의 ‘일심, 양익, 삼륜, 육구(一心, 兩翼, 三圈, 六區)’에서 ‘일심, 양핵, 오축(一心, 兩核, 五軸)’으로 격상되었다. “두 개의 핵, 다섯 개의 축”은 점 모양의 구심 분산형 배치를 하여 지역에 탑재되는

208 陳維新 (2017) 「西安大明宮國家遺跡公園についての一考察」『國學院大學博物館學紀要』, 國學院大學博物館學研究室, pp.184-188.

209 <http://goods568.xsrv.jp/seiangaido/daming.html> (2020년 10월 15일 접근)

207 川崎義雄. (2004). 中國西安市大明宮含元殿遺跡保存環境整備計畫. 國學院大學博物館學紀要, 29, 163-181.



수정된 “일심, 양핵, 오축” 계획안



대명궁 유적지구 계획안(2020년 완공안)

각각의 기능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기존의 밴드형 발전 현황을 기반 위에 여러 가지 주제로 특성화한 기능형 절점을 나누어서 블록의 특징을 명확히 했다. 상업지구에 있어서, 태화로 상업발전축(太華路商業發展軸)과 북2순환 상업발전축(北二環商業發展軸)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태화로 연선의 상업면적을 늘려 띠 모양으로 만들고, 도시 간선도로인 북2순환도로(北二环路, 대명궁터 동편을 지나는 남북가로)의 교통압력도 낮추고자 했다. 주거계획의 경우, 이미 조성되어 미래계획이 수립된 주거단지에서 경구로(經九路, 대명궁 남쪽 가로) 남북을 관통하는 축으로 그 범위 내에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유형별 부대시설의 건설을 세분화하여 지역사회상업과 커뮤니티 의로서비스 등 편의 서비스 유형을 포함하고자 했다.²¹⁰

6.3 유적활용과 개발간의 논의과정

1) 대명궁 유적의 활용과 개발 논의

중국에서 전국의 문화재 및 유적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국가 단위, 성 단위 및 시 단위의 3단계로 분류하여 국가, 성, 시가 각각 소관하고 있는데, 특히 유적의 보호 계획에 대해서는 국가문물국 이전 국적으로 수립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유적관리에 대해서는 국가 수준 및 성 차원의 일부 유적에 대해 국가문물국이 소관하고



함원전



단봉문



자신전



선정전

있다. 대명궁 유적 발굴은 1959년부터 시작되어,²¹¹ 1961년에 중국 국무원 제1단계 중요문화재 보호단위로 지정되어,²¹² 1995년부터 1996년에 걸쳐 대규모 조사가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의 주도로 이루어졌다.²¹³ 역사적 중요성에 따라 발굴, 보호, 복구 등을 실시해 왔지만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자 중국 정부는 1992년 ‘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긴급구조 제일’ 방침을 세우고 긴급문화재 및 유적 등의 복구, 보호 및 발굴을 실시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1995년에는 ‘유효적 보호, 합리적 이용, 관리 강화’의 원칙을 들어 문화재보호는 우선 국가의 책임과 함께 사회 전체의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사회 전체가 문화재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7년 이전에 대명궁 유적의 전체 보호를 실시하고자 할 때, 장안성을 지속적으로 유적 보호에 대한 시행을 할 경우 유적구 거주민의 생산활동이 유적 조성에 따라 파괴되며, 유적구의 기초시설이 낙후하여

211 川崎義雄 (2004). pp.163-181.

212 妹尾達彦 (2001) 『長安の都市計画』講談社, 講談社選書メチエ, p.179

213 妹尾 (2001) p.178

210 이 지역은 끊임없는 고급 리모델링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있다. 투자원, 입체교통, 거주환경 등 일체 대명궁터 정비계획에 따라서 서안 부동산시장에서는 지역 판도가 들썩이고 아파트 값도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다. <https://read01.com/AJRa8Lj.html#.X4wHB9AzaUk> (2018/08/16 來源: 西安百度視頻房產) (2020년 10월 15일 접근)

거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당시 유적구 환경은 매우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며 고고 발굴조사 작업과 유적 보호 전시작업 진행에 어려움이 따랐다.

2008년에 대명궁 유적 보호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당시에는 유적의 상당 범위에 민가와 공장이 있었으나, 약 2,500억 원을 들여 토지수용과 철거가 이루어졌고, 2010년에 대명궁 국가유적공원이 정비되었다.²¹⁴ 2014년에는 “실크로드 : 창안-텐산 회랑 도로망(丝绸之路: 長安-天山廊道的路網)”의 연속유산의 한 곳으로 지정되었으며,²¹⁵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되어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는 대명궁 유적의 성문, 궁궐, 종교 시설, 관서의 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향후 200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²¹⁶

2) 사업의 설계 원칙과 방향

대명궁 함원전 유적을 주체로 하는 마스터플랜의 작성과 함원전 유적의 기반 보존·복원 및 주변 정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함원전의 기반보존 중건사업은 현재의 유적에 의거하여 그간의 발굴 결과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건과 확실한 근거의 전제하에 당시 함원전의 규모와 형식을 재현했다. 보호·전시는 원형 그대로의 실제적 보호라는 원칙 아래 유적원형 보호·전시, 유적 보호 전시관 건립, 국부적인 기초유적 복원·보호·전시, 녹화표시·전시, 지면부동 재질표시 전시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함원전의 경우, 공사할 때 가능한 한 당대의 건축기법과 당대의 건축재료를 채택하여 원래의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확보했다. 특히 대명궁 함원전 유적보존 중건사업은 두 분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제1기 프로젝트는 1995년에 시작되어 1998년에 완료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고고학적 조사와 발굴, 복구 보존공사 방안의 설계, 복구 보존공사의 시공, 설계 및 초보적인 사업의 시행이었다. 1기 보존공사가 준공된 후 중국, 일본, 유네스코는 조사연구, 협의검토를 거쳐 함원전 유적보존사업 완성의 목표를 전면 실현하기 위해 1기 사업을 이어받아 2기 보존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2기 프로젝트는 1999년 10월에 시작되어

214 陳維新 (2017) 「西安大明宮國家遺跡公園についての一考察」『國學院大學博物館學紀要』、國學院大學博物館學研究室, pp.184.

215 중국 한(漢)·당(唐) 대의 수도였던 창안(長安)·뤄양(洛陽)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앙아시아의 제티슈(Zhetysu)로 이어진 약 5,000km에 이르는 구간에 해당한다. 이 도로망은 기원전 2세기에서 서기 1세기 사이에 형태를 갖추어 16세기까지 이용되었고, 여러 문명을 서로 잇고, 무역·종교·신앙·과학·지식·기술·혁신·문화·관습·예술 등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촉진하였다. 도로망을 따라 여러 제국과 칸(汗) 왕국의 수도·궁궐·교역 마을·석굴 사원·고대 통행로·역참(驛站)·관문·봉수대, 그리고 만리장성의 일부 구역과 성곽·묘역·종교 시설 등 총 33개소가 발견되며 이것들 모두가 유산에 포함된다.

216 陳維新 (2017) p.191



구철도가 운행되고 있고, 반면에 양측의 남북도로가 새롭게 재구조화됨



구철도의 모습, 사용하지 않는 것과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구분됨

2003년 3월에 완료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토목 건축 공사였다.²¹⁷ 이러한 발굴성과를 토대로 함원전의 기반은 판축을 보호하면서 용미도(龍尾道)를 포함해서 벽돌이나 석축을 짜서, 상부의 벽이나 계단 등은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전시되어 있다.

대명궁의 정남문인 단봉문은 당나라의 역사적 기록물을 토대로 해당 유적지 위에 재현하되, 시간의 흐름과 재현 건물임을 나타내기 위해 건축물의 색을 단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신전은 유구를 복토 정비한 후 철제 프레임과 나무구조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재현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복원방식은 미국 건축가 로버트 벤츨리가 사용한 방식으로 벤츨리가 고민한 공공성과 집단적 기억의 부활이라는 현상적이고 기능적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지만 돈황석굴의 벽화에서 보이는 당대 건축형식을 최대한 고증하는 선에서 당대 건축에 대한 기억을 표상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동쪽 편에 있는 연령전도 건축물 형태를 복원하는 대신 기둥만 세워 건축물의 규모를 가늠케 한 후, 건축물의 사용 목적에 근거하여 제례용 탁자를 배치하였다. 그 밖에 건물 터를 계단식으로 띄워서 만들어 놓고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옆에 모형 제작하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본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상상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유적지 가시화 기법 외에 3D IMAX 기술을 사용해 영화 ‘대명궁전기’(大明宮傳奇)를 제작하여 유적공원

217 주변 인프라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 구 철도의 전용 노선이 비교적 많아, 일부 구간은 여전히 이용하고 있어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명궁 주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주거 환경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다. 병원 등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했다.

내에서 상영함으로써 단풍문 영빈의식, 백관등 조의식, 대당(大唐) 패션쇼 등의 역사와 궁정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대명궁 주변 도시계획지구의 문제점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구 철도의 전용 노선이 비교적 많아, 일부 구간은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안에는 지난 세기에 건설된 철도 전용선이 많으며, 함원로, 태원로, 북2환을 지나 북쪽으로 가는 구(舊)철도는 열차만 통과하면 거의 20분 가까이 정체돼 있다. 철도는 이용률이 높지 않아 철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후 철도도 유럽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린화해서 더티한 풍경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주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병원, 학교와 같은 거주자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명궁 국가유적공원은 유적보호이론 탐구와 실천 탐구를 바탕으로 대명궁 유적 보호와 국가 고고유적공원 건설에서 다음과 같은 4개의 결합의 새로운 이념을 설정했다.

- 대유적보호는 그 지역의 경제 사회발전과 결합함
- 대유적보호는 그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함
- 대유적보호는 그 지역 도시건설과 결합함
- 대유적보호는 그 지역 환경개선과 결합함

대명궁 유적보호의 원칙은 전체보호, 규범통일, 전체철거, 타당한 주민의 주거안정, 사람을 기본으로 하고 환경개선, 발굴을 선행하고 보호를 주로 삼았으며,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유적을 전시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문화를 전승하고 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원칙으로 설정했다. 2007년 시안시급위원회 시정부에서는 과학발전관을 실천하고 조사를 연구를 바탕으로 대명궁 유적 전체를 보호하고 국가 고고유적공원 건설 및 유적 주변 도시 개조를 위한 계획을 시작했다. 이 중대한 조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 재무부의 국가 문물국 등 각 부처와 정부의 큰 관심과 지지를 얻게 되었다. 본 사업의 핵심은 대명궁 유적 전체 보호와 국가고고유적공원 건설이었다. 대명궁 국가유적공원을 건설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넓은 면적의 집을 철거하고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대명궁 유적구는 시안시에서 가장 큰 판자촌일 뿐만 아니라 5개의 성과 촌의 89가의 기업사업단위가 유적 위에 있었다. 총 2.4만 호 10여 만의 사람이 미양 신성 연호 2개의 구에 몰려 있었다. 철거한 집의 총면적은 약 400만㎡에 이른다. 동시에 국토 도성 건설 건물관리 등 여러 개의 부문을 계획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시안시 역사 아래에 가장 큰 규모의 전체적인 철거 및 재생시키는 공정이었다. 이것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없이는 실현 불가능했다.



대명궁 내의 불법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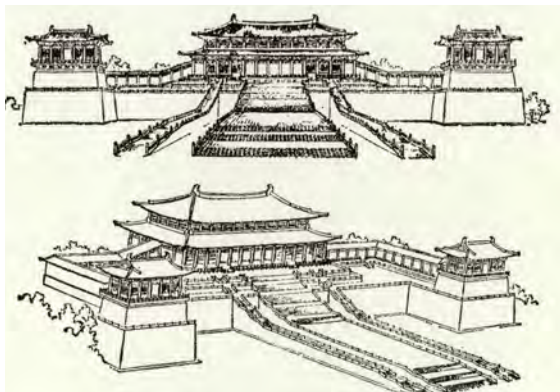
대명궁 내 거주지의 생활환경

시안시는 시급 위원회 서기 손청은 시장 전보근을 조장으로 세우고 기획, 국토건설, 건물관리, 문물 등 관련 있는 부문과 곡강 미양 신성 연호 4구의 주요 책임자를 조의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유적구 주변 건설행목의 조직지도와 협력 등의 책임을 통일하고 지도자 아래 대명궁 보호만을 설치하였다. 부시장을 사무소 주임으로 임명하고 곡강 관리원이 이 사항들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책임을 담당하였다. 집을 철거하는 가장 힘든 단계의 작업에서 시급 위원회 시기와 시장이 관련 부문의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철거 및 안치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협조하였다. 대명궁 보호 작업은 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하였다. 또한 150일 만에 유적구 철거 및 안치 업무의 95%를 수행하였으며 유적공원 시작 시기를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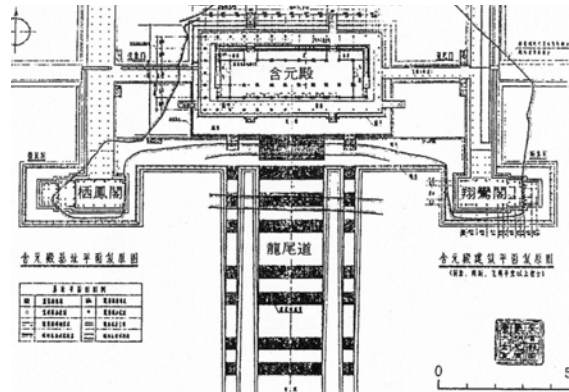
3) 함원전 용미도 고증 문제

① 대명궁 함원전의 건축공사와 복원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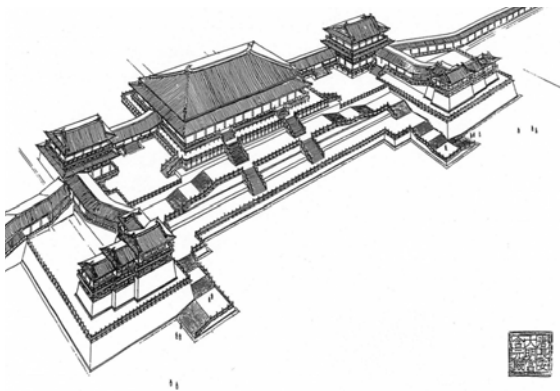
단기간에 승초석을 가진 높은 기단 위에 삼출궐의 형식으로 상난각과 서봉각을 건설했고, 고종 이후의 황제들이 이곳에 거주하거나 청정(聽政)을 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함원전은 태극전만큼이나 중요한 정전이기도 하다고 생각된다. 1959년에서 1960년에는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시안당성공작대는 대명궁에 있는 함원전 유적에 대한 부분적인 시추탐사와 고고학 발굴을 실시하여 함원전의 위치와 양각의 형제를 밝혀내었다. 함원전 1차 발굴과 용미도 복원도와 관련해서 첫 번째 문헌은 간단한 발굴보고를 통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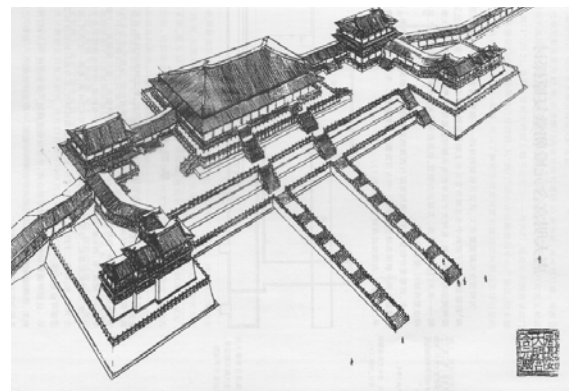
곽의준의 안(1963), 1959~60년 발굴 성과 기반



부희년의 안(1973), 좌우 삼랑각 및 서봉각의 존재를 반영한 수정안



양홍훈의 1차안(용미도 전면발굴 이전)



양홍훈의 2차안(1997, 용미도 수정)

검토되었다.²¹⁸ 이어서 곽의준²¹⁹ 부희년²²⁰ 양홍훈²²¹ 등은 함원전 건축과 용미도 등 여러 가지 복원도를 제시하였다. 실제로는 처음으로 곽의준의 함원전 외관 복원도를 공개한 이후 대부분은 중국학자들은 이 그림을 인용하였다. 복원도는 1972년에 발굴한 의덕태자(懿德太子) 무덤을 대부분 참고해서 제작되었다. 이 무덤은 건릉 동남쪽에 있는 당대 황실의 호묘위릉이라는 제도에 의해 조성된 큰 무덤들이었다.²²²

218 馬得志, 1961, 「1959-1960唐大明宮發掘簡報」『考古』1961-7.

219 郭義孚, 1963, 「含元殿外觀復元」『考古』1963-10.

220 傅熹年, 1973, 「唐大明宮含元殿原狀的探討」『文物』1973-7.

221 楊鴻勳, 1989, 「唐大明宮含元殿復元研究」『慶祝蘇秉琦考古五十五周年論文集』文物出版社; 楊鴻勳 (1991) 「唐長安大明宮含元殿應為五鳳樓形制」『文物天地』19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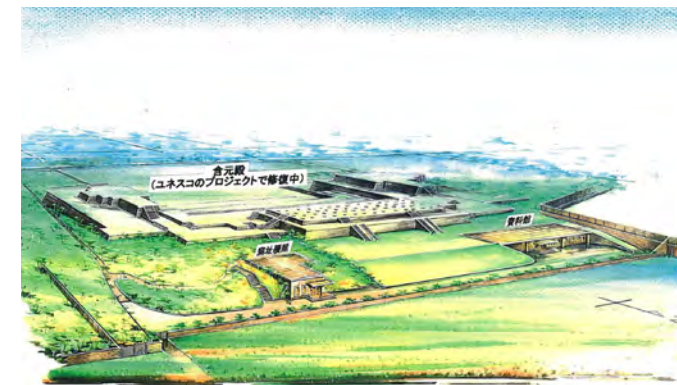
222 섬서고고공작자(陝西考古工作者)가 발굴하였다. 의덕태자의 묘소는 주로 묘도, 천장, 과동, 의도(墓道·天井·過洞·甬道) 등으로 구성됐다. 그 묘실에는 정미한 벽화가 가득 그려져 있었다.

특히 묘도 북벽화 건축도와 동서 벽화의 성벽과 꺾이라는 벽화는 한 쌍의 완전한 당대 건축도로, 그 꺾(각)은 본격적인 삼출꺾이다. '삼출꺾' 벽화는 성벽의 남쪽에 있으며 주로 옥정, 옥신, 평좌 및 부대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곽의준은 1963년 복원한 함원전 외관 복원도에서 상랑각(上鸞閣)와 '서봉각'이라는 두 각을 모두 '온대(台臺)' 형태의 '단꺾(單闕)'로 복원해 의덕태자 묘벽화 '삼출꺾(三出闕)'이 발견되면서 곽의준이 복원한 함원전 복원도는 당장 사용할 가치가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신 부희년이 복원한 삼출꺾을 가진 함원전의 평면 복원도가 등장했다. 용미도는 길이 70여 미터의 세 갈래로 나뉜 도로로 가운데 도로의 폭은 25.5m이고 양쪽 도로의 폭은 4.5m로 해서 복원안을 보여주었다. 부희년의 복원도는 발표 즉시 문화대혁명 중에 있는 고고학적 신수확의 하나로 특별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도록이나 교과서류에도 소개되었다. 삼층기단 전면에 3열로 길게 뻗은 용미도(龍尾道)의 형태는 완전히 화상 이미지로 정착되어 지금까지도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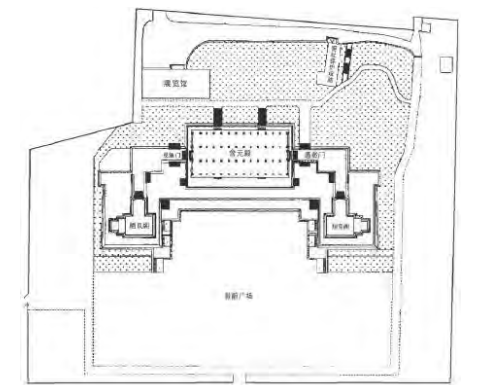
② 함원전 2차 발굴, 용미도의 새로운 인식과 정비사업에 반영

1994년에 중국정부와 유네스코 및 일본정부의 유네스코 신탁기금은 국제문화유산 보호사업(ODA)으로서 당의 장안성 대명궁을 포함하여 함원전 유적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문물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의 시안당성공작대가 1995~1996년에 전면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고발굴은 대면적 전면발굴이라는 방법을 채택하여 27,000㎡의 면적을 발굴함과 동시에 레이더로 함원전 유적의 하부를 탐사한 결과, 주로 다음 4가지 점이 밝혀졌다.

1. 함원전 유적은 이른바 관덕전 건축유지에 의거해 중건된 것이 아니다.
2. 함원전 유적인 동비랑 부근에서는 21기의 벽돌과 기와 가마들이 발견되었다. 벽돌과 기와는 크기·



2005년 안



2010년 완성안

형태·색이 함원전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똑같아 마치 같은 공인이 만든 것처럼 보인다. 즉, 이 가마들은 함원전이 건축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3. 이번 발굴과정에서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되었다. 900년 경에 함원전의 마지막 건축물은 아마도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었을 것이다.
4. 1995년부터 1996년에 걸쳐 발굴된 이른바 용미도는 1961년 이후에 복원된 용미도와 비교하면 전혀 다르다. 즉, 전자인 용미도의 복원은 길이 70여m의 세 갈래로 나누어진 도로이며, 가운데 도로의 폭은 25.5m이고, 양쪽 도로의 폭은 4.5m이다. 후자가 발굴된 용미도는 전 앞 광장의 평지에서 시작하여 양각 쪽 언덕을 따라 3층대를 거쳐 굴곡하면서 전기층 꼭대기로 올라갔다. 4번째가 가장 큰 수확이었다.²²³

위의 복원안을 보면 기단은 동서 200m, 남북 100m, 높이 15m이며 중앙에 주전이 있었다. 실제 측정치의 함원전지는 평지 15.6m보다 높고, 동서의 길이가 75.9m이고, 남북의 길이가 41.3m이며, 사방 5m의 부계가 있었다. 동서쪽에 상난각(翔鸞閣)과 서봉각(棲鳳閣)을 복도와 각루로 연결하였는데, 주전 앞에는 길이 78m의 계단을 따라 경사로가 만나는 용미도(龍尾道)가 있고, 중간에 있는 어도와 양쪽에 있는 도로와 구분되어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복원안은 현재 유구상에서 알 수 있는 진정성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단부, 기둥 주초, 건물지, 용미도 등의 유적만을 남겨 놓은 채 정비를 마무리했다.

223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西安唐城工作隊 (1997) 「唐大明宮含元殿遺址1995-1996發掘報告」 『考古學報』 1997-3.

IV 사례 분석



1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의 한계

1.1 사업 프로세스 진입 시기별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자원의 인식 및 논의의 시기를 사업 프로세스 단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사업 프로세스를 비교적 단순화하여 후보지선정부터 준공까지 11단계로 구분하였으나, 실제 사례 검토 결과 유의미한 구분은 후보지선정, 착공, 준공의 세 단계와 그 사이 시점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후보지선정 단계에서 고려된 역사문화자원은 택지개발사업 시행 이전부터 대상지에 존재했던 역사문화자원, 이를테면 역사적 경관과 가시적인 문화유산,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환경 등으로 분석되었다. 대표적으로는 국내 사례에서 울산 혁신도시의 경우 후보지선정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공룡발자국화석 유적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화성 동탄 택지지구는 기존의 건조물문화재를 사업실시 이전 전수조사하여 가치 있는 가옥에 대한 이전보존조치를 시행하였다.

후보지선정과 착공 이전 단계, 즉 문화재 지표조사 단계에서 발견된 역사문화자원은 대체로 개발사업에 적극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용인 죽전 택지지구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고고, 민속, 분묘 및 석물 분야에 대한 역사문화자원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이들은 죽전중앙공원 내 일부가 복원되었고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보존·복원된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였다.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성이 저해될 수 있는 구간은 착공 이후의 단계에서 인식된 경우이다. 착공 이후 2차문화재발굴조사를 통해 검출된 역사문화자원의 경우, 논의의 단계로 진입하며 상당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대체로 거의 모든 사례에서 착공 이후 발견된 역사문화자원은 사업시행자측의 소극적인 보존

의지와 문화재청 및 전문회의기구의 보존 권고 사이에서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 소요를 유발하였다.

다만 갈등이 반드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에 저해요소로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갈등은 필연적인 요소로서,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되었고 거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사업의 원활한 공정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측 입장에서는 검출된 역사문화자원의 중요도에 따라 보존·복원에 대한 합리적 중재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다만 문화재청 및 전문회의기구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이라는 원론적 관점에서의 보수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충되는 의견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전문가지도회의 내지는 문화재위원회의 논의가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검출된 역사문화자원의 중요도에 따라 착공 이후 인식된 매장문화재의 활용성은 현격히 차이를 보인다.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논의 단계에서 문화재위원회의 보존 권고 강도가 약할 경우 사업시행자측의 소극적 보존조치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이러한 경우 매장문화재는 전면 기록화 및 복토 후 보존조치 정도로 합의되었는데, 본 사례조사 중에서는 화성 동탄 택지지구에서 착공 이후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복토 후 보존하는 방향으로 소극적 조치가 시행되었다. 본 사례조사의 경우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하였으므로 소극적 보존조치가 인용된 사례는 이밖에 더 많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착공 후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중요도가 높을 경우 대체로 다양한 방식의 보존조치가 시행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성남 판교 개발지구로서, 착공 이후 검출된 백제 및 고구려 석실분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중장비를 사용하여 전체 이전복원을 수행한 사례로 적극적인 보존조치가 주목된다. 울산 혁신도시의 경우 개발 당시 발견된 제방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급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자 보존에 소극적이었던 사업시행자측이 전향적으로 보존 및 활용에 나서면서 사업이 전환된 사례다. 제방유구는 이후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전시관 및 유적공원으로 구성되어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역사문화자원의 유형 및 규모에 관계없이,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해당 자원의 인식 및 논의의 시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그 인식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도시개발사업에 적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식 시점이 착공 이후로 늦어진다면 다양한 갈등 상황을 야기하며 역사문화자원의 중요도에 따라 보존조치의 강도 역시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역사문화자원의 유형별 계획 적용 한계

본 사례에서 나타난 역사문화자원의 유형은 크게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되지만, 무형 자원의 인식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자원의 경우 경관, 유적지, 건조물, 매장문화재 등으로 분포됨이 확인되었으나, 대체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유형은 매장문화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장문화재의 경우 대체로 개발사업의 프로세스 내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매장문화재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 사업은 드물며 법제적으로 매장문화재 발견시 문화재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계획이 다수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항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매장문화재의 인식 시점과 그 중요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매장문화재의 경우 대체로 유적공원 조성 및 관련 전시관 설립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현지조사 결과 이와 같은 조성계획이 현재에도 유의미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문화재 이외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사례로서 김포 한강신도시와 화성 동탄 택지지구의 사례가 주목된다.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 철새도래지를 사업대상지의 주요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인식하여 관련된 공원을 조성하고 전시관을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적 요소를 활용한 김포아트빌리지를 조성, 전통건조물의 이미지를 차용한 공원계획에 적용하였다. 단순한 매장문화재와 유관한 공원 조성이 아닌 역사문화자원의 포괄적 범주를 적용한 계획요소 활용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화성 동탄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건조물 문화유산을 전수조사하여 기록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그 가치가 높은 건조물의 경우 사업부지 바깥으로 이전복원하는 조치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사례적 가치가 높다. 이전복원된 건조물의 경우 차후 지구 내 근린공원으로 이전하여 문화재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역사문화자원 활용 조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 풍암지구의 사례 역시 역사문화자원의 인식 범위를 확대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풍암지구의 경우 지표조사 결과 발견된 매장문화재 및 유형자산을 부지 내 공원으로 이전복원한 보편의 사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시 이식된 시지정 보호수인 왕버들이 지역민의 의례행위의 매개였다는 점에서 무형적 역사문화자원을 전승한 사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왕버들은 지역민들에게 할머니 당산, 할아버지 당산으로 모셔지는 상징적 자연유산이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매년 당산제를 개최하고 있었다. 당시 사업시행주체는 이러한 무형적 자산에 대해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시지정 보호수로 관리되고 있었던 왕버들의 가치를 근거로 주변 공원에 이식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은 주민 중심의 위원회를 조직해 행정당국의 예산을 받아 매년 당산제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매개가 되는 왕버들은 의식행위의 구심점으로서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도시의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고자 한 오타루의 도시정비계획 사례가 주목된다. 오타루의 사례는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설립해 도시정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로, 이후 일본 내 다양한 도시정비계획의 기준이 되었다. 본 사례조사에서 분석한 오사카시, 교토시의 경우 역시 역사도시의 경관정비를 수행하며 지자체 조례로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지속적인 경관유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미니애폴리스의 계획에서도 나타난다. 미니애폴리스의 경우 도로 건립을 위한 공사에서 검출된 다양한 역사적 유구를 보존하여 밀 루인스 파크로 전승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도시차원에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타루의 경우 무형의 역사적 유산으로서 시민운동의 집단기억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타루시의 사례는 도시의 역사경관을 재개발하려는 관과 이를 보존하려는 민이 대립한 사례로, 이른바 운하보존운동으로 불리는 전국적 운동으로 전개되어 경관을 보존한 사례이다. 이와 같은 시민운동의 기억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관계획에 시민이 관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자치조례 및 유관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로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역사문화자원은 대체로 매장문화재에 집중된 분포 현황을 보이지만, 최근의 사업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범주에서 역사문화자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사례 중 역사문화자원의 이미지 요소를 차용해 매장문화재의 역사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의 디자인 모티브로 차용한 사례는 화성 동탄 및 김포 한강신도시, 충주 호암 택지지구 등의 사례로, 이들은 대체로 2000년대 중반에 사업이 수행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점차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개발사업이 특화성을 얻고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전통요소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제도적 고찰 및 대안 검토

2.1 법·제도적 관점에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도 제고 방안

역사문화자원은 ‘무엇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서 ‘왜 누구를 위하여 보존 하는가’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또한 문화재적 관점에서 그 자원이 가진 자체로의 역사·문화적 가치 및

중요성과는 또 다른 맥락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앞서 살펴본 국내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사례는 대부분 사업 초기에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진행 과정 중에 발견 되는 경우가 다수였고, 그 유형은 한정적으로 매장문화재로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인지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활용 방식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중점으로 설정하여 이전복원을 통한 역사공원화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사례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개발사업 과정 중 발견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은 문화재적 관점에서의 보존적 조치였기 때문에 관련 시설 도입 이후의 활용성이나 기존 도시계획상 시설과의 연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이는 역사문화자원의 조사 및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며, 역사문화자원의 개념 및 법적 지위, 자원의 유형 분류와 그에 따른 활용 방식의 분류가 구체적으로 선행되지 않았다는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개념의 재인식 및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좁은 범위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방안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활용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방안 마련 연구」(2013,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를 통해 기존 법령에서의 문화유산 활용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이 결여되어 있고 과도하게 개발 중심이거나 문화유산의 가치는 종속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정책이 법령의 근거 없이 산발적으로 이벤트 성격으로 등장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용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문화유산 훼손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결론으로 「문화유산 활용 진흥법안」이 도출되었다.

이후 「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2015,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에 의하면, 문화재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문화재 활용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의 문화재 정책은 문화재 보호중점주의를 강조하면서 보존대상을 확대하여 나갔지만, 다양해진 보존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범위와 가능성은 경시됨으로써 보호정책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고 진단한다. 또한 문화재의 공공재적 가치, 경제적 가치, 지역 공동체적 가치 등의 다양한 가치가 문화재 정책 방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하지만 역사문화자원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등록된 문화재에 비해 여전히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도 선언적 규정만이 존재하여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020년 현재 문화재청은 역사문화자원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제도화·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현행 제도로서는 역사문화자원의 범주 중 지정·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만 법·제도적 틀이 갖춰졌으며, 이마저도 활용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현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소한의 보존조치를 위한 규제적 성격의 규정들로 이해해야 한다. 때문에 현행 문화재관련 법령에만 충실해서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조사, 활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때문에 현재 부족한 법·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문화재 범주 외적으로 다양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예시로써 다양한 영향평가 제도가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조사의 도구로 제안될 수 있다.

2.2 역사문화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한 대안 검토

1)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시민참여 견인

용인 동백 택지지구의 경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검출된 매장문화재를 전시관으로 조성하였으나 실제 주민의 생활권에서 이격되어 활용도가 낮은 한계가 있었고, 김해 율하 택지지구의 경우 매장문화재를 활용하여 역사공원을 조성하였으나 이후 체육공원과 연계되며 전시공간을 제외한 시설물은 모두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주 평거3 택지지구 역시 매장문화재를 활용한 유적공원 조성 사례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관리부실로 인해 선사시대 생활상을 재현한 모형은 파손되어 있었고 구조물은 녹이 슬어 있는 등 관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매장문화재 관련 유적공원 등에 대한 관리부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리주체의 설정과 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로, 진주 평거3 택지지구의 경우 치명적인 관리부실 상황을 초래한 것은 공원 관리권을 두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측이 갈등을 빚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현장에 설치된 관리실에는 관리인 1인이 상주하였으나 청소작업 이외의 관리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후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양되었지만 재정 문제로 관리 소홀은 지속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사례로서 안산 신길 택지지구의 사례가 주목된다. 안산 신길 택지지구의 경우 방치된 유적공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이 2013년부터 전개되어 ‘석기마녀’라는 이름으로 선사시대 유적공원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 민관학의 논의 하에 역사유적공원을 정비하고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현재도 관련 교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광주 풍암지구의 사례 역시 주민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풍암지구의 경우 부지 내 당산제가 수행되고 있었던 대상물인 왕버들을 부지 내 공원으로 이식하여 무형적인

의례 행위를 전승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지역민은 자신들의 의례 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마을주민 중심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 축제를 전승해가는 주민참여를 끌어내게 되었다.

해외 사례 역시 시민활동을 적극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정비에 포함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이 획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타루의 역사경관 정비 사례는 시민활동에 의한 경관보존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도 민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도시의 축제활동 등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업은 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관의 행·재정적 지원이 결합한 결과이며, 특히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치조례의 수립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도시개발 프로세스 내 역사문화자원 인식 시점 단축

앞선 사례분석 결과, 역사문화자원의 인식 시점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의 인식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제도적 관점에서의 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유효할 수 있다. 현재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은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필수요소로서 도시계획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하지만, 역사문화자원의 조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어 착공 이후의 매장문화재 발견에 대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다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유산영향평가 제도가 일정 면적범위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관점에서의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은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다만, 매장문화재에 한정하지 않을 경우 역사문화자원의 인식은 그 유형을 극복함으로써 인식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매장문화재의 경우 물리적인 한계로 그 인식 시점이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 외의 다양한 유형, 즉 경관, 시민의식, 무형자산, 건조물, 역사적 맥락 등은 사업시행자의 의지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도시계획은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전통성을 높인 도시계획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실시된 비교적 최근의 사업은 포괄적 범주에서 역사문화자원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데, 매장문화재의 검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건립하는 전시관이나 유적공원의 경우 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근린공원에 도입한 디자인요소, 어린이 놀이터에 차용한 전통적 요소 등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역사문화자원의 인식과 이를 적용한 도시계획이 필요한 이유다.

V 결론



1 연구요약 및 연구성과

본 연구는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문제를 내재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문화재가 역사문화자원으로서 도시개발과 합의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해 수행한 사례조사 연구이다. 그동안 문화재는 도시개발과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개발사업의 지연과 갈등상황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최근 문화재의 인식변화와 함께 이를 도시개발에 유효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을 도시개발에 활용하여 도시 이미지를 환기하고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역사문화특화도시가 그것이다.

사례조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행한 도시개발사업 1차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시·발굴조사보고서 등이 발간된 사례를 대상으로 심층분석하여 국내사례 총 13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외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이미 알려졌다거나 그간 도시정비 사례로 한정되었으나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의 충돌 과정이 온전히 소개되지 않은 사례를 선정하여 총 6건에 대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사례는 해당 도시개발·정비사업의 경과 및 개요를 요약하고, 사업부지 내 소재한 역사문화자원을 개관한 뒤 이에 대한 정비·활용 방안의 수립 및 전개 과정, 이후의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문헌조사상 확인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현황을 현장조사를 통해 보완하고 실제 관리 실태 및 주민사용도 조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것으로, 역사문화자원의 디자인 요소를 차용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활용 현황과 노후화되고 방치된 유적공원 및 전시관 등을 확인하여 조사 결과에 반영하였다.

연구 결과 역사문화자원은 그 인식 및 논의의 시점이 공사 착공 이전으로 앞당겨질 경우 개발계획에

반영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장문화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검출된 매장문화재의 중요도가 낮을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복토 후 보존 또는 현장기록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문화재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양한 갈등 및 조정상황을 거친 후 대체로 유적공원 조성 및 전시관 설립으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도시의 맥락과 관계없는 설계가 바탕이 된 경우, 주민생활과 괴리되거나 관리소홀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요소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역사문화자원의 검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개발 프로세스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수행되는 재해영향평가 등과 더불어 유산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제안하였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한 현실성을 고려하여, 매장문화재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역사문화자원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주체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제안하였다.

본 사례조사 연구에서 수행된 일부 사업의 경우, 매장문화재에 한정하지 않고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해당 도시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계획이 차후에도 역사유적공원 등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적 요소를 도입한 도시계획으로 발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역사문화자원 콘텐츠를 지속가능한 도시 어메니티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안산신길지구의 경우 검출된 문화재를 근간으로 조성된 역사문화자원이 방치되어 퇴락한 상황에 놓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활동가 및 거주민에 의해 활용 논의가 촉발되고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등, 민관이 연합한 역사문화자원 콘텐츠의 활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광주풍암지구의 사례 역시 매장문화재 이외에 지역민의 무형적 제례 행위를 그 매개체가 되는 왕버들을 보존함으로써 전승한 사례로 주목되는데, 이와 같은 무형적 자산의 인식 및 보존은 지역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시민참여에 의한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은 해외사례에서도 확인되는데, 오타루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2 시사점 도출

본 연구의 한계점은 관련된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사례조사를 역사문화자원이 유효하게 활용된 우수사례에 한정하였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사례는 대체로 역사문화자원의 검출을 통해 문화재전문가회의와의 갈등상황 후 조정을 거쳐 역사문화자원이 보존된 사례로,

보존 이후 관리상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지만 실제 역사문화자원이 훼손되거나 망실된 사례는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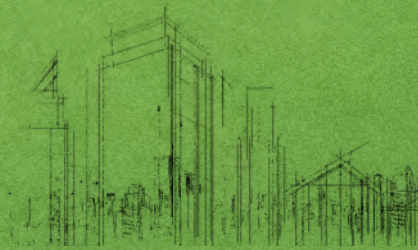
사실상 도시개발에 있어 역사문화자원, 특히 매장문화재의 검출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로, 좁은 국토 내에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환경상 대체로 개발가능한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그 층위가 다양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환경을 감안할 때, 보다 폭넓은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역사문화자원이 훼손되거나 철거된 사례를 포함하여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가 차후 후속연구에 의해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계획에 있어 주요한 요소는 역사문화자원의 조기인식과 역사문화자원 유형의 다변화, 그리고 역사문화자원 논의 및 콘텐츠 유지관리에 있어 시민참여의 확대 등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세 가지 논의는 모두 유효한 것으로,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거대한 전환 없이 사업시행자 관점에서의 노력으로 수행될 수 있는 요건들이다. 역사문화자원의 조기 인식을 위해 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역사문화자원과 깊게 매개된 현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역사문화자원의 유형을 매장문화재에 한정하지 않고 건조물, 민속유산 등으로 확대한 것은 본 사례조사의 내용 속에서도 확인되는 경향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안한 주민참여를 통한 콘텐츠 활용은 해외사례를 통해서 특히 깊게 확인되는 것으로, 이후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법제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제정 등은 사업시행자측이 아닌 행정측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와 주민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행정당국까지 협의할 때에 비로소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 특화도시가 가능할 것이다.

토지주택박물관 연구총서 제17집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도시 조성방안

총	괄	심광주
기	획	김충배, 김태근, 문현숙
원	고	김영재, 김정현, 김태근, 김형우, 채미옥
교	정	김정현, 김태근, 김형우
자 료 조 사		강승호, 김희은, 구자진, 이재윤, 이형호, 임누리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 행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TEL 055-922-5438 FAX 055-922-5439
디자인 · 인쇄		명문인쇄공사(02-2079-9200)



토지주택박물관